



정답과 해설·채움 운문

I 누가	4
II 언제·어디서	14
III 무엇을	21
IV 어떻게	31
V 왜	84

빠른 정답 찾기

I 누가

본문 12~25쪽

01	확인	1 (1) 표 (2) 표 (3) 이 (3) 경외감 3 ③ 4 ① 5 (1) × (2) × (3) ○
	A	1 ⑤ 2 ② 3 ④
	B	1 ③ 2 ⑤
02	C	1 ① 2 ④ 3 ③ 4 ③ 5 ③
	확인	1 (1) 예찬적 (2) 의지적 2 (1) 독 (2) 대 (3) 독 3 (1) 현학적 (2) 풍자적, 비판 4 ① 5 (1) ○ (2) ○ (3) ×
	A	1 ④ 2 ③ 3 ⑤ 4 ② 5 ①
	B	1 ② 2 ② 3 ⑤ 4 ① 5 ②
	C	1 ② 2 ③ 3 ② 4 ④

III 무엇을

본문 38~51쪽

04	확인	1 (1) × (2) × (3) ○ 2 ① 3 ③ 4 (1) 직 접적 (2) 이미지 (3) 대비되는
	A	1 ⑤ 2 ⑤ 3 ③
	B	1 ④ 2 ②
05	C	1 ① 2 ① 3 ⑤ 4 ⑤
	확인	1 (1) ○ (2) × (3) × 2 ㄷ, ㄹ 3 (1) 대상 (2) 먼 4 (1) × (2) ○ 5 ②
	A	1 ① 2 ③ 3 ⑤ 4 ⑤
	B	1 ⑤ 2 ④ 3 ② 4 ③
	C	1 ① 2 ⑤ 3 ④ 4 ③

II 언제·어디서

본문 28~35쪽

03	확인	1 (1) 외적 상황 (2) 시간적, 공간적 2 ㄴ, ㄷ 3 (1) × (2) ○ (3) ○ 4 ①
	A	1 ④ 2 ③ 3 ② 4 ② 5 ①
	B	1 ③ 2 ② 3 ① 4 ④ 5 ③
	C	1 ④ 2 ④ 3 ① 4 ③

IV 어떻게

본문 56~127쪽

06	확인	1 ② 2 (1) ㉠ (2) ㉡ 3 (1) 방울방울 (2) 내 마음을 아실 이 (3) 하오려면 4 (1) × (2) ○ (3) ○ (4) ○
	A	1 ① 2 ④ 3 ④ 4 ③
	B	1 ④ 2 ③ 3 ① 4 ②
07	C	1 ① 2 ③ 3 ⑤ 4 ③
	확인	1 (1) 선경후정 (2) 기승전결 2 (1) ㉢ (2) ㉣ (3) ㉠ 3 ③ 4 (1) ○ (2) × (3) ×
	A	1 ③ 2 ② 3 ②
08	B	1 ⑤ 2 ②
	C	1 ① 2 ③ 3 ④ 4 ③ 5 ①
	확인	1 (1) 미각적 (2) 청각적 (3) 후각적 (4) 공감각적 (5) 복합 감각적 2 (1) ㉤ (2) ㉥ (3) ㉦ (4) ㉧ 3 ① 4 ㄴ, ㄷ, ㄹ 5 (1) 공감각적 (2) 복합 감각적
	A	1 ③ 2 ③ 3 ③
	B	1 ⑤ 2 ① 3 ④
	C	1 ① 2 ② 3 ② 4 ⑤

9	확인	1 (1) × (2) ○ (3) × 2 (1) 동적, 상승 (2) 생성, 계절적 3 ③ 4 (1) 생성 (2) 하강 (3) 소멸 5 ㄱ, ㄴ
	A	1 ① 2 ③ 3 ④
	B	1 ⑤ 2 ④ 3 ④
10	C	1 ③ 2 ② 3 ④ 4 ②
	확인	1 (1) 의인법 (2) 대유법 (3) 은유법 (4) 직유법 2 (1) × (2) ○ (3) × 3 (1) 은유법 (2) 직유법 (3) 대유법 (4) 의인법 (5) 활유법 4 ㄱ, ㄷ, ㄴ 5 ②
	A	1 ① 2 ⑤ 3 ④
11	B	1 ② 2 ⑤ 3 ⑤
	C	1 ⑤ 2 ② 3 ④
	확인	1 (1) × (2) ○ 2 (1) 객관적 상관물 (2) 감정이입 3 (1) × (2) ○ 4 ㄱ, ㄴ 5 ②
12	A	1 ① 2 ③ 3 ⑤ 4 ④
	B	1 ① 2 ④ 3 ④ 4 ③
	C	1 ⑤ 2 ③ 3 ⑤ 4 ①
13	확인	1 (1) 반복법 (2) 점층법 (3) 연쇄법 (4) 열거법 2 (1) × (2) × (3) ○ 3 (1) ○ (2) × (3) ○ 4 ㄱ, ㄷ 5 ③
	A	1 ③ 2 ③ 3 ②
	B	1 ④ 2 ④ 3 ⑤
14	C	1 ④ 2 ④ 3 ② 4 ①
	확인	1 (1) × (2) × (3) ○ 2 (1) 도치법 (2) 시적 허용 (3) 대구법 3 ② 4 ㄱ, ㄴ 5 ① 6 (1) × (2) ○ (3) ○
	A	1 ② 2 ④ 3 ③
15	B	1 ① 2 ① 3 ④
	C	1 ⑤ 2 ② 3 ③ 4 ④
16	확인	1 (1) ○ (2) × (3) × 2 (1) ㉠ (2) ㉡ (3) ㉢ 3 (1) ㉣ (2) ㉤ (3) ㉥ 4 (1) × (2) ○ (3) ○
	A	1 ② 2 ④ 3 ③
	B	1 ① 2 ① 3 ⑤
17	C	1 ⑤ 2 ② 3 ③ 4 ④
	확인	1 (1) 아름다운 혼 (2) 이상 세계 2 (1) ㉦ (2) ㉧ 3 (1) × (2) ○ 4 ③
	A	1 ① 2 ④ 3 ④
18	B	1 ② 2 ② 3 ③
	C	1 ① 2 ④ 3 ④ 4 ②
19	확인	1 ㄴ 2 ③ 3 (1) 국토 (2) 비애 4 (1) ○ (2) × (3) ○
	A	1 ④ 2 ① 3 ③
	B	1 ① 2 ③ 3 ②
20	C	1 ② 2 ④ 3 ③ 4 ①
	확인	1 (1) × (2) × 2 (1) 반어법 (2) 역설법 3 (1) 찬란한 슬픔의 봄을 (2) 역설법 4 ② 5 역설법 6 ③
	A	1 ① 2 ② 3 ③
21	B	1 ① 2 ② 3 ③
	C	1 ⑤ 2 ③ 3 ③ 4 ④ 5 ④

15	확인	1 (1) × (2) × 2 (1) 반어법 (2) 역설법 3 (1) 찬란한 슬픔의 봄을 (2) 역설법 4 ② 5 역설법 6 ③
	A	1 ① 2 ② 3 ③
	B	1 ① 2 ② 3 ③
16	C	1 ⑤ 2 ③ 3 ③ 4 ④ 5 ④
	확인	1 (1) 자문자답 (2) 돈호법 (3) 설의법 (4) 영탄법 2 (1) 영 (2) 영 (3) 설 3 ① 4 ② 5 ㄱ
	A	1 ④ 2 ③ 3 ⑤ 4 ②
17	B	1 ③ 2 ⑤ 3 ① 4 ①
	C	1 ① 2 ④ 3 ③ 4 ④
18	확인	1 (1) 의인법 (2) 대유법 (3) 은유법 (4) 직유법 2 (1) × (2) ○ (3) × 3 (1) 은유법 (2) 직유법 (3) 대유법 (4) 의인법 (5) 활유법 4 ㄱ, ㄷ, ㄴ 5 ②
	A	1 ① 2 ⑤ 3 ④
	B	1 ② 2 ⑤ 3 ⑤
19	C	1 ⑤ 2 ② 3 ④
	확인	1 (1) × (2) ○ 2 (1) 객관적 상관물 (2) 감정이입 3 (1) × (2) ○ 4 ㄱ, ㄴ 5 ②
	A	1 ① 2 ③ 3 ⑤ 4 ④
20	B	1 ① 2 ④ 3 ④ 4 ③
	C	1 ⑤ 2 ③ 3 ⑤ 4 ①
21	확인	1 (1) 반복법 (2) 점층법 (3) 연쇄법 (4) 열거법 2 (1) × (2) × (3) ○ 3 (1) ○ (2) × (3) ○ 4 ㄱ, ㄷ 5 ③
	A	1 ③ 2 ③ 3 ②
	B	1 ④ 2 ④ 3 ⑤
22	C	1 ④ 2 ④ 3 ② 4 ①
	확인	1 (1) × (2) × (3) ○ 2 (1) 도치법 (2) 시적 허용 (3) 대구법 3 ② 4 ㄱ, ㄴ 5 ① 6 (1) × (2) ○ (3) ○
	A	1 ② 2 ④ 3 ③
23	B	1 ① 2 ① 3 ④
	C	1 ⑤ 2 ② 3 ③ 4 ④
24	확인	1 (1) 아름다운 혼 (2) 이상 세계 2 (1) ㉦ (2) ㉧ 3 (1) × (2) ○ 4 ③
	A	1 ① 2 ④ 3 ④
	B	1 ② 2 ② 3 ③
25	C	1 ① 2 ④ 3 ④ 4 ②
	확인	1 ㄴ 2 ③ 3 (1) 국토 (2) 비애 4 (1) ○ (2) × (3) ○
	A	1 ④ 2 ① 3 ③
26	B	1 ① 2 ③ 3 ②
	C	1 ② 2 ④ 3 ③ 4 ①

V 왜

본문 132~149쪽



01 화자·정서

확인 1 답 (1) 표 (2) 표 (3) 이

◎ 이래서 정답

- (1) '나 보기가 역겨워'에서 화자가 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우리'도 '만고상청'하겠다고 한 부분을 통해 화자가 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화자는 오월의 농촌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나', '우리' 등의 시어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답 (1) 외로움 (2) 슬픔 (3) 경외감

◎ 이래서 정답

- (1) 녹음이 깔린 바깥 풍경과 대조적으로 휘장 안은 쓸쓸하고, 장막 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엿볼 수 있다.
- (2) '슬피 읊니다.'에서 슬픔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 (3) 화자는 산봉우리의 가운데가 뚫린 모양을 하고 있는 '석문'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있으므로 경외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는 화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와 대조적인 현재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허무와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② <보기>의 화자는 '그날'이 온 상황을 가정하여 삼각산이 춤을 추고 한강 물이 용솟음치며, 자신은 기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등 격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확인 4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에서 굳게 닫힌 '쇠문'은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화자의 부정적인 처지를 형상화한 표현이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왜 오답

- ② ㉡에서 화자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그와 달리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 ③ ㉢에서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것으로 화자가 길을 걸으며 찾고자 하는 참된 자아이다. 따라서 화자는 '담 저쪽'의 '나'를 찾기 위해 계속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확인 5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화자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원망하거나 노여워하고 있지 않다.
- (2) 입이 화자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화자가 입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지도 않다.
- (3) '외기러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로 한양성에 들러 입에게 화자의 말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입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만고상청: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언제나 푸름.
- 녹음: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격정적: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것.
- 염원: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또는 그런 것.

산길에서

누가	산길을 오르면서 성찰하는 '나'
언제 어디서	산길
무엇을	산길(역사)을 만든 '그이들(선인들)'의 자취
어떻게	종결 어미 및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의인법, 도치법
왜	산길을 걸으며 얻은 깨달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3~4행의 '소리치는 바람', 수줍게 쳐다보는 '폴꽃들'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이들(길을 만든 이들)'을 구체화한 표현으로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화자가 산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날 뿐,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이 시의 운율감은 종결 어미 '-다'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동일한 시행은 반복되고 있지 않다.
- ③ **어떻게**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공간각적 심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대상에 입체감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2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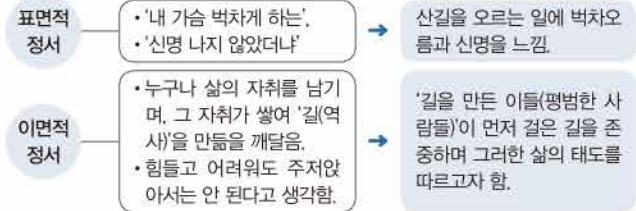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B]에서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바람과 이름 모를 폴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A]에서 화자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였다.
- ③ **누가** [C]에서 화자는 길을 만든 '그이들'의 옛 내음을 맡기 위해 집을 떠나고,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이 난다고 하였다.
- ④ **누가** [D]의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의미로, 화자는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⑤ **누가** [E]에서 화자는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길을 걷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다지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화자의 정서



I

누가

3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누가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지니고 있다. 13~17행에서 화자는 '부질없음'이 쌓여서 길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역사의식을 깨닫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부질없는 되풀이'에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꺾일 수 있다는 염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보기>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 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길'은 화자가 걷고 있는 산길을 뜻하면서 민중이 만들어 온 역사를 함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바람'과 '폴꽃'은 화자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빗대어 나타낸 말로, 이들이 화자의 가슴을 벅차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애정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누가** <보기>에 따르면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민중을 가리킨다. 화자는 이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함으로써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누가** 화자는 '부질없음'이 쌓여서 마침내 '길(역사)'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이들'을 따라 길을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신이 걷고 있는 발걸음도 뒤에 올 사람들에게 길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는 화자가 민중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역사의식과 관련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어휘

• **입체감**: 위치와 넓이, 길이, 두께를 가진 물건에서 받는 느낌. 또는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

입암이십구곡

누가	입암을 바라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입암이 보이는 강가
무엇을	높고 곧은 입암의 자태
어떻게	의인법,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왜	입암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선비가 지녀야 할 가치인 지조와 절개를 노래함.

1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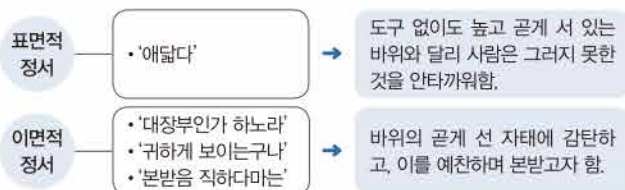
㉠ 아래서 정답

- ③ **누가** <제3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서 있는 바위를 벗으로 삼고 있어서 세상에 이익 되는 세 벼를 사귈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장에서 바위를 벗 삼는 화자의 행위는 종장에서 속세의 벼를 사귈 필요를 못 느끼는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제1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무정히 서 있는 바위를 보고 감탄하고, 중장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인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 있기 어렵다며 바위의 자태에 놀라워하고 있다.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탄이 중장에서 강조될 뿐, 만족감으로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누가**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입암의 높고 곧은 자태를 예찬하고 있을 뿐, 어떤 것을 깨닫거나 결심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제4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곧은 줄을 칠 수 있게 돕는 먹줄도 없이 서 있는 바위가 어느 법도를 알겠느냐고 의문을 가지나, 중장에서 높고 곧게 서 있어서 바위가 더 귀하게 보인다고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초장의 화자의 의문이 중장에서 회의감이 아닌, 감탄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누가** <제5수>에서 화자는 입암이 깊은 골짜기에 있어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암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 뿐, 중장의 판단이 종장에서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화자의 정서



2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박인로의 「입암이십구곡」 중 <제6수>와 <제8수>에는 '바위가 답함[암답(巖答)]'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화자와 바위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

누가

㉠ 아래서 정답

- ⑤ **무엇을** <제7수>의 '만고의 허다 영웅'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바위의 참된 가치를 알고 반가워한 훌륭한 선인들을 말한다. 그런데 <제8수>에서 바위는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라고 말하며 화자를 영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화자를 영웅과 비슷한 인물로 높이 표현한 것으로, 바위가 아닌 화자의 고고함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제5수>의 '찾아오랴'와 <제6수>의 '반길런가', '웁아가료'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두 수 사이의 형식상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② **누가** <제5수>에서 화자는 깊은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지만, <제6수>에서 바위는 그냥 깊은 골짜기에 있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바위의 위치에 대한 대화로 볼 수 있다.
- ③ **누가** <제6수>에서 바위는 세상이 매우 수상하다며 세속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자리 이동에 대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제7수>에서 화자가 바위가 만난 영웅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자, <제8수>에서 바위는 '소허'와 '엄 처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여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 어휘

- **회의감**: 의심이 드는 느낌.
- **유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계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 **염두**: ① 생각의 시초, ② 마음의 속.
- **고고함**: ① 세상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함, ② 세속을 초월하여 고상하고 고풍스러운.

가 봄비

누가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 이른 봄 • 집의 뒤꼍
무엇을	봄비, 잔설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시적 허용
왜	봄비가 내려 잔설을 녹이는 풍경을 노래함.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누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나'
언제 어디서	오월의 어느 날
무엇을	모란의 개화
어떻게	수미상관에 따른 시상 전개, 도치법, 과장법, 역설법
왜	모란(소망, 보람)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하는 것이, (나)는 봄에 모란이 피었다가 지고 다시 봄이 되어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리는 과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나)의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모란이 피었다가 이내 저 버린 것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봄의 모순성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어떻게** (가)의 '잔설을 일깨운다.', '어디론가 사라진다.', '빗물이 스민다.'에서 현재형 시제의 사용으로 인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섬섬해 우웁네다'에서 현재형 시제가 쓰이고 있지만, 섬섬해 운다는 내용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어떻게** (가)는 2연에서 '먼지'의 까만색과 '잔설'의 흰색이 대비되고 있지만,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어떻게** (가)에서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1~2행이 11~12행에서 반복되고 있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㉔은 겨우내 쌓여 있던 잔설이 봄비에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이불을 개켜 어디론가 나가는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㉔에서 겨우내 마늘밭에 햇별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현재 햇별이 내리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무엇을** 겨우내 햇별이 들지 않던 그늘진 곳에 내린 봄비가 2연에서 잔설을 깨우는 것으로 보아 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분위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㉔은 겨울 동안 쌓여 있던 눈 위로 까맣게 먼지가 내려앉은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여기에서 잔설의 활발한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는다.
- ⑤ **무엇을** ㉔은 빗물이 말라 가는 모습이 아니라,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려 기왓장 틈으로 빗물이 계속 스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겨우내 햇별이 들지 않던 곳에 봄비가 내려 잔설이 녹아 사라지는 풍경은 겨울에서 이른 봄으로의 계절 변화가 드러난 것으로, 화자는 이로부터 봄기운을 느끼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봄비와 잔설 등의 자연물을 통해 봄이 오는 기운을 느낄 뿐,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 ② **누가** 뒤꼍 추녀 밑 마늘밭 위로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사라져 가는 고향 풍경으로 볼 만한 근거가 이 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화자는 봄비가 오는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할 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누가** 화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며,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어느 날(㉔)'은 꽃잎이 떨어져 시들고 모란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화자가 슬픔을 느낀 시간이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㉔에서 화자는 시든 모란을 보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뿐, 모란과의 소통하고 있지 않다.
- ② **언제-어디서** ㉔에서 화자는 모란이 사라져 슬픔을 느꼈을 뿐, 모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 ④ **언제-어디서** ㉔에서 화자는 모란의 낙화를 수용하고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뿐, 이러한 상황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언제·어디서** 화자에게 모란은 간절히 기다려 온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의미하므로,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에서 화자는 모란이 시든 것을 확인하고 절망할 뿐,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는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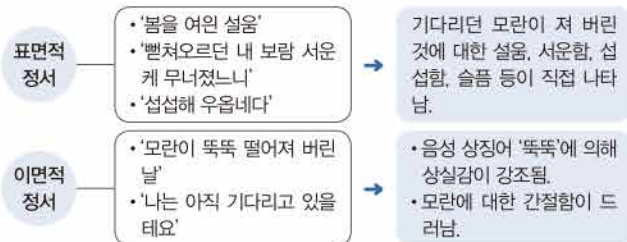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누가·무엇을** ‘다’라는 부사어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모란이 피었다가 저 버린 것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허무함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모란이 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무엇을** ‘뚝뚝’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다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모란이 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누가·무엇을** 봄의 다른 변화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화자는 모란이 완전히 저 버린 후에야 ‘비로소’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비로소’에 의해 화자의 상실감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무엇을** ‘하냥’은 ‘늘, 한결같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모란을 보지 못하는 삼백예순날 내내 섭섭해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누가·무엇을** ‘아직’을 통해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간절함이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화자의 정서



+ 어휘

- **비로소**: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02 태도·어조

확인 1 답 (1) 예찬적 (2) 의지적

이래서 정답

- (1) 화자는 피었다가 쉽게 지는 꽃, 푸르렀다가 금방 누렇게 변하는 풀과 달리 바위는 변함이 없다며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다.
- (2) 화자는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뚝 남아 하늘에 닿을 듯이 서서 꽃도 피우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교목의 모습을 통해 암담한 현실에 맞서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태도가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 2 답 (1) 독 (2) 대 (3) 독

이래서 정답

- (1) 무정한 오디새 소리에 잠 못 이루며 울적해하는 화자의 심정이 청자 없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독백체에 해당한다.
- (2) ‘저기 가는 저 각시 ~ 누굴 보러 가시는고’는 ‘각시’에게 질문하는 말이고, ‘여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는 질문에 대한 각시의 대답으로, ‘너’와 ‘각시’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체에 해당한다.
- (3) 화자가 특정한 청자 없이 혼잣말로 장수산 속의 고요와 눈이 내린 풍경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므로 독백체에 해당한다.

확인 3 답 (1) 현학적 (2) 풍자적, 비판

이래서 정답

- (1) 종장의 화자는 계절을 파는 ‘장사’로, 계절을 ‘외골내육’, ‘양목’, ‘상천’, ‘전행’, ‘후행’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현학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 종장의 화자는 ‘장사’가 ‘댁들’이라고 말한 손님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계절을 팔고 있는 ‘장사’에게 거북하게 말하지 말라며 풍자적 어조로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인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아!’, ‘허무한디!’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이리 승냥이가 앞뒤로 덤비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허무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욕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❶ 왜 오답

-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의 마음을 노리고 앞뒤로 덤비는 대상으로, 그에 대해 비판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선선히 가리랴'는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굳은 다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1) ○ (2) ○ (3) ×

❷ 이래서 정답

- (1) 화자는 '삼수갑산'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속타'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비애감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2)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에서 '삼수갑산'을 화자를 가둔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실망민이 되어 느끼는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삼수갑산'은 화자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화자와 '삼수갑산' 간의 심리적 거리가 좁다고 할 수 없으며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고도 볼 수 없다.

❸ 어휘

-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8미터를 넘는 나무. 수간(나무의 줄기)과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고, 수간은 1개이며 가지 밑부분까지의 수간 길이가 길다.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따위가 있다. ≒ 큰키나무.
- **장항하게**: 매우 길고 번거롭게.
-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 **비애감**: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
- **실망민**: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가 잠 노래

누가	잠을 참으며 바느질을 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아침에서부터 밤(황혼)까지 • 방 안
무엇을	쏟아지는 잠
어떻게	의인법, 반복법, 대조법, 해학적 표현
왜	잠을 쫓으며 노동(바느질)을 하는 삶의 고달픔을 노래함.

나 컷도리 저 컷도리~

누가	홀로 지내는 '나'
언제 어디서	• 가을밤 • 방 안
무엇을	귀뚜라미 소리
어떻게	의인법, 감정 이입, 반복법, 열거법
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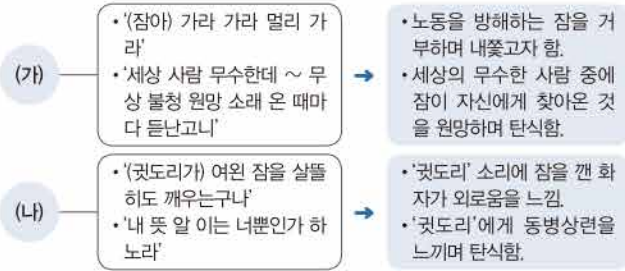
1 답 ④

❶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가)의 화자는 낮에 이어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다.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일을 하던 화자는 주야에 한가하여 잠 못 드는 이도 있는데, 하필 자신에게 잠이 찾아와 일을 방해한다며 잠을 원망한다는 점에서 탄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도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처지에 외로움을 느끼며 '컷도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으므로, 탄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누가** (가)에는 부재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가)의 화자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고달픔을 느낄 뿐,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반면 (나)의 화자는 새벽에 '컷도리' 소리에 잠을 깬 뒤 '무인 동방'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누가** (가)의 화자는 종일 일을 하고도 못다 한 일을 밤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의 화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화자 모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누가** (가)와 (나)의 화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탄과 외로움을 드러낼 뿐,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왜** (가)의 '등잔', '바늘'이나 (나)의 '사창'을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의 속성을 제시하거나 그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지 않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가)의 '아침', '석반', '황혼', '밤'과, (나)의 '지는 달 새는 밤' 등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로,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에서는 '잠아', '가라' 등이, (나)에서는 '꿇도리', '소리' 등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어떻게** (가)의 '원망 소리'는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의 '꿇도리' 소리는 가을밤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가)의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노'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고된 일상으로 인해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가)에서 외부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② **언제-어디서** 화자가 종일 일을 하고도 못다 한 일을 밤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오고, 밤중에 소리 없이 달려드는 상황은 과중한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화자에게 고달픔과 피로움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잠에게 멀리 가라고 하였음에도 난데없는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든다는 것으로 보아, 이 상황은 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화자가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와 같이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반복됨을 알 수 있다.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나)의 화자는 '꿇도리' 소리에 얹은 잠을 깬으로, '여윈 잠(㉞)'이 '꿇도리'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의 화자의 목적이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할 때, '잠(㉞)'은 오히려 목적을 방해하는 대상이 된다.
- ③ **무엇을** (가)의 화자에게 ㉞는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고, (나)의 화자에게 ㉞는 '꿇도리'에 의해 깬 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㉞와 ㉞ 모두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가)의 화자에게 ㉞는 노동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고통을 해소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무엇을** (가)의 화자가 ㉞에게 멀리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거부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새벽에 열린 잠을 자다 '꿇도리' 소리에 깬 것이므로, ㉞를 거부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㉞의 '원망 소리'는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건네는 불만이 아니라, 화자가 잠에게 드러내는 불만이다.

왜 오답

- ② **누가** ㉞에서 화자는 낮에 다 못 끝낸 일을 밤에 마저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이를 통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화자의 고달픈 삶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떻게** ㉞은 잠이 쏟아져 괴로운 화자의 상황을 잠이 이 눈 저 눈 왔다 갔다 하며 요상한 술수를 피운다고 의인화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㉞은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꿇도리'의 소리를 슬프게 느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누가** ㉞의 '너'는 '꿇도리'로, 무인 공방에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 '꿇도리'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어휘

- **독수공방**: ① 혼자서 지내는 것 ②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과중**: 한도를 넘음.
-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

가 여승

누가	여승이 된 한 여인의 삶을 전달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여승의 과거와 현재(일제 강점기) • 평안도의 어느 산속 금점판, 산 절
무엇을	한 여인의 비극적 삶
어떻게	역순행적(현재-과거) 시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왜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노래함.

나 못 위의 잠

누가	제비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제비집이 올라다보이는 곳, 버스 정류장과 골목
무엇을	아비 제비, 아버지
어떻게	역순행적(현재-과거-현재) 시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명사로 시상 종결
왜	아버지의 힘겨웠던 삶에 대한 연민을 노래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가)에서 화자인 '나'는 현재 여승을 만나고 그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1~8행에서 화자는 현재 동지 옆의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아비 제비를 보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 힘겹게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화자는, 9행 이후부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누가** (가)에는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느끼게 되므로,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기보다 고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도 제비나 아버지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연민의 정서가 나타날 뿐, 이를 여유롭게 포용하려는 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누가**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으므로 대화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누가** (가)의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는 여승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 (나)의 화자 역시 못 위에 앉은 제비를 보고 과거에 실업의 어

려움을 겪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연민의 태도를 드러낼 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한 여인이 남편과 딸을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반면 (나)의 화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에서는 사람인 여승이, (나)에서는 자연물인 제비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누가** (나)에서는 화자가 보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에서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누가** (가)에서는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담담한 어조를 드러내는 반면, (나)에서는 '-습니다', '-요'와 같은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어떻게** (가)에서는 '넋날같이 늙었다'에서 여승을,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에서 남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던 초라한 아버지를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제비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화자의 어조·태도

	화자의 행위	종결 어미	어조·태도
(가)	관찰자로서 여승이 된 여인의 삶을 전달함.	'-았(었)다'의 과거형 어미	담담한 어조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회상하며 그에 대한 연민을 드러냄.
(나)	못 위에서 간신히 자는 아비 제비를 보고 과거에 실업으로 힘겨워하던 아버지를 떠올림.	'-습니다', '-요'의 경어체 어미	친근한 어조로 아버지께 대한 연민과 이해를 드러냄.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언제 어디서** '골목(㉠)'은 가족들이 손잡고 나란히 걷기에 비좁은 곳으로 화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궁핍한 삶이 영위되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내(아버지)'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금점판(㉠)'은 여인이 옥수수를 팔며 돈을 버는 곳이자, 집을 나갔던 지아비를 기다리던 공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언제·어디서** '산 절(㉡)'은 딸이 죽은 후 여승이 되기로 결심한 여인이 찾아간 곳으로,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버스 정류장(㉢)'은 '사내(아버지)'가 세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내를 마중 나간 곳으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사내(아버지)'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집(㉣)'은 '못 하나 위'와 다르게 그럴듯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사내(아버지)'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 답 ①

— | 보기 | 오래 보기 —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 이 시의 시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떻게, 왜

❖ 이어서 정답

- ① **무엇을** 여인이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파는 행위는 농촌 공동체의 몰락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나'가 옥수수를 사는 행위는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왜 오답

- ② **무엇을** 지아비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살길이 막막해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족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의한 가난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은 여인의 기구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여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의 삶을 떠나 여승이 되기 위해 삭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어떻게** 1연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의 모습을, 2~4연에서는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비극적 삶을 살다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역순행적으로 재구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답 ②

❖ 이어서 정답

- ② **무엇을** '달빛(㉠)'은 세 아이들과 함께 아내를 마중 나간 사내가 제자리에 선 채 바라보는 대상으로, 이러한 사내의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아버지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실직한 가장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가족에게 불어오는 '흙바람(㉡)'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실업의 호주머니'에 있는 '호두알(㉢)'이 때 묻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실업 상태가 오래되었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못 하나 위(㉣)'는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짓지 못하여 '아비'가 홀로 견디며 살아오는 곳으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그림자(㉤)'에는 오랜 실업 상태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아버지가 좁은 골목에서 가족을 앞세우고 자신은 늘 한 걸음 늦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미안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생계**: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 **수탈**: 강제로 빼앗음
- **몰락**: ①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 ②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짐
- **기구한**: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기달이 많은

가 어부사시사

누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가어웅)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자연(강촌) 속
무엇을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삶
어떻게	여음구(후렴구), 계절의 변화와 '출항→귀항'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대구법, 설의법
왜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부(가어웅)의 흥취를 노래함.

나 초당춘수곡

누가	초당에서 낮잠을 자다 깬 '나'
언제 어디서	• 봄 • 초당과 산수(자연)
무엇을	화자의 처지, 자연 풍경
어떻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대구법, 영탄법, 시구 인용
왜	봄날의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가)는 '굽이굽이 새롭구나', '추강이 으뜸이라'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과 만족감이, '진 원을 막는도다'에서 속세의와 단절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나)는 '아아 내 일이야'에서 공명을 이루지 못한 채 늙고 가난해진 화자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별천지가 여기로다'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느낀 감탄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의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씹씩흔고'에서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그 기상을 예찬할 뿐, 서로를 속이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뽕꼭새가 농부를 재촉한다고 의인화함으로써 봄날의 풍경을 묘사할 뿐, 서로를 속이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 ③ **어떻게** (가)에서는 '부러워하랴', '생각하랴', '뉘라서 그러 내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농부에게 농사일을 권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④ **어떻게** (가)에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나)는 '풍대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라고 한 데에서 촉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돌 시내에 귀 밑을 씻어 낸 뒤에 오른 곳이라는 점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을 즐기는 흥겨움을 촉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동양적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없다.

2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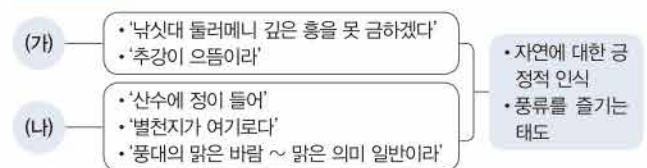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어웅'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고기를 잡으며 소일하는 노인으로, 자연에 묻혀 은거하는 화자 자신 혹은 화자에 공감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의 '농부'는 봄을 맞아 들일을 해야 하는 인물로,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의 '버들'은 봄의 정취를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뽕꼭새'는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정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계절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⑤ **누가, 무엇을** (가)의 '냇숫대 둘러메니 깊은 흥을 못 금하겠다'에는 낚시를 하러 가는 화자의 즐거운 마음이, (나)의 '백화주 두세 잔에~지팡이 짚고 들어가니'에는 백화주를 마시고 정취가 돌아 산수 구경을 나서면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흥'과 '정'은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로, '냇숫대'와 '백화주'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가)의 '추강이 으뜸이라'에서 '추강'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에서 '밝은 달'에 담긴 '맑은 의미'를 언급하며 달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밝은 달'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화자의 태도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나)에서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아아 내 일이야 ~ 모두가 허랑하다'에서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는 화자가 허무감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 ③ **어떻게** (나)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전반부에서 화자는 봄날에 낮잠을 자다 깬 후 모든 것을 허락하게 느끼며 임신공명도, 부귀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애상적 분위기는 화자가 백화주 두세 잔을 먹은 후에 산수 구경을 나서면서 달라진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지팡이를 짚고 산수로 들어가면서 자연을 즐기고 속세의 미련을 버리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위성 땅 아침 비'는 왕유의 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벗과 이별하던 장소에 아침 비가 내리는 풍경을 통해 봄비가 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어떻게** '산은 첩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구름 걷혀 안개 되니 ~ 별천지가 여기로다' 등에서 비슷한 어조의 시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 답 ④

— | 보기 | 오래 보기 —

...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화자는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③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㉔은 혼자 씩씩하게 서 있는 나무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㉔을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누가** ㉔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삼공')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누가** ㉔은 안개 낀 강과 겹겹이 둘러싸인 산봉우리 즉, 화자를 둘러싼 자연 경관이 누군가 그려 낸 것처럼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를 즐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언제-어디서** ㉔은 '세상의 바깥'이라는 뜻으로,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 즉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으로 볼 수 있다.
- ⑤ **누가** ㉔에서 '파랑성'은 속세의 시끄러움을 차단하는 물결 소리로, 이를 싫어하지 말라고 말하는 화자에게서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어휘

- 정취: ①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 ② 고요한 느낌이나 맛. 또는 고요 속의 흥취.
- 귀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03 시적 상황

확인 1 답 (1) 외적 상황 (2) 시간적, 공간적

③ 이래서 정답

- (1) 작품의 외적 상황은 작가의 생애와 가치관,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2)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서 시간적 배경인 계절을 알 수 있으며, 화자가 시적 대상을 보고 있는 장소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확인 2 답 나, 다

③ 이래서 정답

- 나,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움직이지 않던 물고기의 입이 오물거리며 꽃 피기 전에 눈이 내렸다는 내용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이 초봄임을 알 수 있다.
- 다, 추기가 완연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며, 벼를 비롯한 곡식들이 익은 상황이므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ㄱ, 화자는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 보고 흠으로 덮고 있다. 여기에서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언덕임이 드러나지만,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3 답 (1) × (2) ○ (3) ○

③ 이래서 정답

- (1) 화자는 산에 올라서 바다를 보며 객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므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 위가 공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ㄱ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 (2) 화자가 사랑이 사라져 '그 사람' 이름도 잊었지만 가슴속에는 그 '눈동자 입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는 심리적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3) 직업소개소에 실업자들이 모이고,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가 낱알이 늘어 간다는 것으로 보아, 산업화 이후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①

③ 이래서 정답

- ① 생계와 관련한 노동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보기>나 시구

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기 1>에서 작가는 갑자사화를 겪은 후 옥제산에 은거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생애를 참고할 때, ㉠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긍정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난 시구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보기 1>을 통해 작가가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려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하며 이를 벗어나서 즐겨 보자는 말은 세속적 삶의 가치를 멀리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보기 1>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분별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세상 사람’이 청탁을 구분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휘

- **완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고.
- **직업소개소**: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곳.
- **갑자사화**: 조선 연산군 10년(1504)에 폐비 윤 씨와 관련하여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연산군의 생모 윤 씨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은 일에 관계한 신하들과 윤 씨의 복위를 반대한 사람들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화를 입었다.

가 쉽게 씌어진 시

누가	자아 성찰을 하는 ‘나’
언제 어디서	• 밤(일제 강점기) • 일본의 어느 육첩방 안
무엇을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
어떻게	반복법, 대조법, 명사로 시상 종결
왜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아 성찰을 통한 극복 의지를 노래함.

나 동해 바다-후포에서

누가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동해 바다 앞 후포(항구)
무엇을	삶의 자세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점층법, 대구법, 대조법, 과장법
왜	자기반성과 성숙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는 ‘어둠’과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등불’, 광복된 조국을 의미하는 ‘아침’이 의미상 대조를 이루어 자아 성찰을 통해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려웠던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의미하는 ‘돌’과, 너그러운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동해 바다’가 의미상 대조를 이루어 남을 감쌀 줄 아는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가)와 (나) 모두 성찰을 통해 삶의 자세를 다질 뿐, 청유형 어미를 통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권하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가)의 ‘육첩방은 남의 나라’, ‘최후의 나’, ‘최초의 악수’ 등에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명사로 시행이 종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어떻게**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화자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유학생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적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성숙한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화자는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상적 자아에 도달한 반면, (나)의 화자는 동해 바다가 감싸고 끌어안으면서도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만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가)의 '어린 때 동무들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에서 부재하는 대상을 언급하며 상실감, 그리움 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누가** (가)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과 달리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해 스스로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뿐,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화자가 자신과 동해 바다의 삶의 자세를 대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⑤ **누가** (나)의 화자는 동해 바다를 보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할 뿐,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티끌'은 남의 잘못이 아주 작았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다. 화자는 티끌만 한 남의 잘못을 크게 인식해 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것이지, 티끌을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1연의 '날'은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진 날로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기는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돌'은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자신에게만 너그러워지다 보니, 생각이 좁아지고 굳어져 남을 감싸 안지 못하게 된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화자가 자신도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감싸며 끌어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동해 바다'를 본받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채찍질'은 동해 바다가 제 몸을 맴고 모진 매로 다

스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

누가, 언제, 어디서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라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누가** <보기>에서 이 시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모는 행위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보기>에서 이 시의 화자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시대처럼 올 아침'은 화자가 확신한 긍정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시구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보기>에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룬다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시적 상황

내적 상황	시간적 배경	'밤'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가 드러남.
	공간적 배경	'육첩방'	
외적 상황	작가의 생애	일본에서 유학을 함.	
	역사적 사건	일제에 의해 조국이 식민지가 됨.	

5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①은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화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동떨어진 채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은 1연의 1행과 2행의 순서를 바꾸어 반복한 것으로, 이러한 변주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떻게** ㉡은 남의 잘못을 점점 크게 느끼는 화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점층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④ **어떻게** ㉢에 쓰인 색채어 '질푸른'은 널따랗고 너그러운 바다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어떻게** 화자는 동해 바다가 '억센 파도'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본받아 자신에게도 엄격해지고자 다짐하고 있다. ㉣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매로 채찍질하는 행위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의 강도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어휘

- **부각**: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고결**: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함.
- **자괴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 **변주**: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소재·형태·방식 따위를 변형하여 표현함. 또는 그런 표현.

가 탐진어가 1

누가	어민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봄 • 바다
무엇을	어민의 뱀장어잡이
어떻게	가승전결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향토적 어휘를 조선식 한자어로 표현
왜	어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노래함.

나 논발 갈아 김 매고~

누가	김매기와 나무하기를 하며 일상을 보내는 농민
언제 어디서	• 아침부터 해 질 녘까지 • 농촌(논밭, 산속)
무엇을	농민의 일상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이음동언어, 열거법
왜	농민의 바쁜 일상과 그 속에서의 여유를 노래함.

다 율리유곡

누가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으로 돌아온 '나'
언제 어디서	• 살구꽃이 피고 지는 봄 • 밤마울(율리)
무엇을	자연에서의 삶
어떻게	반복법, 열거법,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함.

1 답 ③

❖ 이어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가)는 뱀장어가 많을 때인 '봄 바다'에 뱀장어잡이를 나가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나)는 '석양이 재넘어갈 때'에 나무를 다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제15곡>에서 계절이 봄임을 드러내는 시어 '살구꽃'을 사용하여 길에 쌓인 꽃 때문에 갈 길을 잃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가)와 (나)에는 어민과 농민의 일상이, (다)에는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어조의 변화 없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 ② **어떻게** (나)의 '긴 소리 짧은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농민의 낙천적이고 흥겨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다)의 <제2곡>에서 '잇었노라'를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부귀공명에 대한 욕심을 버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고'

가 반복되지만 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가)에는 뚜렷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농민이 논밭에서 김을 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자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도 <제15곡>에서 낚시를 한 후 주가를 찾으러 다리를 건너가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날 뿐, 시선의 이동이나 그로 인한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시적 상황

	(가)	(나)	(다)
시간적 배경	'봄'	(아침부터) '석양'	'살구꽃'
공간적 배경	'바다'	'논밭', '산속'	'밤마울', '강산'
심리적 상황	봄 바다에서 활기차게 고기잡이를 하는 상황	농촌의 일과(밭일과 산일)를 낙천적으로 보내는 상황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상황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보기>는 농민들이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이방'과 '황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존재로,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가)는 뱀장어잡이를 하는 어민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화자는 어민의 일상을 보여 주며 만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보기>의 화자는 농민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판적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가)와 <보기> 모두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③ **누가** (가)의 화자가 뱀장어잡이를 하는 어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현장감 있게 묘사한 것에서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삶을 화자가 지향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보기>의 화자는 농민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누가** (가)의 화자는 어민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새로 짜낸 고운 무명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농민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누가** (가)와 <보기>는 백성의 현실적인 삶을 보여 줄 뿐,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나 과거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강산(③)'은 화자가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화자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청홍'과 해방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 있는데, <제17곡>에서 '최 행수', '조 동갑'과 함께 이러한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내면 시름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므로, 삶의 애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④ **언제-어디서** (다)의 화자는 전원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뿐, 궁핍한 처지에 대해 좌절하거나 힘겨운 상황에 저항하고 있지 않다.
- ⑤ **언제-어디서** <제10곡>에 따르면 과거에 관직 생활을 했던 화자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괴롭게 지냈으나, 현재는 이를 청산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 그러한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언제-어디서, 무엇을**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가)의 '마파람'은 출항한 배가 돌아올 때를 알려 주는 자연 현상이고, '석양'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때를 알려 주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보기>에서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품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가)의 '봄 바다'로 '뱀장어'잡이를 나서는 모습은 어부의 일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무엇을** <보기>에서 서민의 일상을 담은 작품은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의 '콧노래'를 흥얼대고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⑤ **언제-어디서, 어떻게** <보기>에서 이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가)의 '바다'와 (나)의 '산속'은

서민들의 노동 현장인 자연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의 '푸른 물결 헤치며'와 (나)의 '베거나 자르거나'는 그들의 노동을 감각적 이미지와 이음동의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제10곡>에서 화자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돌아온 전원에서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매였다 놓인 '새'는 속세에서 벗어난 화자의 해방감을 비유한 표현일 뿐,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제1곡>에서 화자는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지내는 마을의 지명이, 과거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 살았던 마을인 '밤마을(율리)'과 같음을 언급하여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러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누가** <제8곡>에서는 '강산'을 세속적 가치인 '삼공'과 바꿀 수 없다며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고, 조각배에 올라 밤 낚시를 하며 느끼는 '청흥(맑은 흥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제15곡>에서는 벼들가지를 꺾어 낚은 고기를 떼어 들고 주가를 찾으러 가는 등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이 제시되고 있다.
- ⑤ **누가** <제17곡>에서 화자는 '최 행수'와 '조 동갑'을 부르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다.

+ 어휘

- **매고**: 논밭에 난 잡풀을 뽑고.
- **청산**: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림.
- **이음동의어**: 소리는 다르나 뜻이 같은 단어.
- **일면**: 물체나 사람의 한 면. 또는 일의 한 방면.

가 흰 바람벽이 있어

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오늘 저녁 • 좁다란 방 안
무엇을	흰 바람벽에 비치는 화자의 내면 의식
어떻게	의식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반복법, 열거법, 도치법, 현재형 시제
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통함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노래함.

나 탄궁가

누가	오랫동안 가난이 계속되어 온 '나(사대부)'
언제 어디서	• 봄 • 집 안팎
무엇을	가난한 생활
어떻게	화자의 인식 전환에 따른 사상 전개, 의인법, 반복법, 대구법, 설의법, 희화화, 사실적 묘사
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체념을 노래함.

1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가)는 '이 흰 바람벽에(엔)', '내 ~이/가 있다', '~며 이러한(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가 그러하듯이'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가 사색과 성찰을 하는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나)는 '~인들 ~며(을까)', '~에 ~언고'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와 (나) 모두 시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비슷하게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가)와 (나)에서 각각 '방'과 '집 안'이라는 공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공간이 대비되고 있지 않으며 분위기가 역동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 ③ **누가** (가)와 달리 (나)의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에서만 명령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어떻게** (가)의 '추운 날', '차디찬 물'은 추운 날 무와 배추를 씻는 어머니의 모습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가)의 화자는 하늘이 세상을 낼 때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

도록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자는 이처럼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화자는 ‘궁귀’와의 대화를 통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아왔음을 인식하고 가난한 삶에 체념하며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만드신 것이다’와 (나)의 ‘하늘이 만든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에서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가)의 화자가 자신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말한 것에서, 외로움도 운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나)의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고르게 타고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에서는 화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⑤ **누가**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프랑시즈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역시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여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그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운명적인 삶에 대한 위안을 얻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고사 ‘안표 누공’과 ‘원헌 간난’의 인물인 안희, 원헌과 자신의 가난을 비교하며 절망을 느끼고 있다.

3 답 ①

⑤ 이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가)의 ‘오늘 저녁(㉠)’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운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간으로, 내적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봄날(㉡)’은 화자가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지만, 궁핍한 형편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절감하는 시간이므로,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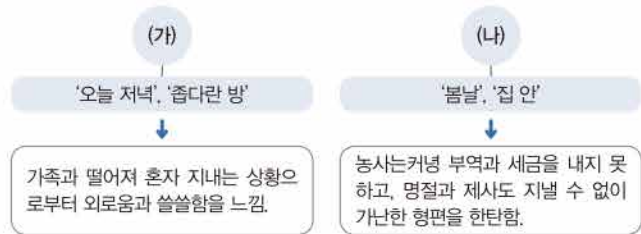
③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등을 느끼고 있을 뿐, 과거의 고통을 상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화자는 ㉡을 배경으로 현재의 궁핍한 현실을 확인하며 한탄하고 있을 뿐,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 ③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에서 지금까지의 자기 삶을 돌아

아보고 있을 뿐, 시간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화자는 ㉡에서 농사짓기를 시작해야 하는 계절이 왔음을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고자 할 뿐, 계절의 순환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④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차디찬 물에 무와 배추를 씻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을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종들의 눈치를 보고, 종들은 화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을 고향 사람들의 인정을 느끼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⑤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좁다란 방에 앉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을 가족에 대해 애뜻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가난 때문에 세시 절기 명절 제사 때 친척들과 손님들을 대접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을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공식 적용 시적 상황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탄궁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과 극심한 궁핍으로 인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언제-어디서, 누가

⑤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야 여의려뇨’는 원수와 같은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해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느냐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인 화자가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다. 화자의 가난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오는 자괴감이 엿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죽 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저 종을 주니’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밥 대신 죽을 쑀었는데, 그나마도 상

전인 화자는 물만 먹고 건터기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 중에게 준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농사일로 종의 눈치를 보며 상전으로서의 권위도 내세우지 못하는 화자(몰락한 사대부)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누가** '세시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에는 형편이 가난하여 제사에 올릴 음식은 물론, 집에 찾아올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접대할 음식도 마련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한탄을 엿볼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한 화자가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며 비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⑤ **누가** '빈천도 내 분이어나 설워 무엇하리'는 가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 표현으로,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어휘

-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 **궁핍**: 몹시 가난함.
- **절감**: 절실히 느낌.
- **세시**: 새해의 처음. = 설.
- **타개**: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열.

무엇을

04

시어·시구의 의미와 기능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ㄱ에서 '낙락장송'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를 드러내지만, '백설'은 온 세상을 덮어 버리는 것으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 (2) ㄴ에서 '햇발'과 '샘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하늘'이 아닌 '내 마음'으로, '밝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
- (3) ㄷ에서 '백발'은 '하얗게 센 머리털'이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 '늙음'이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므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확인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꽃(이) 피네'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 '산에는 √ 꽃 피네 √ 꽃이 피네'와 같이 3음보의 음보율이 느껴지도록 시구를 배열한 것에서도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 왜 오답

- ②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산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보기>는 가을, 봄, 여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에 꽃이 계속 피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에게 다가올 미래를 암시하거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이별(㉠)'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접 나타낸 시어이지, 접동사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공산(㉡)'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산'이라는 뜻으로 고독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임과 이별하여 홀로 있는 화자의 처지를 더 심화한다.
- ② '점동(㉢)'은 '공산'에서 울고 있는 새로, 이별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III

하
오
문

이래서 정답

- (1) ㉠의 '그립고 그리워도'에서 부재한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연'에 빗대어 시각화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마음이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운율의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 (3) ㉢의 '마음의 응어리'는 화자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돛자리'와 '돌'은 각각 '말아 두고', '굴러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음의 응어리'와 성격이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맺혀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것.
- **부재**: 그곳에 있지 아니함.

겨울 들판을 거닐며

누가	겨울 들판을 거닐는 화자(우리)
언제 어디서	• 겨울 • 들판
무엇을	겨울 들판의 풍경과 삶의 태도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반복법
왜	겨울 들판을 거닐면서 얻은 깨달음을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1~3행이 18~20행에서 반복·변주되는 것을 통해 '가까이~보이는(거라고)'과 같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적 의미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시에서 명사로 시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누가** 이 시에는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사용될 뿐, 청유형 어미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겨울 들판에 가까이 다가가 본 후에야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어떻게** '매운바람', '따사로움' 등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 ④ **무엇을** 이 시의 화자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깨달은 바를 고백적 어조로 노래할 뿐, 특정한 청자를 명시하여 전달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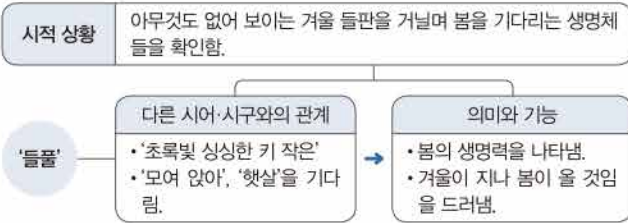
2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들풀(㉠)'은 '초록빛'과 조용하여 '싱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생명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이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햇살'과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무엇을** '저만치'는 '햇살'이 멀리에서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어로, '햇살'을 기다리는 ㉠의 자세를 보여 줄 뿐, 근원적 외로움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④ **무엇을** '고만고만 모여 앉아'는 고만한 정도로 여럿이다 비슷비슷한 들풀끼리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숭고한 희생이나 상실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3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되기도 한다. ...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화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 신발 아래에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를 ‘삶의 무게’만큼 힘겹게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희망의 이미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보기>에서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5~6행에서 ‘매운바람’도 맞을 만큼 맞으면 오히려 따사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은 화자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겨울을 소생의 가능성이 내재된 계절로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7~8행에서 ‘덜 녹은 눈발’이 땅 속으로 녹아들기를 꿈꾼다는 표현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⑤ **누가** <보기>에서 화자는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17행에서 ‘겨울 들판’과 ‘사람’을 연결한 것에서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8행과 21행에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자연 현상으로부터 화자가 깨달은 바를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휘

- 명사: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 조응: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 근원적: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되는.
- 숭고한: 뜻이 높고 고상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누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회상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 램프 불, 캔델라 불, 전등불 밑, 대처, 먼 세상
무엇을	‘나’의 성장 과정, 가족
어떻게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장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대조법, 의도적 행갈이
왜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및 모성적 세계로의 회귀 의식을 노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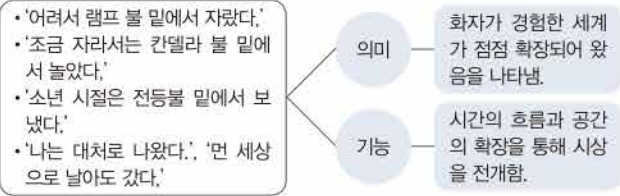
1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램프 불 밑’의 어린 화자에게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화자는 자라면서 ‘캔델라 불 밑’에서는 ‘협상국은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을 보고, ‘전등불 밑’에서는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며 점차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램프 불 밑에서 자랐다.’, ‘캔델라 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는,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불빛의 밝음을 강조할 뿐,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무엇을** 화자가 조금 자라서 캔델라 불 밑에서 본 대상은 ‘협상국은 금점꾼들’과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 ③ **무엇을** 대처로 나온 화자가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건물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화자의 이동 범위 확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뒤에 이어지는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 실루엣만 남았다.’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뿐, 인식의 성장이 가로막힌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⑤ **무엇을** 1연에서 어린 화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는 내용이 3연에서 다시 변주·반복되면서 화자에게 가족과 고향, 어린 시절의 기억이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이 시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왜

㉠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조금 자란 화자가 캔델라 불 밑에서 보았던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을 '돈움 새'긴 것으로, 화자의 어린 시절 기억과 관련된 것일 뿐,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는 관련이 없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대처', '먼 세상'은 화자가 성장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난 곳이다. 2연에서 화자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이곳을 건문을 넓힌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보기>에서 화자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했다고 하였다. '이곳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그러한 재미를 드러내는 시구로 볼 수 있다.
- ④, ⑤ **누가, 왜** 2연에서 화자는 멀리 다니고 보고 들을수록 시야가 좁아져 자신의 망막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를 통해 이해해 보면,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세상을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모성적) 세계로의 회귀 의식을, 망막에 남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휘

- **유랑**: 일정한 처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 **회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구심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단체·사상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 저곡전가팔곡

누가	속세를 떠나 농촌에 내려와 풍년을 기원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농촌
무엇을	농사일
어떻게	계절(전반부) 및 시간(후반부)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은유법, 설의법, 영탄법
왜	농사를 짓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노래함.

나 용추유영가

누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산 계곡, 송정
무엇을	용추 계곡의 풍경
어떻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상 전개, 직유법,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둔호법
왜	지리산 용추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함.

1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가)는 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의 농사일을 계절의 흐름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나) 역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산 계곡의 경치와 풍류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가)와 (나)의 공간은 모두 화자가 지내고 있는 현실적 공간으로, 이에 대해 화자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초월적 공간에 대한 동경이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어떻게** (가)의 화자는 땀 흘려 일하여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농촌의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계곡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만족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어떻게**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 공간을 이동하며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가)는 <제3곡>에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알려주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는 24~27행에서 화자보다 앞서 풍류를 즐겼던 선인들을 만나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내적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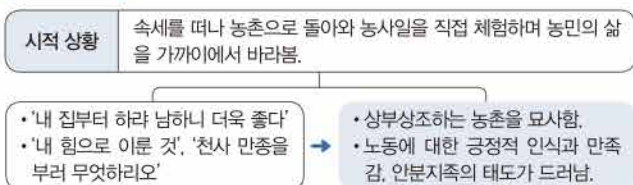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제1곡>의 '세상의 버린 몸'은 속세를 떠난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전원에 묻혀 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대부의 마음을 풍년을 기원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때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제2곡>은 봄을 맞아 앞집, 뒷집이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무엇을** <제3곡>의 '땀'은 불같이 달궂진 땅에서 밭고랑을 매는 농인이 흘리는 것으로 농사일의 고단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제4곡>에서 화자는 가을의 곡식이 보기에도 좋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어서 맛도 좋으며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무엇을** <제5곡>은 곡식을 수확한 후 농사를 쉬며 내년 봄을 준비하는 때를 배경으로 한다. 내년 봄에 쓸 '농기'를 미리 수리하며 '결의 종사'를 다짐하는 모습에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농촌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시구의 의미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화자는 ㉑의 '사립문 닫아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문을 닫도록 지시함으로써, 계곡의 경치와 그곳에서의 삶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㉑에서 화자는 시골에서 늙어 가면서 세상의 일을 잊었음을 밝히고, 의문형 어미 '-고'를 사용하여 자신이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묻고 있다. 이때 과거의 삶을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㉒의 '무엇하리오'는 천사 만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설의적 표현으로, 가을에 스스로 수확한 곡식을 먹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강조한다. 이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어떻게** ㉓에서 '향기'가 지팡이에 묻었다고 표현한 것에서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므로 시각적 심상이 아닌,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골짜기 안의 그윽한 꽃향기를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 성현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어떻게** ㉔에서 단풍 숲이 비치는 맑고 잔잔한 강을 '푸른 유리'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보기>에 따르면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반 계층에게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이자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대상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자연 속에서 '단사표음'을 자신의 분이라고 생각하고 세월을 한가하게 느끼는 모습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안빈낙도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화자가 삶의 단조로움을 느낀다고는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14행의 '이 작은 즐거움'은 잔에 국화를 띄워 즐기는 소박한 즐거움으로, 화자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자연이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보기>를 고려할 때, 화자의 이러한 자부심은 속세 사람들은 모르는 즐거움을 자신은 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자연은 보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20행에서 화자는 '끝없는 설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를 제재로 삼아 '시'로 표출하고자 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자연을 정신적 풍요로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누가** 29~30행에서 화자는 자연을 '벗으로 삼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논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한 화자에게 자연이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누가** <보기>를 고려할 때 31~32행에서 화자가 '공명을 생각하지 않고 '빈천을 설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치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지내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휘

- **향반**: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여러 대 동안 벼슬을 못하던 양반.
- **기인**: 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 ②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시적 대상과의 거리는 화자가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말한다.
- (2) 시적 대상과의 거리는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화자의 태도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 (3)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공감, 친근감 등을 느끼면 시적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확인 2 답 ㄷ, ㄹ

이래서 정답

- ㄷ. 제목 '고향 앞에서'를 고려할 때 화자가 고향 앞에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장꾼들에게 전나무 우거진 자신의 고향 마을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의 시적 대상이 고향임을 알 수 있다.
- ㄹ. 제목이 '고향'이라는 점과, 고향에 돌아왔으나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닌 것 같으며 방황하는 화자의 상황으로 보아 이 시의 시적 대상이 고향임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ㄱ. 제목 속의 '농가'와, 농사일과 관련된 행위를 권하는 내용으로 보아, 시적 대상이 농가에서 해야 하는 농사일임을 알 수 있다.
- ㄴ. 제목이 '청명'이라는 점과, 화자가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자연과 교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시적 대상이 자연의 정취('청명') 혹은 풍경임을 알 수 있다.

확인 3 답 (1) 대상 (2) 먼

이래서 정답

- (1) 화자인 '나'가 펄펄 나는 피꼬리들을 보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피꼬리'는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 (2) 화자는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 피꼬리는 암수 서로 정답게 날고 있어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한다. 화자가 '피꼬리'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리감이 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확인 4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먼 뒀'는 말도 없고 웃음도 짓지 않지만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자에게 '그리던 뉘'의 소식을 전해 주고 있지는 않다.

- (2) 종장과 종장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먼 뒀'을 '그리던 뉘'이 오는 것보다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있으므로, 화자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등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비치고 있는 반면, '사나이'는 화자가 미움과 연민의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므로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아를 상징하는 '사나이'를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물 속' 풍경이 화자가 성찰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 오답

- ①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라는 의미의 '자화상'을 제목으로 삼고,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하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는 상황으로 보아, 화자 자신이 시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③ 3~5연에서 화자가 우물에 비친 '사나이'에 대해 미움과 가엾음, 미움과 그리움 등의 이중적인 감정을 반복하여 느끼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시적 대상인 화자의 내면세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 **농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 또는 그런 가정
- **토로**: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함.
- **초라한**: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누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생각하는 '나'
언제 어디서	복숭아꽃이 피고 지는 봄, 저녁
무엇을	복숭아나무
어떻게	의인법,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반복법, 도치법
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노래함.

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누가	사람들에 의해 잔디가 죽는 것을 염려하는 '나'
언제 어디서	• 오늘 새벽 • 천변 잔디밭
무엇을	잔디의 죽음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역설법, 설의법
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순환적 질서에 대해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가)는 '흰 꽃', '분홍 꽃'을 통해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나)는 '푸른 잔디'를 통해 싱싱한 풀꽃이 있는 잔디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나)는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밝혀 죽은 줄 알았던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누가** (가)의 화자는 '-습니다', '-니다'와 같이 상대를 공경하는 말을 활용하여 내적 정서를 고백하고 있지만, (나)에는 그러한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가)에서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나)에서는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잔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빗깔'이 있음을 발견하고, 복숭아나무가 수많은 '꽃빛'을 피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라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

인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관찰하여 갖게 된 선입견을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② **누가** (나)의 '죽은 잔디 싹들이 ~ 청량하랴'는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들 안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므로, 자연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누가** 복숭아나무의 본모습을 발견한 (가)의 화자가 '복숭아나무 그늘'에 앉아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 모습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누가** (나)의 화자는 죽은 줄 알았던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길을 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뒤,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는 것도 알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잔디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깨달았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답 ⑤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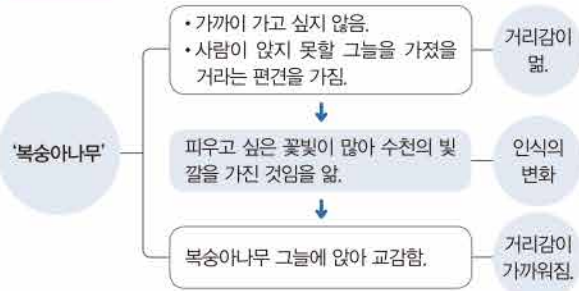
- ⑤ **무엇을** (가)의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가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멀리로만(㉠)' 지나쳤다고 하였으므로,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걱정과 달리 잔디 싹들이 밝혀 죽지 않고 사람들 몸속에 살아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은 잔디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② **무엇을** ㉠에는 복숭아나무를 멀리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대상을 동경하는 마음이나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화자는 밝혀 죽은 것을 걱정했던 잔디 싹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에서 연민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친밀감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에서는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인식한 화자가 대상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 화자는 사람들 몸속에 살아 있는 잔디 싹을 발견할 뿐, ㉡에서 대상과 화자의 일체감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무엇을** ㉠에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이 드러날 뿐, 상

실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에는 잔디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드러날 뿐, 실망감이 담겨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시적 대상과 거리



4 답 ⑤

이래서 정답

⑤ **언제-어디서** (가)의 '그늘(㉠)'에 대해 화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깨달은 후에는 이 그늘에 앉아서 나무와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보아 ㉡는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친밀감을 강화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보기>의 '그늘(㉠)'은 과거의 글쓴이가 자주 찾았던 밤나무 그늘로, 눈을 감아도 그 품속이 생각난다는 것으로 보아, 밤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와 교감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라 할 수 없다. ㉠은 글쓴이가 피로할 때 찾던 그리운 장소이므로, 글쓴이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
- ② **언제-어디서** ㉡는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된 공간이므로,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은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밤나무가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장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언제-어디서** ㉡에서 화자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복숭아나무와 교감하고 있다. ㉠은 글쓴이가 밤나무에 대해 글을 썼던 장소는 아니다.
- ④ **언제-어디서** ㉡는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 할 수 없다. ㉠은 밤나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긴 글쓴이의 고민이 해소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 **피상적**: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 **이질감**: 성질이 서로 달라 낯설거나 잘 맞지 않는 느낌.

가 성산별곡

누가	성산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화자(나)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자연(담양의 성산, 식영정)
무엇을	성산의 경치와 풍류
어떻게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영탄법, 고사 인용, 식영정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형식
왜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식영정 주인의 풍류를 예찬함.

나 병산욕곡

누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저녁 무렵 • 어촌
무엇을	자연에 은거하는 삶
어떻게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영탄법, 돈호법
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⑤ **언제-어디서** (가)의 '석양', '팔월 보름달', '삭풍', '눈' 등과 (나)의 '서산에 해 저 간다' 등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에서는 '청강', '녹초변' 등의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인상을 강화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백구'에서 색채어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어떻게**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③ **어떻게**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제6곡>에서 화자가 '십 리 장사'를 내려가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기는 하나,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④ **누가, 무엇을**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을 '경요굴은 세계'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고 있는 늙은 중에게 이러한 '부귀'를 남에게 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는 남들이 알면 이곳을 찾을 사람이 생길까 걱정되어 한 말이므로,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으며, 늙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한
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누가, 무엇을** [A]에서 화자는 강가에서 소를 먹이는 '아이들'이 흥겹게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물 아래 잠겨 있던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것 같고, '학'은 자기 집을 버리고 반공에 솟아오를 듯하다며 강변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누가, 무엇을** [B]에서 화자는 소년(소동파)이 「적벽부」에서 좋다고 한 가을의 칠월과 모두가 칭찬하는 팔월의 보름달을 비교하며 풍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달의 아름다움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선(이태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달이 소나무 위에 걸린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누가, 무엇을** [C]에서 화자는 눈이 내려 쌓인 겨울 산의 풍경을 보며 마치 초물주인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며 낸 것 같다며 예찬하고 있다.
- ⑤ **누가, 무엇을** [E]에서 화자는 한기를 읽으며 책 속의 '성현'과 '호걸'에 대해 생각하고 '시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것이 애달프다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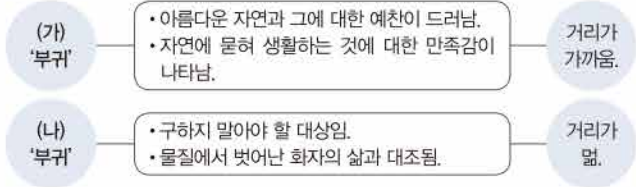
①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린 아름다운 산 풍경을 '부귀(㉠)'라고 함으로써 자연에 묻혀 사는 것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의 '부귀(㉡)'는 버려야 할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므로, ㉠과 달리 ㉡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무엇을** ㉠은 현재 화자가 지내는 곳의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과거의 극복과 관련이 없다.
- ③ **무엇을** (가)의 화자는 자연의 흥취를 즐길 뿐, 갈등을 겪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세속과 떨어져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화자에게도 속세의 가치인 ㉡은 관심 밖의 것이므로,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가)의 화자에게 ㉠은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와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므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백구와 함께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 대해 화자는 달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과 ㉡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시적 대상과 거리



4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언제 어디서

①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나)의 〈제1곡〉은 '부귀'나 '빈천', 즉 물질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겠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경시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화자는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그의 기개 있는 품행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가)에서 화자는 세상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며 '마음에 맺힌 시름'을 적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나)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백구'에게 날지 말고 자신과 함께 속세의 일을 잊자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자연물을 물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나)의 화자는 물 위에 고깃배가 떠 있고, 마을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두서너 개가 피어오르는 '어촌'을 이 상향의 세계인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상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 어휘

- **조물주**: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 **달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르는 것.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
- **기개**: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가 도산십이곡

누가	자연에 은거하며 학문을 추구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자연 속
무엇을	자연, 학문 수양
어떻게	종결 어미 및 유사한 어휘의 반복, 점층법, 대구법, 설의법
왜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과 자기 수양의 의지를 노래함.

나 지수정가

누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자연, 작은 정자(지수정)
무엇을	지수정과 주변 풍경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은유법, 직유법, 활유법, 대구법, 영탄법, 고사 인용
왜	지수정을 짓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주변 풍경에 대한 예찬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가)에서는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수정을 짓는 과정을 밝히면서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가)와 (나)의 화자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며, 좌절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③ **누가** (가)와 (나) 모두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의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④ **언제-어디서** (가)의 <제6수>에서는 계절감을 활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화자가 '작은 연못'과 '작은 정자'를 만든 과정을 밝히며 환경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계절감이 아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언제-어디서**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지도 않다.

2 답 ⑤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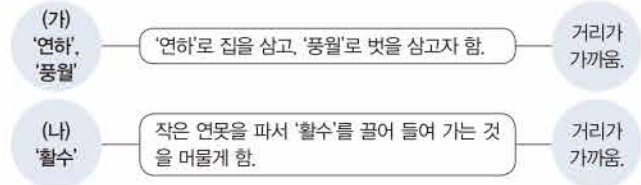
- ⑤ **누가**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화자가 자연을 벗 삼아 늘어 가는 과정에서 장차 바라는 바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의 '티 없어'는 산의 모습을 비춘 '작은 연못'을 '맑은 거울'에 비유한 뒤 그 잔잔한 연못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티 없어'를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A]의 <제1수> 초장에서는 '이런들'과 '저런들', '어떠하며'와 '어떠하랴' 등과 같이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누가** [A]의 <제1수> 중장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뜻하는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겠느냐고 질문하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연하'로 집을 짓고 '풍월'을 벗을 삼는 <제2수>의 초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③ **무엇을**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을 '맑은 거울'에 비유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무엇을** [A]에서 화자가 '집을 삼고', '벗을 삼으려는' 대상은 '연하'와 '풍월'로, 자연과 화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B]에서 화자는 '활수'를 끌어 들어 흐르는 물을 멈추고 머물게 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끌어 들어'와 '머물게 하니'는 '활수'를 가까이하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시적 대상과 거리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작은 정자(㉠)'는 화자로 하여금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과 같은 옛 현인이 은거한 곳을 떠올리게 하며, '필핑 위언의 그림', '무릉도원'과 같이 이상적인 대상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은 화자가 풍수설(풍수지리)로 찾은 땅에 세운 정자이므로,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로 볼 수 없다.
- ② **무엇을** ㉠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생활할 공간으로 세운 것이므로, 일상적 유용성을 상실한 곳으로 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이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볼 만한 근거를 (나)에서 찾을 수 없다.
- ⑤ **무엇을** 화자는 ㉠을 세운 과정과 그 주변의 풍경을 예찬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을 계기로 화자가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4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

연제-여디서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화자가 <제1수>에서 '천석고향'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엿볼 수 있다. 이 만족감은 현재의 공간을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천석고향'이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지은 정자를 '무릉도원'이라고 하며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상적 세계를 발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보기>에 의하면 (가)의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그런데 '초야 우생'은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자연에 존재하며 이를 지향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황무지의 진면목, 즉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누가** (가)의 <제6수>에서는 '사시 가흥'이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며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에서는 '백석', '벽류', '첩첩한 산들', '뽕뽕한 소나무' 등 지수정 주변의 풍경에서 아름다움(자연의 가치)을 확인한 화자의 감탄이 '가지가지 다 좋구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무엇을** (가)의 <제6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에서는 꽃이 만발한 봄과 달빛이 가득한 가을밤의 모습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에서는 맑고 푸른 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어휘

-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관용: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어떻게 06 운율

확인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은 비유법으로, 이는 운율의 형성과 관계가 없다.

왜 오답

- ①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은 의성어.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은 의태어로 이러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 ③ 구나 행의 끝에 같은 운의 글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각운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오백 년(3자) ∨ 도움지름(4자) ∨ 필마로(3자) ∨ 도라드니(4자)'와 같이 한 음보당 글자가 3자, 4자로 반복되는 3·4조의 음수율이 나타나므로 '음수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2) 연과 연을 구분하는 자리에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와 같은 시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후렴구의 사용(㉡)'을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1) 방울방울 (2) 내 마음을 아실 이 (3) 하오련만

이래서 정답

- (1) '방울방울'은 '액체 따위가 둥글게 맺히거나 떨어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음성 상징어(의태어)로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2) 1연과 3연에서 '내 마음을 아실 이'가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와 같이 변주되어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 (3) '날같이(나같이)'는 울림소리 'ㄹ'을 첨가한 시어이고, '하오련만(하련만)', '어리우는(어리는)', '희미론(희미한)'은 울림소리 '오'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시어로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확인 4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보기 1>에서 우리는 반복에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리듬감

을 느낀다고 하였다. ㉔는 모든 음보에 글자가 3자가 아닌 4자씩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 (2) '혈성루(㉒)'는 초장이 한 음보에 4자씩 배열되어 온 것과 다르게 3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리듬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여 허전한 느낌을 자아낸다.
- (3) <보기 1>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던 전봇대가 **촛촛**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서부진 화부득은(㉑)'은 한 음보에 7글자가 배열되어 있어서 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4) '금강인가(㉓)'에서는 바로 앞 음보와 달리 다시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여 한 음보에 4글자가 배열되고 있다. <보기 1>에서는 **촛촛**히 나 있던 전봇대가 다시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㉓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어휘

- **형성**: 어떤 형상을 이룸.
- **첨가**: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탠.
- **자아낸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 웃음, 눈물 따위가 저절로 생기거나 나오도록 일으켜 낸다.
- **촛촛히**: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 **충족**: ①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음. ②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가 달을 보며

누가	밤중에 자다 깨서 달을 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달밤 • 들
무엇을	부재중인 당신, 달
어떻게	종결 어미 및 유사한 시구의 반복, 대구법, 대조법
왜	당신에 대한 그리움, 당신과 합일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함.

나 이사, 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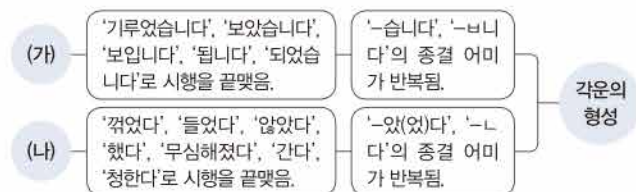
누가	악양으로 이사를 간 '나'
언제 어디서	• 이사를 간 날, 어느 겨울 날 • 악양(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무엇을	부재하는 대상
어떻게	종결 어미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연쇄법, 행간 걸침, 고사 인용
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への 소망을 노래함.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가)의 '기루었습니다', '보입니다' 등에서 종결 어미('습니다', '입니다')의 반복으로 인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 ❖ **왜 오답**
- ② **어떻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지도 않다.
- ③ **어떻게** (가)는 달을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가)의 '나의 얼굴은 그믐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에서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느라 자신이 그믐달처럼 야위었음을 전달하며 당신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어떻게** (가)에는 연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14행의 '희끗거리고'가 다음 행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에서 연쇄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가 바뀔수록 주위의 변화에 무심해지는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드러낼 뿐, 역동적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문제 공식 적용 운율



2 답 ④

◎ 이어서 정답

- ④ **어떻게** [A]는 마지막 행에서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고조하고 있다. [B]는 ‘부럽기도 했다’, ‘무심해졌다’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솔직한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자다 깨어 뜰에 나와 달을 보고 있으므로, [A]의 공간을 가상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B]의 공간은 화자가 이사를 간 악양으로 현실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어떻게** [A]의 ‘그믐달’은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야원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소멸의 이미지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B]의 화자 역시 ‘뺨을 발라 살점 없어 줄 사람’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생선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 ③ **어떻게** [A]에서 화자는 익숙한 사물인 ‘달’을 매개로 하여 그리워하는 대상인 ‘당신’과 재회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당신’을 낯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B]에서는 생선을 굽는 일상적인 일을 ‘비린내를 구웠’다고 낯설게 표현하여 새로운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누가, 언제·어디서** [A]의 ‘간 해’는 지나간 과거를, ‘오늘 밤’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상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B]에서 늘 비어 있던 자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밥상머리 맞은 편에 앉아 생선 살을 발라 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 답 ④

◎ 이어서 정답

- ④ **무엇을** ‘이따금’은 개 소리에 의해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때를 나타내고, ‘아직도’는 이사 온 악양이 화자에게 낯선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따금’과 ‘아직도’가 대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암시된다고도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의 화자는 당신이 ‘하도(몹시)’ 그리워서 뜰에 나와 달을 ‘한참’ 보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하도’와 ‘한참’이 연결되면서 기다림의 크기와 기다리는 행위의 지속 시간이 조용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던 (가)의 화자는 달이 ‘차차

차’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달에서 당신의 얼굴이 ‘역력히(또렷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차차차’와 ‘역력히’가 연결되면서 외부 사물인 ‘달’에 투영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나)에서는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을 굽는 상황과 밥상머리 맞은편이 ‘늘’ 비어 있는 상황이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대상(뺨을 발라 살점 없어 줄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나)에서 화자는 해가 바뀔수록 머리는 ‘더욱’ 희끗거리고, 마음은 ‘점점’ 무심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더욱’과 ‘점점’이 연결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감정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부재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과 재회하기를 소망하며, 자연물을 매개로 대상과의 합일을 바란다. (나)의 화자는 ... 자연물 간의 합일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누가**

◎ 이어서 정답

- ③ **누가, 어떻게** (가)의 화자는 ‘간 해(지난해)’에는 당신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였으나, ‘오늘 밤’에는 당신이 곁에 없기에 달을 보며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간 해’의 경험이 ‘오늘 밤’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화자의 얼굴도 달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당신과의 합일(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아랫마을 밤 개’가 짚는 소리는 화자로 하여금 대상의 부재를 환기하고,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다 가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므로, 서로 대비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우들처럼 머리를 고향 쪽인 ‘북쪽 그리운 창’에 두고 ‘길고 먼 꿈길’을 청한다는 것으로 보아, 재회에 대한 확신이 아닌 소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보기>에서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부재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화자는 뜰에 앉아 달을 보며, (나)의 화자는 밥상에 놓인 생선 한 토막을 보며 대상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가)의 화자는 달이 점차 당신의 얼굴이 된다고 하면서 시적 대상을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 ‘밥

상머리 맞은편'에 앉아서 생선의 가시를 발라 살점을 얹어 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누가**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자연물을 매개로 대상과의 합일을 바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연물인 '달'을 매개로 대상과 합일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누가**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자연물 간의 합일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가 밤마다 '별들'과 '불빛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부럽기도 했다'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휘

- **아쉬웠음**: 몸의 살이 빠져 조금 파리하게 되었음.
-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 **매개**: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 **투영**: ①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들.

가 훈민가

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향촌
무엇을	유교 윤리와 향촌 질서
어떻게	청유형 어미의 반복, 대구법, 설의법, 돈호법
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유하고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래함.

나 복선화음록

누가	딸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나(어미)'
언제 어디서	딸이 시집을 가기 전
무엇을	'나'와 괴퐁어미의 삶의 자세와 태도
어떻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열거법, 대구법, 설의법
왜	시집가는 딸에게 부녀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노래함.

1 답 ④

◎ 이레서 정답

- ④ **어떻게** (가)에서는 〈제9수〉의 초·중장에서 '~거든 ~리라'와 같은 통사 구조가, (나)에서는 '~에 감히 치며(내며)'나 '~흐잔 말가', '~이 ~되고' 등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가)에서는 '흐자스라', '가자스라', '보자스라' 등과 같이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에게 옳은 행동과 농사일을 성실하게 하기를 설득하고 있을 뿐,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조심하라', '경계하라' 등에서 명령형 어미의 활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어떻게** (가)와 (나)에서 주변 풍경을 먼저 묘사한 후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 ③ **어떻게** (가)와 (나)에서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언제·어디서** (가)와 (나)에는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지도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운율

(가)	'폴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데 겨시거든 막대 들고 초초리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인해 운율이 형성됨.
(나)	'~ 어른 압헤 감히 치며 / ~ 문 밧게 감히 내며' '~ 편지마다 흐잔 말가 / ~ 뉘 탓슬 흐잔 말가' '~ 오리 오리 조아내니 / ~ 필필이 조아내어' '~ 관복감이며 ~ 군복감이며' '문전옥답 큰 농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안팎 기와 수백 간의 불이 불타 밧치 되고' 등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㉔은 설매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쌀을 꾸러 갔다가 저절당하고 집에 돌아와 화자에게 울면서 전한 말이다.

❖왜 오답

- ① **누가** 화자는 ㉑의 뒤에서 친정에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염치없이 편지에 그러한 사정을 또 적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㉑에 가난 속에서 천전궁궁하고 있는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친정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㉒은 가난함이 자신의 팔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가난의 원인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누가** 화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㉔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별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⑤ **누가** ㉔에는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대로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가)의 '조초리라(㉑)'는 어른이 나갈 데가 있으면 지팡이를 들고 따라 모시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나타낸 것이므로, 타인(어른)을 위한 주체(화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빌고(㉒)'는 그릇된 행동으로 양화를 입어 가족과 노복, 재산을 모두 잃고 움집에서 밥을 빌어먹으며 살게 된 괴동어미가 자신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므로, 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㉔은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 화자가 하는 행위이므로 절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㉒는 패가망신한 괴동어미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밥을 빌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밥을 얻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 ③ **무엇을** ㉔은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 윤리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단절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㉒는 남에게 밥을 빌기 위해 하는 행동이므로, 화합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㉔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자연에 순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㉒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하는 행위일 뿐, 자연으로 도피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가)의 <제9수>에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

으며, ㉔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㉒는 배고픔과 추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동어미가 하는 것일 뿐,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나)에서 이질 않던 시아버지를 돕지 않는 등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아닌 '괴동어미'이다. (나)는 화자와 대비되는 행실을 보인 괴동어미를 통해 '상부상조'가 아닌, '부녀자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의 <제8수>에서 화자는 사람의 도리를 지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갓과 고깔을 쓰고 밥을 먹는 마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기>를 통해 이해해 보면, 마소는 가르침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 대상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여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가르침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한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의 '마'를 사름들'과 (나)의 '딸'은 각각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시집살이를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청자라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가)의 <제9수>에서 화자는 어른이 팔목을 쥐시면 자신의 두 손으로 어른의 손을 받치겠다는 말을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3행에서 시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깨진 그릇(가난한 형편)'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부녀자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무엇을** (가)의 <제13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눈을 다 매면 '네 눈'도 매어 주겠다고 상부상조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20행에서 생각을 바꾸어 손발이 건강하니 힘써 일하여 돈을 벌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가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전전궁궁**: 몹시 두려워서 발발 떨며 조심함.
- **양화**: ①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② 지은 죄의 양값음으로 받는 재앙.
- **노복**: 종살이를 하는 남자.
- **패가망신**: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기여**: 도움이 되도록 아바지함.
- **도피**: ① 도망하여 몸을 피함. ②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에서 몸을 시려 빠져나감.

가 한거십팔곡

누가	자연에 묻혀 은거하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속세와 자연
무엇을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선택
어떻게	대유법, 설의법, 대구법
왜	안빈낙도의 깨달음과 소망을 노래함.

나 추억에서

누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우리')
언제 어디서	• 저녁 무렵 • 진주 장터 생어물전, 골방
무엇을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
어떻게	울림소리의 반복, 시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비유법, 설의법
왜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며 어머니의 한과 슬픔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가)는 '금수 1 나 다르리야', '구태 구하랴' 등에서, (나)는 '한이던가', '떨턴가', '어떠했을꼬'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한스러운 삶을 산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가)와 (나) 모두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언제-어디서** (가)의 '강호'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진주 장터 생어물전'이나 '진주 남강'은 탈속성과 관련이 없다.
- ④ **언제-어디서**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시적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가)와 (나) 모두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언제-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울 엄마야 울 엄마'에서는 울림소리(모음 'ㄴ, ㄷ, ㄹ'와 유성 자음 'ㄹ, ㅁ')로 이루어진 시어가 반복되면서 리듬이 창출되고, 어머니의 힘겨운 삶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이 표출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보기>에서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연시조인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가 '마음에', '세월이', '호은자' 등과 같이 3음절로 되어 있는 것은 내적 규범이 아닌 외적 규율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어떻게** <보기>에서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고 하였다. (가)의 각 수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인 반면, 둘째 음보는 '호고저 하야', '물 흐르듯 흐니' 등과 같이 그 앞의 음보보다 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가 규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 ④ **어떻게** <보기>에 따르면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의 반복으로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에서 'ㅇ'을 반복하여 쓴 '오명 가명'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터의 무리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고 볼 수 없다.
- ⑤ **어떻게** <보기>에 따르면 쉼표 등은 고전 시가에 없던 요소로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1~3연에서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현대시의 내적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로 볼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운율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음보율: 생평에 √ 원하느니 √ 다만 √ 충효뿐 이로다 • 음수율: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함. 	외적 규율에 따른 운율 형성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 엄마야 울 엄마'에서 울림소리를 반복함. • '오명 가명'에서 'ㅇ'을 반복함. • 1~3연에서 쉼표로 연을 마무리함. 	내적 규범에 따른 운율 형성

3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朝廷)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

언제-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제16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병들고 늙은 자신에게 누가 벼슬에 나오기를 권유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조정의 권유에 화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회보 미방'은 조정에서 화자를 권유하기 위해 한 말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보기>에서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으며,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다.
- ② **누가** 권호문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제1수>에서 화자가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한 것은 과거에서 여러 차례 낙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③ **누가** <보기>에서 권호문은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6수>의 '행장 유도흔니'는 이러한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화자가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는 화자가 스스로를 가리킨 말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병들고 늙었음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거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4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손 시리게 떨던가'는 '골방'에 앉아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오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행복감과는 거리가 멀다.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해 다 진 어스름'은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임을 보여 주는 시구로, 파장 무렵에 생어물전의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 ② **무엇을** '빛 발하는 눈썹'은 둥글고 빛난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이미지를 지니는 '은전'과 연결된다. 그런데 '은전'이 손에 닿지 않는 것으로 묘사됨으로써 가난으로 인한 '한'의 정서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언제 어디서** 4연을 통해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늘 '신새벽'에 집을 나가 밤에 귀가했기 때문에 낮에 진주 남강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웅기의 표면과 연결되어 어머니의 눈물을 환기하고 있다.

❖ 어휘

- **은택**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천가**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어떻게

07

시상 전개 방식

확인 1 답 (1) 선경후정 (2) 기승전결

❖ 이래서 정답

- (1) 앞부분에서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내면의 정서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선경후정이라 한다.
- (2) 기승전결은 '시상의 제시(기)→시상의 계승과 심화(승)→시상의 전환(전)→정서 및 주제의 제시(결)'와 같은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확인 2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초장과 중장에서 달이 환하게 비치는 봄밤에 두견새 소리가 들려오는 풍경을 먼저 묘사한 후,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애상적 정한을 뒤에서 표출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금강산 일대인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간 후 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풍경(십이 폭포)에 대해 은하수를 잘라 절어 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 (3) 이 시에서는 '까마득한 날(과거)'→'지금(현재)'→'천고의 뒤(미래)'와 같이 시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1연과 마지막 연에서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이 시에는 '당신'이 나룻배인 '나'를 짓밟고 물을 건너간 상황만 제시될 뿐, '당신'이 공간을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 ② 화자인 '나'가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기는 하나, '당신'이 청자로서 작품에 등장하거나 '당신'의 말이 인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와 '당신'이 나눈 말을 직접 인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없다.

◎ 아래서 정답

- (1) '쌓인 눈'을 헤치는 동풍과 두세 가지 편 '매화'에서 계절적 배경이 초봄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꽃이 지고 새 잎이 나서 '녹음'이 깔리는 여름이 왔으므로, 초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 (2) '그윽한 향기'는 매화 향기를 일컫는 것으로, '임(임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충절)이 '그윽한 향기'를 기준으로 원망으로 바뀌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윽한 향기'를 전후로 시상이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 (3) 쌓인 눈을 헤치는 '동풍'을 계기로 화자가 매화와 '그윽한 향기'를 발견하므로, '동풍'이 시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황혼의 달'을 보고 그리움을 느끼며 '임(임금)'에게 매화를 꺾어 보내고 싶어 하는 등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와 시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황혼의 달'에서 주제가 집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승전결의 방식이 활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 여취

- **경관:**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 **마하연:**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장연리 금강산에 있는 절. 유점사의 말사(본사의 권리를 받는 작은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로, 신라 문무왕 1년(661)에 의상이 창건하였다.
- **모갈상:**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 사보살의 하나이다. 제불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과 함께 심존불을 이룬다. 그 모양이 가지 각색이나 보통 사자를 타고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 **집약:** 한데 모아서 요약함.

만나는 법

누가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임종을 회상하는 '나'
언제 어디서	과거('나'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임종)와 현재
무엇을	어머니와의 사별
어떻게	종결 어미의 반복,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의인법, 대구법, 대화의 직접 인용
왜	어머니와의 사별을 통해 깨달은 일상적 삶의 진실을 노래함.

1 답 ③

◎ 아래서 정답

- ③ **누가** 3연에서 화자는 '어제라는 집'에 사는 어머니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안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어머니를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통해 떠올린다는 의미로,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담담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3연에서 화자는 '딸'은 '내일이라는 집',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상상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 기대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어떻게** 이 시에는 어머니와의 사별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이 드러날 뿐,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누가** 2~3연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화자의 경험이 제시되고 있을 뿐,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⑤ **누가** 1연에서는 어린 시절에 '오늘'과 '내일'에 대해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한 장면이, 2연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앞둔 화자가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한 장면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답 ②

◎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B]에는 어머니의 임종을 앞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C]에서는 과거의 어머니와 현재의 아내, 미래의 딸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만남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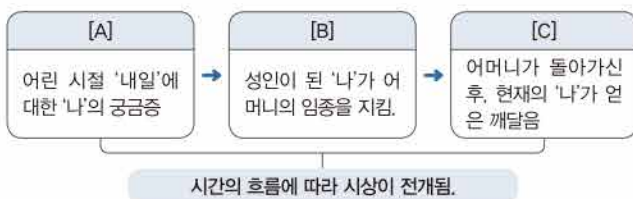
- ① **누가** [A]에서 시간에 대해 묻은 주체는 '나'이고, 이에 답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B]에서는 시간에 대해 어머니가

묻고 '나'가 답하고 있으므로, [A]에서 시간에 대해 묻던 주체가 [B]에서 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누가, 무엇을** [A]에는 '내일'에 대해 어머니께 질문을 했던 과거의 경험이, [B]에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와 '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과거의 경험이 대화의 형식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 두 경험을 바탕으로 [C]에서 시간과 만남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독백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어떻게** [A]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상황이, [B]에는 어른이 된 화자가 어머니의 임종을 앞둔 상황이, [C]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시상 전개 방식



3 답 ②

◎ **이래서 정답**

② **무엇을** 화자는 고향에서 급하게 온 '전갈'을 받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고향에 갔으므로, 화자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전갈'은 화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 소재이지, 어머니에게 화자의 소식을 전해 주는 소재가 아니다.
- ③ **무엇을** '전갈'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다. 이는 시대 상황이나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④ **무엇을** 1~2연에 화자의 과거 상황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화자가 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갈'을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화자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내용의 전갈을 받고 고향에 갔을 뿐, 이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다.

⊕ **어휘**

- **사별**: 죽어서 이별함.
- **위독하시다**: 병이 매우 중하여 생명이 위태로우시다는.

씨앗을 받으며

누가	'가을 초목'으로부터 씨앗을 받으려는 '나'
언제 어디서	• 가을 • 트랙
무엇을	씨앗
어떻게	수미상관에 따른 시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비유법, 대조법, 영탄법
왜	'가을 초목'에 대한 예찬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노래함.

1 답 ⑤

◎ **이래서 정답**

⑤ **어떻게** 5연에서 씨앗을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색채어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시에서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화자는 씨앗을 마련한 '가을 초목'과 달리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일 뿐, 심리적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② **누가, 어떻게** 이 시에는 '가을 초목'으로부터 씨앗을 받으려는 화자가 송구함과 염치없음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거나 화자의 의지가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 ③ **누가, 어떻게** 2연의 '가을 초목이여'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가을 초목'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이 시에서 특정 대상과 화자가 대화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답 ②

| **학습 활동** | 오려 보기

「씨앗을 받으며」는 작품의 처음과 끝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어떻게

◎ **이래서 정답**

② **누가** 6연에서 추가된 '젊음이 역사한'의 주체는 화자가 아닌 가을 초목이다. 따라서 이를 화자가 과거에 기울였던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재인식하는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가을 초목이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마련하기까지의 노력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시의 화자는 가을을 맞아 트랙의 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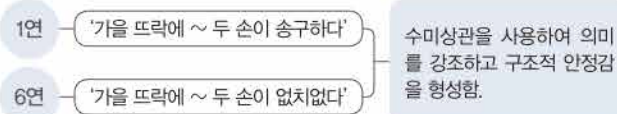
이 씨앗을 마련한 것을 보고,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따라서 1연과 6연에서 반복되는 '가을 뜨락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계기가 된 계절적 상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무엇을, 어떻게** 화자는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마련한 가을 초목과 얻은 것 없이 때만 묻어 돌아온 자신을 대비하며, 씨앗을 받는 것에 대해 송구함과 염치없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1연과 6연에서 반복되는 '씨앗을 받으려니'는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촉발한 소재인 '씨앗'에 주목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누가** 1연과 달리 6연에서 '도무지'를 추가하여 가을 초목과 달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화자가 씨앗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누가** 1연에서 화자는 '씨앗을 받으려'는 행위에 대해 송구함을 느끼고, 6연에서는 염치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 변화는 가을 초목과 씨앗으로 인해 화자가 갖게 된 성찰적 태도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시상 전개 방식



+ 어휘

- **속성**: ①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② 사물의 현상적 성질.
- **초목**: 풀과 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재인식**: ① 본디의 인식을 고쳐 새롭게 인식함. ② 과거에 경험한 것을 현재의 경험 속에서 다시 의식에 떠올리는 일.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도무지**: ① 아무리 해도, ②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가 강설

누가	눈 내리는 강산을 바라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 겨울 • 인적이 끊긴 산속의 강
무엇을	강산의 풍경과 고기를 낚는 늙은이
어떻게	기승전결·시선의 이동(원경→근경)에 따른 시상 전개, 대조법
왜	눈 내리는 강가의 쓸쓸한 풍경을 노래함.

나 고산구곡가

누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사계절, 아침 • 고산(황해도 해주 고산면 석담리)
무엇을	고산의 구곡
어떻게	4음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계절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설의법, 자문자답
왜	고산 구곡의 경치를 예찬하고 학문의 즐거움을 노래함.

다 유산가

누가	봄날의 산수 경치를 감상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 봄 • 자연
무엇을	산수 경치
어떻게	시선의 이동(원경→근경)에 따른 시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설의법, 고사 인용,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혼용
왜	아름다운 봄 경치를 감상하고 흥겨운 정취를 노래함.

1 답 ①

① 이래서 정답

① **무엇을** (가)의 화자는 관조적 태도로 눈 내리는 강산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다)의 화자는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거리는 (가)에 비해 (다)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왜 오답

② **어떻게** (다)는 산속의 바위와 나무, 폭포수를 묘사한 부분에서 '우줄우줄', '팔팔', '주루룩', '으르렁'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③ **어떻게** (나)는 '일곡은 어드매오 관암에 해 비친다', '이곡은 어드매오 화암에 춘만커다' 등과 같이 스스로 묻고 곧바로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고산 구곡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에는 자문자답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언제-어디서** (나)는 <제2곡>의 '춘만커다'와 <제3곡>의 '잎 퍼졌다', '여름 경' 등을 통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 (가)와 (다)는 각각 눈 내리는 겨울과, 제비가 돌아오고 기러기가 떠나며 폭포수가 흐르

는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을 뿐,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누가** (나)와 (다)의 화자는 자연에 도취되어 그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반해, (가)의 화자는 관조적인 태도로 자연의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나)와 (다)에 비해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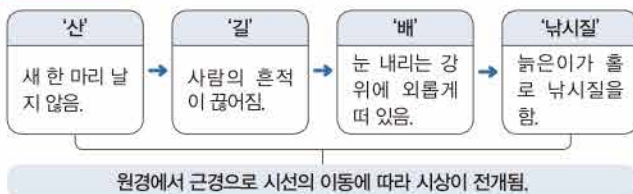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사람 흔적이 끊어졌네'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의 적막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람 흔적'은 속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늙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는 관련이 없다.

왜 오답

- ①, ② **무엇을**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산과 인적이 끊긴 길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시적 공간의 고적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심화한다. 이때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가)에서 화자의 시선은 '산'에서부터 사람의 흔적이 끊긴 '길'로, 또 외로운 '배'에서 늙은이의 '낙시질'로 옮겨가고 있다.
- ⑤ **무엇을** 찬 강에 눈만 내리는 풍경은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홀로 낙시질을 하는 '늙은이'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심화한다.

문해 공식 적용 시상 전개 방식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언제 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시조는 3단 구성의 형식이 정해져 있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시조 작가가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조의 3장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② **어떻게** 형식을 내면화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 이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 의미의 3단 구성이라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시조에서 '의미의 3단 구성'이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이라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시조의 형식이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다.

- ⑤ **어떻게** <보기>에서 시조는 3장 형식이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표현의 부담이 줄어 신속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나)의 <제2곡>에서 화자가 벽파에 띄워 꽃을 보내고자 하는 곳은 '야외'로, 이를 통해 화자는 '승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다. 이때 '야외'는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즉 속세를 의미한다. 이를 이상화된 관념적 풍경인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으로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원근이 그림이로다'는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의미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으로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작가 자신마저도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낙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승지'는 '경치가 뛰어난 곳'을 의미하는 말로, <보기>에 따르면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보기>에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의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이라 하였으므로, 당대 다른 작품에도 (나)에 사용된 '취병', '낙수', '반송'과 같은 시어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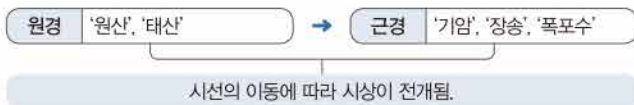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다)의 '천 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는 봄이 되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기러기의 처지를 화자가 상상해서 표현한 것으로, 화자 자신이 느낀 비애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다)에서는 봄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취가 나타나고 있을 뿐,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다)의 '원산은 첩첩',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에이구부러져' 등에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떻게** (다)에서 화자의 시선이 '원산→태산→기암→장송→폭포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옮겨간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다)에서는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산들과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기암, 약간 휘어져서 비스듬하게 자란 장송, 층암 절벽에서 팔팔 쏟아지는 폭포수 등 산수의 경치를 실감 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어떻게** (다)의 후반부로 갈수록 '첩첩', '우줄우줄'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고,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등과 같이 묘사한 것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팔팔', '주루룩', '쏟쏟' 등의 의성어를 사용한 것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시상 전개 방식



+ 어휘

- **동화**: ①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②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사회 환경과 일치하는 일.
- **도취**: 어떠한 것에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 **고적**: 외롭고 쓸쓸함.
- **창안**: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냄. 또는 그런 생각이나 방안.

이렇게

08 감각적 이미지

- 확인 1 답** (1) 미각적 (2) 청각적 (3) 후각적 (4) 공감각적 (5) 복합 감각적

◎ 이래서 정답

- (1) 맛을 느끼는 감각은 미각이므로, 맛과 같이 혀의 감각에 의해 환기되는 이미지를 미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 (2) 소리를 느끼는 감각은 청각이므로, 소리와 같이 귀의 감각에 의해 환기되는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 (3) 냄새를 맡는 감각은 후각이므로, 냄새와 같이 코의 감각에 의해 환기되는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 (4)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한 이미지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 (5)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각각 독자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복합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 확인 2 답** (1)㉔ (2)㉔ (3)㉔ (4)㉔

◎ 이래서 정답

- (1) '말술이 다나 쓰나'는 맛을 느끼는 감각과 관련이 있으므로, 미각적 이미지(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2)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에서 '향기'는 냄새를 맡는 감각과 관련이 있으므로, 후각적 이미지(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3) '심신이 시원하고'에서 '시원하다'는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과 관련이 있으므로, 촉각적 이미지(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 '푸른빛은 그늘 되어 나무 아래 어리었고'는 나무 아래에 그늘이 진 풍경을 묘사한 표현이다. 이는 눈으로 보는 감각과 관련이 있으므로, 시각적 이미지(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는 흰 옷고름의 시각적 이미지를 향기로움이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 왜 오답

- ② 발자국 위에 눈이 덮이는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③ 갈대꽃이 석양이 낀 하늘에 눈처럼 날려 뿌려지는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확인 4 답 나, 다, 라

이래서 정답

나, 다, 라. 나에서는 '공후'를 타는 소리, 다에서는 '가마귀'가 우는 소리, 라에서는 '닭 우는 소리'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왜 오답

ㄱ.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5 답 (1) 공감각적 (2) 복합 감각적

이래서 정답

- (1) ㉠에서는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옮겨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2) ㉡의 '흐릿한 불빛'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도란도란거리는'에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두 감각을 각각 독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복합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어휘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공후: 하프와 비슷한 동양의 옛 현악기.

실전 08-A

본문 72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누가	풀벌레 소리를 듣는 '나'
언제	• 밤
어디서	• 텔레비전이 꺼진 방 안
무엇을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의인법, 대조법, 현재형 어미
왜	자연을 잊고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 문명의 이기에 대한 비판,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노래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왜 텔레비전, 브라운관, 전등 등은 현대 사회의 문물이고, 풀벌레의 울음소리는 자연의 소리, 너무 작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라 할 수 있다. 현대인으로 대표되는 화자는 그동안 풀벌레들의 소리에 관심이 없다가 어둠 속에서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작은 것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왜 풀벌레의 울음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풀벌레 들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 ④ 왜 화자가 텔레비전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휴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 ⑤ 왜 그동안 풀벌레 소리에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한 화자의 성찰은 드러나고 있으나, 사회 문제와는 연결되고 있지 않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C]에서 화자는 자신이 듣지 못해도 계속 소리를 내온 풀벌레들의 어린 마음을 생각하며 그동안의 무관심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화자 때문에 풀벌레들끼리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을 미안해한 것은 아니다.

왜 오답

- ① 누가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것이므로,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소리를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B]에서 화자는 풀벌레 소리 중에 큰 울음 사이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D]에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

에 풀벌레 소리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풀벌레의 울음소리들을 간과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 ⑤ **누가** [E]에서 화자는 밤공기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자신의 허파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벌레 소리들 환하다’는 ‘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환하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옮겨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가 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 ‘별빛이 묻어’는 ‘별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묻어’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옮겨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의 촉각화가 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화자의 고백적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묻고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누가** 지역 방언, 즉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어떻게**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쓰는 풍자의 방법은 쓰이고 있지 않다.
 ⑤ **어떻게** 시적 대상인 풀벌레들을 ‘여린 마음’을 지닌 존재로 의인화하고는 있으나 ㉠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시적 화자와 대상의 대립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청각적 이미지	• ‘풀벌레 소리’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공감각적 이미지	• ‘벌레 소리들 환하다’ → 청각의 시각화 • ‘별빛이 묻어’ → 시각의 촉각화 • ‘그 울음소리들은 ~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청각의 시각화

+ 어휘

- **문물**: 문화의 산물. 곧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따위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간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가 동창이 밝았느냐 ~

누가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유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 아침 • 농촌
무엇을	농사일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문문 형식
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노래함.

나 농가

누가	농사일을 하는 농민
언제 어디서	• 농번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 농촌
무엇을	농사일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반복법, 대구법, 설의법
왜	농사일의 즐거움을 노래함.

다 농가월령가

누가	농민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 1월~12월 • 농촌
무엇을	농사일, 세시 풍속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대구법, 영탄법, 월령체(달거리)
왜	달과 절기에 따라 해야 할 농사일과 세시 풍속을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가)의 ‘노고지리 우지진다’에서 새소리가, (나)의 ‘긴 휘파람 흘리 불 제’에서 휘파람 소리가, (다)의 ‘뻐꾸 새 자주 울고’와 ‘피꼬리 노래한다’에서 뻐꾸기와 피꼬리 소리가 드러난다. 따라서 (가)~(다) 모두 청각적 심상(이미지)이 나타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에서는 화자가 창이 밝아 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다)에서는 4월의 날씨와 풍경, 농사일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다) 모두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② **어떻게** (나)의 <제2수>는 소를 몰고 가면서 흙맛이를 할 사람을 만난 내용으로, 생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는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와 자연의 생명력, 농사일을 하는 활기찬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소멸의 이미지와 관계가 없다.
 ③ **어떻게** (나)의 <제3수>와 (다)에는 화자의 심경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④ **어떻게**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가)	(나)	(다)
청각적 이미지	'노고지리 우지진다'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빠꼭새 자주 울고', '피꼬리 노래한다'

2 답 ①

이래서 정답

① 무엇을 (다)에는 음력 4월에 심고 기를 만한 작물로 목화,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는 재배해야 할 작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왜 오답

- ② 누가 (나)의 <제4수>에 땀 흘리며 일하다가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불며 휴식을 취하는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에는 휴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무엇을 (나)와 달리 (다)에는 보리,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 먹는 것과, 누에치기, 목화 등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 일이 나타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나)와 (다)의 화자는 건강한 노동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에서 농민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언제-어디서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촌으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3 답 ④

이래서 정답

④ 누가 ㉔은 음력 4월이 농사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㉑은 지금이 밭일을 하러 나가야 할 이른 아침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언제-어디서 ㉒은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농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누가 ㉓은 논밭의 잡초를 뽑는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함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언제-어디서 ㉕은 농번기에 농가의 식구들이 모두 농사일을 하러 나가 집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어휘

- 품앗이: 힘든 일을 서로 거들며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 농번기: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 모낼 때, 논매 때, 추수할 때 등이 이에 속한다.

가 고향 앞에서

누가	고향을 잃은 화자(실형민)
언제-어디서	• 이른 봄 • 고향 아닌 곳(나룻가, 고향 가까운 주막)
무엇을	고향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돈호법, 시적 허용, 현재형 어미
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를 노래함.

나 저문 강에 샅을 씻고

누가	가난한 노동자
언제-어디서	• 일이 끝난 저녁 • 강변
무엇을	노동자의 삶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비유법, 설의법
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를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① 어떻게 (가)에서 산짐승 우는 소리와 얼음장 떠내려가는 소리는 화자의 쓸쓸함을, (나)에서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는 썩은 강물은 화자의 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또한 깊어 가는 강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강물의 깊이만큼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가)에는 작품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2~3행의 '우리가 저와 같아서 ~ 샅을 씻으며'가 13~14행에서 변주,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서 시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시 행이 더 이어지기 때문에 수미상관으로 보기 어렵다.
- ③ 어떻게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어버린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쓸쓸함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지만,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누가 (가)의 5연에서 장꾼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지만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나)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 ⑤ 어떻게 (나)에서 시적 공간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2 답 ②

보기 | 오래 보기

선생님: 시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많이 활용됩니다. 「고향 앞에서」에 사용된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

어떻게

⑥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B]는 이른 봄에 얼음장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내음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에서 인 땅이 녹는 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떻게**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떻게** '잔나비 우는'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처량하고 쓸쓸한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떻게** '누룩을 디디는 소리'의 청각적 심상과 '누룩이 뜨는 내음새'의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풍요롭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먹울멍 떠내려간다.' '잔나비 우거진 마을' 등
청각적 이미지	'산짐승의 우는 소리', '잔나비 우는 산기슭', '누룩을 디디는 소리'
후각적 이미지	'흙이 풀리는 내음새', '누룩이 뜨는 내음새'
촉각적 이미지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3 답 ②

⑥ 이래서 정답

- ②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뭇가를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고향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것이라 여기기도 하고,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장꾼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기도 한다. '주인집 늙은이'는 화자와 같이 고향을 상실한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볼 수 있으나, '행인'과 '장꾼들'은 화자에게 고향의 정취를 전해 주거나 고향의 소식을 들려주는 대상일 뿐, 화자와 같은 처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화자는 '나룻가'를 서성거리다가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고향의 적막한 '산기슭'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공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강바람'은 얼음장을 울먹울멍 떠내려가게 하는 존재로, 여기에는 고향을 그리워하여 울음이 터질 듯한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또 '설레는 바람'에는 고향 앞

에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설렘이 드러나 있다.

- ④ **무엇을** '공연히'는 주인집 늙은이의 심정에 대한 공감을, '아직도'는 고향에 대해 지속되는 그리움을, '혹여나'는 장꾼들에게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무엇을** 흙이 풀리는 '내음새'와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화자에게 고향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4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시에는 특정 시대나 사회, 혹은 특정 계층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한다. ...

또한 시는 전형적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누가, 언제-어디서

⑥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나)의 화자는 가난한 노동자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상황에서 강물을 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다가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며 고달픈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왜 오답

- ① **누가** 슬픔도 퍼다 버린다고 한 것에서 삶의 비애와 고뇌를 씻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누가**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다시 돌아갈 뿐인 화자의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언제-어디서** 셋강 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썩은 물과 같이 희망과 생명력이 없는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화자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어휘

- **일단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전형적**: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 **비애**: 슬퍼하고 서러워함. 또는 그런 것.
- **고뇌**: 괴로워하고 번뇌함.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는 상승 이미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는 하강 이미지이다.
- (2) 무엇인가가 사라지거나 소망이 좌절되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는 소멸 이미지이다.
- (3) 말이 뛰어다니거나,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은 활기차고 힘차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확인 2 답 (1) 동적, 상승 (2) 생성, 계절적

◎이래서 정답

- (1) 공이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은 활기차고 힘차게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므로, 동적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2)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는 모습은 생명이 탄생하는 느낌을 주고 봄의 느낌을 환기하므로, 생성 이미지와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고요히(㉠)’, ‘졸음(㉡)’은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정적 이미지를, ‘생기가 뛰놀아라(㉢)’는 활기차고 힘차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확인 4 답 (1) 생성 (2) 하강 (3) 소멸

◎이래서 정답

- (1)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인가가 새로 생겨나는 느낌을 주므로 생성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2)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주므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3) 모란이 시들어 자취도 없어지는 것은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느낌을 주므로 소멸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ㄱ, ㄹ

◎이래서 정답

- ㄱ.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통해 겨울의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ㄹ. 내렸던 서리가 견히고 누렇게 익은 벼가 들에 펼쳐지는 풍경은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절정

누가	극한 상황에 처한 화자
언제 어디서	• 겨울(암울하고 가혹한 시대, 일제 강점기) • 북방, 고원
무엇을	극한 상황
어떻게	기승전결의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은유법, 역설법, 현재형 어미
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를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화자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② **왜** 극한 상황이라는 현실과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누가** 화자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렬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으나, 자신을 나약하게 여기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왜** 자연물인 무지개를 통해 현실 초극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자연으로부터 도덕적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에서 추측의 표현 ‘~인가 보다.’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부드러운 어조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 시에서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강한 어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에서 가혹한 현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겨울’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무지개’로 구체화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인 겨울을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로 전환하여 극한 상황의 초극 의지라는 주제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어떻게** 1연(기)은 현실의 극한 상황, 2연(승)은 극한 상황의 심화, 3연(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 상황, 4연(결)은 극한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와 유사하게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오다', '서다', '없다', '보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시적 분위기를 긴장감 있게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언제-어디서**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 등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현실의 극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계절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읽으니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

어떻게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3연에서 화자는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❶ 왜 오답

- ① **어떻게** 1연의 '매운'은 '날씨가 몹시 추운.'이라는 뜻으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떻게** 1연의 '매운 계절'에 이어 2연에서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언제-어디서** 1연의 '북방'과 2연의 '고원'은 화자에게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휩쓸려 오게 된 극한의 공간으로, '서릿발' 같은 겨울 이미지들과 맞물려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누가** 1~3연에서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인 겨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4연에서는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계절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



+ 어휘

- 초극: 어려움을 따위를 넘어 극복해 낸.

그대 생의 술술에서

누가	지난 삶을 성찰하는 '나'
언제 어디서	• 봄이 오는 시기 • 술술
무엇을	목은일이 지고 새일이 나는 자연 현상
어떻게	하강 이미지, 반복법, 점층법, 도치법
왜	술술에서 삶에 대한 성찰과 희망을 노래함.

1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봄 산의 술술에서 주변의 나뭇잎, 나뭇가지, 새 등을 관찰하고 있으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❶ 왜 오답

- ① **어떻게** 박새들이 술가지에서 술가지로 가볍게 날아다니며 이동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어떻게** 욕심과 집착을 가졌던 과거의 모습과 삶의 근심을 버리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 ③ **누가** 화자는 봄이 오는 술술에서 관조적인 자세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삶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욕심과 집착을 가진 삶을 살았던 화자는 술 이파리들과 상수리나무 목은일이 지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새 잎사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이 시는 '나도 봄 산에서는'으로 시작해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술술에서'로 끝난다. 따라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❶ 왜 오답

- ① **어떻게** '그대는 ~ 푸르른 눈을 뜨리 /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술술에서'에서 어순이 도치된 표현이 나타난다.
- ② **어떻게**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과 같이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어떻게** '-(으)리', '-네'와 같은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어떻게** '눈 뜨리 / 눈을 뜨리 ~ 푸르른 눈을 뜨리'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반복·변주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각성을 강화하고 있다.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는 화자의 마음 한구석으로, 화자는 과거의 삶에서 지냈던 욕심과 집착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솔숲 끝'은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이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는, 희망의 이미지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을 드러나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내리고', '지네' 등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의 하강 이미지가 드러난다. 이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을 내려놓으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묵은잎'이 나무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화자는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새 잎사귀'를 통해 삶의 근심과 고단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무엇을** '솔숲'은 화자에게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 '이 세상', '이 고요한 솔숲'과 같이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⑤ **어떻게** '봄 산'에서 '봄이 오는 이 솔숲'까지 공간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화자는 지난 삶을 성찰하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하강 이미지

- '솔 이파리들이 ~ 내리고'
- '묵은잎은 저만큼 지네'
-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 '찬 서리 내린'

→ 하강 이미지

어휘

- **생동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실전 09-C

본문 80~81

가 승무

누가	승무를 추는 무인(舞人)
언제 어디서	• 달이 지는 밤 • 빈 대
무엇을	승무
어떻게	수미상관에 따른 사상 전개, 동적·하강 이미지, 역설법, 시적 허용
왜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를 노래함.

나 면앙정가

누가	자연에 묻혀 사는 '나'
언제 어디서	• 사계절 • 면앙정이 위치한 자연 속
무엇을	면앙정과 주변 풍경
어떻게	선경후정, 시선의 이동·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상 전개, 하강·소멸·동적 이미지, 직유법, 은유법, 도치법,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를 노래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가)는 '소매는 길어서 ~ 외씨보선이여',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뺄는 손' 등에서 승무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지러운 기러기는 ~ 우러곰 좇느뇨' 등에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 (나)에는 화자의 의지가 단호한 어조로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가), (나) 모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가), (나) 모두 대립적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가)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어 무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삶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답 ②

보기 | 오려 보기

...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인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

어떻게

IV

어휘

⑤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흐르는 빛'은 무인의 얼굴이 고와서 화자를 서럽게 하는 빛으로, 화자가 승무를 몰입해서 보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의해 비추어지는 조명 효과가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얼굴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빛이며, 상승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승무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달이 지는 '밤'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경들이 어둠 속에 묻히고 무인의 춤추는 모습이 부각된다.
- ③ **어떻게** '황촉'이 녹아 촛농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나 '달'이 지는 모습은 모두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④ **무엇을** 승무를 추던 무인은 6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번뇌를 승화하고자 한다. 이때 하늘은 인간이 번뇌를 느끼는 지상의 세계와 대비되는, 모든 번뇌를 초월한 해탈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늘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6연의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는 7연의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눈물)', '번뇌는 별빛이라'와 이어진다. 즉 '별빛'이 무인의 눈과 연결되고, 이는 번뇌를 승화하고자 하는 그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하강·소멸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

'황촉 불이 말없이 녹는'	황촉이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림.	→	하강·소멸 이미지
'달이 지는데'	달이 지고 있음.		
'돌아설 듯 날아가며 ~ 외씨보신이여.'	버선을 신은 발의 역동적인 움직임	→	동적 이미지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손을 이용한 춤사위		

3 답 ④

⑤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A]에서는 면앙정 주변의 풍경에 대한 묘사와 감탄을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냉소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에서 도치법이 나타난다.
- ② **어떻게**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에서 면앙정 앞의 시냇물을 쌍룡과 비단에 비유하고, '물 좇은 사정은'

눈같이 퍼졌거든'에서 모래톱을 눈에 비유하는 데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 ③ **어떻게** [A]에서는 대체로 4음보의 정형적 음보율을 통해 운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어떻게**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산의 모습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4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어떻게**

⑤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보기>에서 작가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높은 용(㉑)'은 제월봉의 형세를 비유한 것으로, 선잠에서 막 깨어난 ㉑가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와 포부, 기상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끝없이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무변대야에서 '제월봉(㉑)'이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높은 이상을 지닌 작가의 내면을 ㉑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정자(㉑)'는 면앙정을 말하고, 청학이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는 것은 비상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누가** 면앙정 앞의 '물(㉑)'이 밤만으로 흐르는 듯하다는 표현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누가** '추월산(㉑)'을 비롯하여 면앙정 주위의 여러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작가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④ 어휘

- **몰입**: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 **해탈**: ①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본디 열반과 같이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② 얽매임에서 벗어나.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 **형세**: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확인 1 답 (1) 의인법 (2) 대유법 (3) 은유법 (4) 직유법

이래서 정답

- (1)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한다.
- (2) 대상의 일부분이나 속성을 통해서 그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 (3) 'A(원관념)는 B(보조 관념)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하게 놓는 표현 방법은 은유법이라고 한다.
- (4)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무생물인 '산'을 생물처럼 '엎드려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활유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2) 지식이나 언론을 그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펜'으로, 무력을 그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로 대신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대유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3) 원관념인 '내 얼굴'과 보조 관념인 '꽃'을 '같은'으로 연결하였으므로, 직유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1) 은유법 (2) 직유법 (3) 대유법 (4) 의인법 (5) 활유법

이래서 정답

- (1) '나'를 나룻배로, '당신'을 행인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하게 놓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 단풍 숲을 비단에 비유하면서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3) 자연의 일부분인 강호(강과 호수)로 자연 전체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대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 산봉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단장하고 아양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며 '너'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5) 생물이 아닌 잠이 살아 있는 생물인 것처럼 달려든다고 하며 숨거나 솟아 온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4 답 ㄱ, ㄷ, ㄹ

이래서 정답

- ㄱ.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수정럼 드리운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직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ㄷ. '이슬 같은 보람', '보뻔(보배인) 듯'이라고 하였으므로, 직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ㄹ. '인심이 낮 같아서'라고 하였으므로, 직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ㄴ. 무생물인 달이 쫓아온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활유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ㄱ에서는 새들이 사람처럼 집을 그리워한다고 표현하고, ㄴ에서는 햇발이 들담에 속삭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ㄷ에서는 장송이 흥에 겨워 춤을 춘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ㄱ~ㄷ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왜 오답

- ① ㄱ~ㄷ의 밑줄 친 부분에는 대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ㄴ의 '햇발같이'에서만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ㄱ과 ㄷ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직유법을 찾을 수 없다.

+ 어휘

- 단장: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 수정럼: 수정 구슬을 꿰어서 만든 아름다운 발(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 낮: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가 성장

누가	강물의 이별을 지켜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 새벽 • 바다와 가까운 강
무엇을	강물
어떻게	의인법, 직유법, 돈호법, 산문체
왜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노래함.

나 떨어저도 튀는 공처럼

누가	공을 보고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일상
무엇을	공
어떻게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직유법, 반복법, 도치법, 행간 걸침
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자세를 노래함.

1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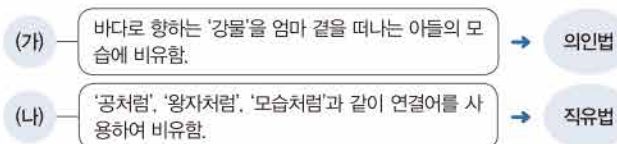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가)에서는 바다로 향하는 '강물'을 의인화하여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둥근 /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네 모습처럼' 등과 같이 직유법을 사용하여 공처럼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가), (나)에서는 모두 의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가)에서는 '놓지 않았습시다', '말았습시다', '돌아왔습니다'와 같이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가), (나) 모두 일정한 음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체념적 어조나 화자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해 공식 적용 의인법과 직유법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가)에서 엄마 강물은 아들 강물을 바다로 보낸 후 시린 몸을 뒤채고 조용히 산골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들과 헤어진 슬픔의 정서와 그것을 참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장면을 힘찬 음성으로 낭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엄마 강물과 아들 강물이 헤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의 모습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 ②, ③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에서 아들 강물이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강물의 손을 놓쳤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파도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누가** 엄마 강물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는 장면이므로, 기대와 염려가 섞인 어조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3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상징적 차원에서 '구'는 ... 본모습을 쉽게 회복하며, 정지한 상태보다는 운동하는 상태가 어울린다.

무엇을

㉠ 이래서 정답

- ㄴ. **무엇을** <보기 1>에 따르면 '구'는 보통 완전함이나 최선의 모양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공'이 되어 살아 보자고 노래하며 이를 '최선의 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은 (나)의 화자가 닮고자 하는 최선의 존재로 볼 수 있다.
- ㄷ. **무엇을** (나)에서 '공'은 떨어저도 튀어 오르며 쓰러지는 법이 없고,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의 '공'은 운동성을 가진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ㄱ. **무엇을** (나)의 '공'은 떨어저도 튀어 오르고 쓰러지는 법이 없이 본모습을 쉽게 회복하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본모습에서 쉽게 변형되는 속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 ㄴ. **무엇을** <보기 1>에서 '구'는 모나지 않아 원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공'이 다른 존재를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어휘

- 나약: 의지가 굳세지 못함.
- 구: 공처럼 둥글게 생긴 물체. 또는 그런 모양.

매화사

누가	매화가 핀 것을 지켜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 눈 덮인 곳, 동쪽 누각
무엇을	매화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설의법, 영탄법
왜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노래함.

1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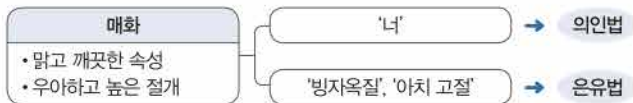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A]에서는 매화를 ‘너’라고 의인화하면서, ‘빙자옥절’, ‘아치 고절’로 비유하여 눈 속에 핀 매화의 맑고 깨끗한 속성과 우아하고 높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시적 긴장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어떻게** 매화를 보며 그 속성을 예찬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이나 매화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어떻게** ‘눈’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애상적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누가** ‘네로구나’, ‘하노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찾을 수 있으나,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의인법과 은유법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제8수>에서 화자는 온 세상을 덮은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는데 창밖에는 달이 떠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달밤에 매화를 즐기는 낭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② **어떻게** <제2수>에서 매화가 피자 ‘암향부동’한다고 하였다. 즉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윽한 향기를 지닌 매

화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어떻게**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치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에서 절개를 지닌 매화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④ **언제 어디서**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한다며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이 작품에는 ... 자연물로서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 ...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나타나 있다.

누가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측면에서,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어 시구를 이해하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해서 감상해야만 ‘봄뜻(㉠)’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백발옹들이 ‘거문고와 노래(㉡)’를 즐기는 것을 통해 매화가 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누가** ‘잔 들어 권할 적에(㉢)’는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무엇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하는 태도 측면에서, ‘황혼월(㉣)’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④ **무엇을** 화자는 매화를 ‘아치 고절(㉤)’로 예찬하고 있다. 매화가 지닌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매화에 부여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어휘

- **절개**: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깨끗한 태도
-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 **국한**: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가 항구

누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나'
언제 어디서	• 과거(어린 시절), 현재 • 항구
무엇을	부두의 인부꾼들, 어린 노동자였던 '나'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반복법, 영탄법, 시적 허용
왜	삶의 의지를 다지고 희망을 꿈꾸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나 희망의 거처

누가	옥수수수와 버드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옥수수밭과 그 두둑
무엇을	옥수수, 버드나무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의인법, 활유법
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생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가)에서는 '희머얼건 얼굴'을 바늘로 찔러도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꺼머티티'한 인부꾼들의 외양을 '흙을 씹고 자라난 듯'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옥수수 '뿌리'의 모습을 '부젓가락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직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외양적 특성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어떻게** (가), (나) 모두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 **누가** (가)의 '그날의 나진이여'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과거의 '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어떻게** (가), (나) 모두 점층적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직유법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키우는 것이다'는 '맨발의 근성'과 연결되어 옥수

숫대가 허방으로 결뿌리를 내딛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 땅을 딛고 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헛발일지라도' 뿌리를 '들이민다'는 것은 옥수수대가 뿌리를 뺐었을 때 비록 땅에 닿지 못하는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뿌리를 뺐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무엇을** 버드나무가 자신의 상처인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흙집'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고통을 인내하고 상처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무엇을**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버드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⑤ **무엇을** 화자는 옥수수과 버드나무의 모습을 보며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깨닫는다. 이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 생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작대기처럼 곳곳해지던' 것은 방황하다가도 마음을 다잡아 삶의 의지를 다지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도 좌절하곤 했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희머얼건 얼굴'이 그 배에서 내려 '상륙하는' 모습은 화자가 본 항구의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② **무엇을** '푸른 하늘'은 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부꾼들'은 이상을 잃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부꾼들'이 '시금트레한 눈초리'로 일하는 부두는 고달픈 생활 현장으로서의 항구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누가, 어떻게** 어린 노동자였던 화자가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며' 자신을 '믿고'자 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상과 열정을 잃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를 하고 살아가는 인부꾼들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⑤ **누가**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자신, 즉 '나진'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11 구체화

확인 1 답 (1) × (2) ○

◎ 이래서 정답

- (1)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물, 정황, 사건 등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 (2) 사물, 동물이나 자연 현상 등의 객관적 상관물을 화자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1) 객관적 상관물 (2) 감정 이입

◎ 이래서 정답

- (1) ㄱ의 화자는 함께 돌아갈 상대(임)를 잃고 혼자된 처지인데, 화자가 바라보는 '피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지내고 있다. 이처럼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피꼬리'로 인해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피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2) ㄴ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처지로, 꿈에서 임을 만났다가 꿈을 깨어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외기러기'가 슬프게 울고 있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시켜서, 마치 그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외기러기'는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확인 3 답 (1) × (2) ○

◎ 이래서 정답

- (1) ㄱ에서 '홍'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으로, 추상적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한 '홍'을 짐처럼 나귀에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추상적 대상을 지각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2) ㄴ에서 '맹세'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추상적 대상인데, 그것을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거나 미풍에 날아갔다고 하며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4 답 ㄱ, ㄴ

◎ 이래서 정답

- ㄱ.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화자가 '접동새'와 자신이 비

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이나 대상에 이입시켜 마치 그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접동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별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별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왜 오답

- ㄷ. '오디새'는 '나'로 하여금 '한'의 감정을 돋우는 존재로, '나'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디새'가 무정하다는 점에서 화자와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확인 5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에서 화자는 늪에 가는 것을 막아 보고자, 늪을 길로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한다. 즉 세월, 늪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길', '백발'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지름길'은 화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찾아온 길일 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 ③ '막대', '가시'는 화자가 늪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수단 혹은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다.

⊕ 어휘

- 정황: 일의 사정과 상황.
- 무정: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하고 인정이 없음.

가 꿈과 근심

누가	임과 이별한 화자
언제 어디서	밤부터 새벽까지
무엇을	꿈, 근심
어떻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반복법, 대조법, 상황의 가정
왜	이별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걱정과 기원을 노래함.

나 기다림

누가	임을 기다리는 화자
언제 어디서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
무엇을	임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감정 이입,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반복법, 점층법
왜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노래함.

1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가)에서는 ‘밤’과 ‘새벽’, (나)에서는 ‘날빛이 서창에 걸리’는 저녁 무렵과 ‘깊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나)에서는 고통을 인내하기 위해 수를 놓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으나, (가)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자의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어떻게** (가), (나) 모두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자문자답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가)는 ‘만일’ 이후에 시상이 전환되며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도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나)에만 나타나 있다.

2 답 ③

㉠ 아래서 정답

- ③ **어떻게** (가)는 1, 2연에서 ‘~기에 ~더니’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지만, <보기>에서는 이러한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는 ‘만일 ~ 있거든’에서, <보기>는 ‘어른 님 오신 날 밤이거든’에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타나 있다.
- ② **어떻게** (가)에서는 ‘근심’과 ‘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길거나 짧은 것으로, <보기>에서는 ‘밤(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베어 내고 펼칠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어떻게** <보기>는 ‘동지’와 ‘춘풍’에서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무엇을** <보기>는 ‘서리서리’, ‘구뽀구뽀’ 등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으나,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찾아볼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3 답 ⑤

㉠ 아래서 정답

- ⑤ **무엇을** (가)의 화자는 ‘꿈(㉠)’이 짧아 임을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따라서 ㉠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와 외로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다가 ‘연등(㉡)’을 통해 원망을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은 화자의 원망과 아픔이 승화된 사랑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은 화자를, ㉡은 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무엇을** ㉠에서 임을 만나지 못하지만 암울한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은 과거 회상과 관련이 없다.
- ③ **무엇을** ㉠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은 화자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④ **무엇을** ㉠에서 화자는 임을 만나지 못하지만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도 갈등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4 답 ④

㉠ 아래서 정답

- ④ **누가** ‘극락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에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며 임을 원망하고 있을 뿐, 운명적 상황에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까무러치듯’에 ‘깜깜하고’를 더해서 기다림의 고통과 외로움이 심화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어떻게** ‘날빛(햇빛)’이 외롭다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어떻게** ‘떨어지고’에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누가** ‘바늘 끝에 뜨이는 / 아픈 사연 감추웁고’에서 화자는 수를 놓으면서 아픔을 인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푸른 밤

누가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나'
언제 어디서	'너'에게로 난 길('나의 생애')
무엇을	'너'에게로 향하는 마음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비유법, 역설법
왜	'너'를 향하는 '나'의 간절한 사랑을 노래함.

나 속미인곡

누가	헤어진 입과 만나기를 바라는 '나'
언제 어디서	• 저녁부터 밤까지 • 높은 산, 물가, 초가집
무엇을	임(임금)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객관적 상관물, 설의법
왜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가)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죽어서라도 입을 쫓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가)는 자신의 마음이 '너'에게로 향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입과 이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나)의 화자는 대상을 비추는 속성을 지닌 '낙월'이 되겠다고 함으로써 입을 따르겠다는 주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④ **왜** (가), (나) 모두 포용과 조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가)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연민인지 알 수 없다. (나)의 화자도 입과 이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입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D]의 '반벽 청등(반벽 청등)'은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로, 맞이할 입 없이 혼자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A]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너'에게로 향한 것이었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너'를 향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떻게** [B]는 '꽃'이 '너'에게로 몸을 기울인다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만 지향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어떻게** [C]는 사공 없이 걸려 있는 '빈 빙(빈 배)'을 통해 입과 헤어져 홀로 있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어떻게** [E]의 '계성' 즉 닭의 울음소리는 청각적 심상으로, 이 때문에 화자가 꿈에서 깨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객관적 상관물

'빈 빙'	입과 떨어져 홀로 남겨져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반벽 청등'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

3 답 ④

보기 | 오려 보기

선생님: 우리 삶에서 수많은 형태로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은 문학 작품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 화자는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별을 거부합니다. ...

누가, 왜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㉔은 꿈속에서 입을 만났다가 꿈을 깨자 입 없이 홀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어 한탄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소중한 인연을 지켜 내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 ㉓은 '너'에게 가지 않기 위해 애썼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너'와 인연을 애써 거부하며 방황했던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② **누가** ㉒은 '너'를 향한 마음이 사랑과 치욕을 오갔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 ③ **누가** ㉑은 자신의 생애가 오직 '너'를 향한 길이었다고 깨닫는 부분으로, '너'를 향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⑤ **누가** ㉐은 죽어서 낙월이 되어 입의 곁에 가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으로, 죽어서라도 입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수만의 길(㉔)'은 화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너'에게로 향하는 길이고, '보람(㉞)'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막는 방해물이다. 따라서 ㉜는 화자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㉞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㉜, ㉞ 모두 인간의 강인함과 관련이 없다.
- ② **무엇을** ㉜는 화자가 결국 자신의 운명임을 인정하는 대상이지만 경외심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㉞는 화자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므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㉜의 수만 갈래의 길은 결국 '너'에게로 향하는 단 하나의 길이 되므로, 갈등의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㉞는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므로, 화합의 이미지라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㉞는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㉜에서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수많은 길이 결국 '너'에게 다가가는 길이였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을 뿐, 상황에 대한 자부심이 제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휘

-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표출**: 겉으로 나타냄.
-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또는 그 한숨.
- **경외심**: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 **초래**: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함.
-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규원가

누가	독수공방하는 '나'
언제 어디서	• 날이 저물 무렵 • 규방
무엇을	남편, 독수공방하는 신세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객관적 상관물,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영탄법, 고사 인용
왜	남편의 사랑을 잃은 여인의 원망과 봉건 제도하에서 겪는 규방 부인의 한을 노래함.

1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여 치고 /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고', '소상 야우의 땃잎 소리 섞여 도는 듯 / 화표 천년의 별하이 울고 있는 듯' 등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뿐,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소년 행락 생각하니', '부생모욕 신고하여 이내 몸길러 낼 제 ~ 이 얼굴 이 태도로 백 년 기약하였더니'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빈 화안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에서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추한 모습이 된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어떻게** 이 작품은 '옛그제 ∨ 젊었더니 ∨ 하마 어이 ∨ 다 늙거니', '소년 행락 ∨ 생각하니 ∨ 일러도 ∨ 속절없다', '늙어서야 ∨ 서러운 말 ∨ 하자 하니 ∨ 목이 멘다'와 같이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어떻게** '실술이 상에 올 제'에서 '실술'이 울고 있다는 것은 외로운 처지인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실술'에 이입한 것이고, '새소리 더욱 싫다'에서 '새소리'가 서럽다는 것은 화자가 '새소리'에 자신의 서러움을 이입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면목가증 되었구나', '굽이굽이 끊겼어라'와 같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탄식과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감정 이입

'실술이 상에 올 제'	→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슬픔을 '실술'의 울음에 투영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새소리 더욱 싫다'	→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새소리'에 투영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2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 **왜**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천상의 견우직녀'는 칠월 칠석날 일 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 이들로, 임과의 소식마저 끊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상의 견우직녀'가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 왜** 남편이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독수공방하며 늙게 된 화자의 사연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스스로 참괴하니'는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을 사라지고 '면목가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을 화자가 자신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화자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누가** 화자는 자신이 '살 동 말 동' 한 것이 '임의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을 원망하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에서 화자는 무슨 '약수'가 가렸기에 임이 오지 않는다고 하며, 임이 오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약수'는 임과의 재회를 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이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의 '백마 금편'에서 임이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나타나 있고, '어디 어디 머무는고'에서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해 걱정하고 원망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무엇을** ㉢에서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무엇을** ㉣의 '가을 달'과 '실술(귀뚜라미)'에서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에서 '간장이 구곡 되어' 끓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를 통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다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4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내 **꿈**아 ... **무엇을**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이 작품의 '꿈'은 화자와 임이 재회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고, <보기>의 '꿈'은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가 있는 요양에 다녀오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두 '꿈'은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②, ④ **무엇을** 이 작품의 '꿈'은 집에 오지 않는 임(대상)을, <보기>의 '꿈'은 청나라에 간 두 왕자(대상)를 만날 수 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꿈'이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무엇을** 이 작품에서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려 한다. <보기>에서 화자는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그리워하다가 '꿈'에서 만나게 된다. 따라서 두 '꿈' 모두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서 임의 사랑을 잃고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고자 하나, 잠에 들지 못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기>의 화자는 '꿈'에서나마 두 왕자를 만나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 어휘

- **행락**: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
- **대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함.
- **거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 **간장**: 간과 창자.
- **불모**: 예전에, 나라 사이에 조약 이행을 담보로 상대국에 억류하여 두던 왕자나 그 밖의 유력한 사람.

확인 1 답 (1) 반복법 (2) 점층법 (3) 연쇄법 (4) 열거법

이래서 정답

- (1)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반복법이라 한다.
- (2) 형식이나 내용을 점차 더하여 그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는 표현 방법을 점층법이라 한다.
- (3)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 부분에 이어받아 내용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연쇄법이라 한다.
- (4)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열거법이라 한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눈’에 대한 표현이 점점 확장·심화되고 있으므로, 점층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 ‘~ 길다. 긴 것은 ~’, ‘~ 기차. 기차는 ~’과 같이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이어받아 연결하고 있으므로, 연쇄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3) ‘나라 > 집안 > 자기 자신’으로 큰 것에서 점점 작은 것으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점강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ㄱ에서는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와 같이 ‘잊었노라’를 포함한 문장이 점차 확장·심화되면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잊을 수 없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점층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2) ㄴ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는 별을 보며 시적 화자가 떠올리는 상념들을 나열한 것이므로, 열거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3) ㄱ에서는 ‘당신이 ~면’과 ‘잊었노라’, ㄴ에서는 ‘별 하나에 ~과(와)’와 ‘어머니’가 되풀이되므로, 반복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확인 4 답 ㄱ, ㄷ

이래서 정답

- ㄱ. ‘심의, 도포, 자리옷’은 ‘나’가 지어 놓은 당신의 옷들로,

이들을 열거하여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 ㄷ. ‘충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망양대, 월송정’은 동해의 아름다운 여덟 명승지인 관동 팔경을 나열한 것으로,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다.

왜 오답

- ㄴ. ‘못 오던가(오는가)’와 ‘이 아해야 말 듣소’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반복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쌍배목 외걸새에 용 거북 자물쇠’는 문고리를 걸고 잠그는 쇠의 종류를 나열한 것일 뿐, 장애물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입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성 > 담 > 집 > 뒤주 > 궤’로 점차 작아지고 있으므로, 점강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에서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 부분에 이어받고 있으므로, 연쇄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어휘

-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 **명승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 **쇠**: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

가 모춘강상승인후유감

누가	벗을 떠나보낸 '나'
언제 어디서	• 늦은 봄 • 강가
무엇을	벗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객관적 상관물
왜	벗을 떠나보낸 슬픔과 벗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나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

누가	임과 이별한 '나'
언제 어디서	임과 이별한 후
무엇을	까투리·도사공·'나'의 안(마음)
어떻게	열거법, 점층법, 과장법, 비교법, 설의법
왜	사랑하는 임을 여윈 절망적인 심정을 노래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왜 (가)는 벗을 떠나보낸 슬픔과 벗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사랑하는 임을 여윈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대상과의 이별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왜 (가)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나)는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모두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② 어떻게 (가)는 눈앞의 풀, 안개 낀 강, 강가의 버드나무 등으로 시선이 이동하지만, 벗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시선의 이동과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 ⑤ 언제 어디서 (가)는 강가에서 벗과 이별한 후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으나, (나)는 특정 공간에서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마음(㉠)'은 벗과의 이별로 심란한 화자의 마음으로,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되고 있다. (나)의 '내 안(㉡)'은 사랑하는 임을 여윈 절망적인 마음으로, '불가토리', '도사공'의 마음과의 비교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에서 벗과의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심란함은 드러나지만, 벗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불가토리'나 '도사공'의 마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 ② 누가 ㉠에는 이별을 슬퍼하며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날 뿐, 재회에 대한 확신은 담겨 있지 않다. ㉡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절망적인 마음은 드러나지만, 임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⑤ 누가 ㉠, ㉡ 모두 떠난 사람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보기>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제시된 '불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이 (나)에서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나)와 <보기> 모두 '불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보기>의 종장에서 '견줄 거시 업도다.'라고 한 직설적 표현을 (나)에서 '가을하리오(견주겠는가, 비교하겠는가).'와 같이 설의적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화자의 심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③ 어떻게 <보기>의 종장에서는 '도사공'의 처지를 간결하게 제시했는데, (나)의 종장에서는 '도사공'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열거하고 과장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어떻게 평시조의 형식에 맞게 글자 수를 지킨 <보기>와 달리, (나)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 장의 글자 수를 자유롭게 늘려서 표현하고 있다.
- ⑤ 어떻게 (나)와 <보기> 모두 '불가토리', '도사공'의 심정과 비교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문해 공식 적용 열거법, 점층법, 과장법

'대천 바다 한 가운데 ~ 수적 만난 도사공'	→	열거법	도사공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나열함.
		점층법	도사공의 위급한 처지가 점점 더 심해짐.
		과장법	도사공의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함.

어휘

- **여윈**: ①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한 ② 멀리 떠나보낸
-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 **절체절명**: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라

누가	거미를 보고 문밖으로 버리는 '나'
언제 어디서	• 밤 • 방과 문밖
무엇을	거미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점층법, 현재형 어미
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가족 공동체 회복에의 소망을 노래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왜** 이 시의 화자는 방에 차례로 나타난 거미들을 문밖으로 버리면서 거미 가족들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거미를 쓸어 버리는 경험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거미 가족들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지만, 화자와 거미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거미 가족이 나타난 순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지만,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언제 어디서** '차디찬 밤'에서 시간적 배경은 알 수 있지만, 계절적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다.
- ⑤ **어떻게**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상황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화자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 하나를 문밖으로 쓸어 버렸다가, 이후 다른 거미들을 발견하고는 거미 가족들이 재회하기를 바라면서 거미들을 문밖으로 내보낸다. 이처럼 거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무심함에서 차츰 서러움, 안타까움, 슬픔을 느끼며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문밖은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거미의 상황이 악화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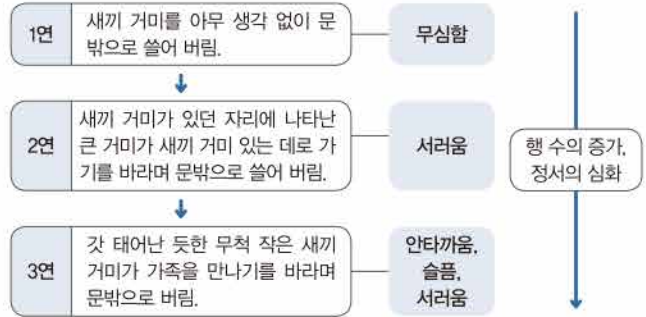
㉡ 왜 오답

- ① **어떻게** 거미들을 엄마, 누나, 형 등의 가족 구성원으로 의인화하여, 가족이 해체된 것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떻게**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통해 거미가 놓인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어떻게** '쓸어 버린다', '밤이다', '서러워한다' 등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거미와 관련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⑤ **어떻게** 1연에서 3연까지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연의 행수가 점층적으로 늘어나며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정서도 심화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점층법



3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보드라운 종이(㉠)'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안타깝게 여기며 거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하는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이상에 대한 동경과는 관련이 없다.
- ② **무엇을** 거미를 미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거미에 대한 용서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③ **무엇을** 자연물인 거미 가족의 해체를 안타까워할 뿐,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④ **무엇을**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 어휘

- **무심함**: ①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음. ② 남의 일에 걱정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음.
- **악화**: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해체**: 단체 따위가 흩어짐. 또는 그것을 흩어지게 함.
-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 **미물**: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

가 고공가

누가	고공들을 거느리는 집안의 주인(나)
언제 어디서	도적의 침략(임진왜란)을 당한 후
무엇을	고공(신하)의 행동
어떻게	비유법, 열거법, 대구법, 돈호법
왜	고공(신하)들에 대한 훈계를 노래함.

나 고공답주인가

누가	집안을 걱정하는 어른 종(나)
언제 어디서	도적의 침략(임진왜란)을 당한 후
무엇을	종(신하)의 행동, 집안(나라) 문제의 해결 방안
어떻게	비유법, 연쇄법, 대구법, 설의법
왜	종(신하)들에 대한 훈계와 상전(임금)에 대한 간언을 노래함.

1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가)와 (나)에서는 ‘고공(종)’들이 제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느라 가세가 기울게 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에서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며 처음 집을 짓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 회상을 하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가), (나)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싸움만 일삼는 종들의 행태를 가상의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어떻게** (가)는 가세가 기울게 된 내력을 제시하며, (나)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종들의 행태를 비판할 뿐,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이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인 집안의 주인(상전)을 청자로 상징하고, 가세가 기울 것에는 종뿐만 아니라 주인의 탓도 있으니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고 종들을 휘어잡으라고 간언하고 있다. (가)의 청자인 고공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발화하여 공감의 확대를 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에서 화자는 ‘저 고공아’라고 부르며 청자에게 집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희네 일 아니하고’에서 청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가이가 머슴들이’라고 청자들을 불러 새 마음을 먹자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누가** (나)에서 화자는 집이 크게 기울 것에는 일을 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는 종의 탓도 있지만 ‘마노라(상전)’의 탓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노라’에게 ‘내 말씀 들으소서’라고 하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누가** (가)에서는 화자가 청자로 정한 고공을 호명하는데, 청자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고공에게 하는 화자의 말이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 ⑤ **누가** (나)의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는 (가)의 ‘새끼 꼬며 이르리라’에 대응하는 말로, (나)의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는 (가)의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에 대응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의 말은 (가)의 발화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와 (나)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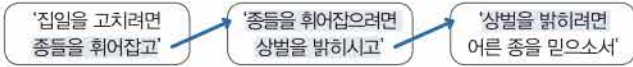
- ② **어떻게** [B]에서는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궂은지’,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고공(머슴)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듯’과 같은 표현은 머슴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서는 처음의 할아버지(조상)가 터를 닦아 집을 지어 살림을 일으키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어떻게** [C]에서는 ‘~어 ~(을) 누가 고쳐 ~’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가 새어 썩은 집’과 ‘옷 벗어 무너진 담’의 대응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작품 속의 문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④ **어떻게** [D]에서는 크게 기울 집의 ‘마노라’와 관련하여 ‘편하실 적 몇 날이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함으로써, 의논할 사람 없이 집에 대한 걱정을 혼자 도맡고 있는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어떻게** [E]에서는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라고 하며 앞 구절의 끝 부분을 이어

지는 구절에서 반복하여 받는 연쇄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자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연쇄법



4 답 ①

— | 보기 | 오래 보기 —

「고공담주인가」는 ...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

언제·어디서,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는 예전에는 살림이 이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 상황이 예전과 달리 황폐해진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마름'을 능욕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그릇된 재산 모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큰 집의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 할까'는 나랏일을 돌보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풀어헤치거니 땀거니, 혈뜯거니 뚱거니'는 당파를 결성하고 당파끼리 당쟁하는 모습을,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뵈는 것'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누가** '이 집'이 이렇게 된 것에는 '철없는 종'의 탓도 있지만 '마노라 탓'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휘

- **가세**: 집안의 운수나 살림살이 따위의 형세.
- **축적**: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 **간언**: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 **위계질서**: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차례와 순서.
- **당파**: 조선 시대에, 정치 세력 결집 단체였던 봉당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시 나뉜 파벌.

어떻게

13 말의 배열과 어법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문장 구조가 유사하고 대등한 의미를 지닌 구절을 짝지어 표현하는 방법을 대구법이라고 한다.
- (2) 말의 차례를 바꾸어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이끌어 내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한다.
- (3)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1) 도치법 (2) 시적 허용 (3) 대구법

이래서 정답

- (1) 서술어 '보고 싶다'가 목적어 '내 친구들'보다 먼저 제시되었으므로, 말의 차례가 바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머언'과 '날으는'은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비문법적인 표현이므로,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말은 ~가 듣고(듣는다)'와 같이 유사한 구절이 짝지어 배열되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는 서술어가 먼저 제시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목적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말의 차례가 바뀐 도치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ㄱ, ㄴ

이래서 정답

- ㄱ. '~가(나) 되어 ~에 ~고저'와 같이 유사한 구절이 짝지어 배열되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ㄴ. '~은 ~ 대로'라는 유사한 구절이 짝지어 배열되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에서는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한 어구가 짝지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구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② ㉠에서 '긴'을 '기-ㄴ'으로 제시한 것은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병든 학이었다.'와 '너는 날마다 야위어 가는'이 순서가 뒤바뀌어 제시되고 있으므로, 도치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6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ㄱ에서 '아이야'는 아이를 부르는 말로 돈호법이 나타나고, '하이얀'은 '하얀'의 비문법적 표현으로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 '아이야'와 '하이얀'에서 비슷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2) ㄴ에서는 '~은/는 어찌하여 ~에'와 같이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구절이 짝 지어 배열되어 있으므로, 대구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3) ㄷ에서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은 서술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쓰였으므로 도치법이 나타난 표현이다. 그리고 '내음새'는 '냄새'의 비문법적 표현이므로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 의도적: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
- 배열: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

바위

누가	바위처럼 살고 싶은 '나'
언제 어디서	바위를 떠돌리는 상황
무엇을	바위
어떻게	의인법, 대구법, 시적 허용
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를 노래함.

1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이 시에서 화자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화자는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누가**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④ **누가** 시적 대상인 바위에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뿐, 연민의 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화자가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다.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생명도 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경지로, 모든 것에 초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에서 '애련', '희로'와 같은 인간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누가** 화자가 바위에 비바람이 치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바위가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것으로 느낀 이유는 화자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 ③ **누가**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려는 것은 애련과 희로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에 초연해지고자 자신을 단련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⑤ **누가** 무언가를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망각했으니 굳이 소망하는 바를 노래로 드러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되고 싶거나 무엇을 알고

싶다는 조바심마저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리하지 않는 바위'는 자신의 몸이 두 쪽으로 깨지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해도 중요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화자가 이러한 바위처럼 되려는 것에서 일체의 감정을 초월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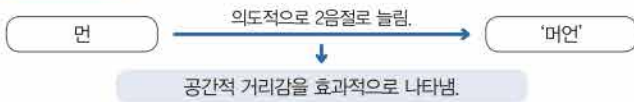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이 시에서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굴복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에서는 '억년', '비정', '함묵'과 같은 낯선 한자어와 관념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㉔에서는 '내 죽으면'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바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있다.
 ② **어떻게** ㉔에서는 '~에 ~지 않고'와 같은 문장 구조를 짝지어 반복하고 있다.
 ④ **어떻게** ㉔의 '머언'에서 시적 허용을, '머언'과 '원퇴'에서 동일한 의미의 중첩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어떻게** ㉔에서는 구체적인 자연물인 '바위'를 초극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시적 허용



⊕ 어휘

- **초연한**: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함.
- **동요**: 생각이나 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
- **중첩**: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

겨울밤의 꿈

누가	서민들의 일상을 보며 환상적인 장면을 상상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 겨울, 저녁부터 밤까지 • 서울
무엇을	연탄, 서민들의 꿈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반복법, 도치법
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소망을 노래함.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그날 밤 /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 꿈에 불 것이다.'가 먼저 제시되고, '날개에 산뜻빛 발톱을 달고 ~ 내려와 앉는 것을.'이 뒤에 제시되어 있다. 즉 문장의 서술어가 먼저 제시되고 목적어가 뒤에 제시되는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내려간다.', '불 것이다.'와 같은 평서형 문장은 나타나지만, 명령형 문장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어떻게** 이 시에서 감탄사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는지도 알 수 없다.
 ④ **누가** 이 시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가 나타날 뿐, 시적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어떻게** '데워 주고', '식후에 ~는 동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지만,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문해 공식 적용 도치법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이 시에서 화자는 연탄이 가난한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것을 보며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가난한 시민들이 사는 집 위에 내려와 앉는 환상적인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가난한 시민들이 '꿈(㉔)'에 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㉔은 화자의 비현실적인 상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무엇을** 화자는 가난한 시민들을 연민하고 있을 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③ **무엇을** 화자는 자신이 상상한 것을 가난한 시민들이 ㉔에

서 볼 것이라 한 것일 뿐, 화자와 시적 대상인 서민들이나 새가 ㉠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

- ④, ⑤ **무엇을** 시조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을 통해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평온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거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3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탄과 관련된 오래전 과거와 도시 사람들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어 ...

무엇을,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연탄가스에 그을린'은 서울의 겨울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호빛', '순금'은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연탄가스가 가난한 서민들의 삶과 피, 음식을 데워 주고 사람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연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연탄으로 '된장찌개'를 데우고, 식후에 '석간'을 읽고,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것은 도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화자가 '연탄가스'에서 '쥐라기의 지층'을 연상한 것은 연탄이 오래된 과거의 지층에서 비롯되었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 ⑤ **누가, 어떻게**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는 연탄과 연결되어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새가 서민들이 사는 집 위에 내려와 앉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

- **평온**: 조용하고 평안함.
- **연상**: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킴.

실전 13-C

본문 106~107

가 어부단가

누가	자연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화자(가어웅)
언제 어디서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강호(자연)
무엇을	자연에서의 삶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대구법, 설의법
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풍류와 한가로움을 노래함.

나 소유정가

누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나'
언제 어디서	• 가을, 저녁부터 밤까지 • 소유정 주변의 아촌
무엇을	자연에서의 삶과 풍류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계절적 이미지, 영탄법, 고사 인용
왜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을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날 뿐, 구도의 자세로 학문의 경지를 이루려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만경파', '천심 녹수', '만첩청산', '강호', '월백' 등은 자연을 의미하고, '인세', '심장 홍진'은 속세를 의미한다. 이렇듯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속세를 잊고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누가** 화자는 자연에 몰입하여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제4수>에서 화자는 속세의 시름을 잊고 자연과의 몰아일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가** 화자는 녹수와 청산, 흰 달, 구름과 갈매기 등 자연물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과 한가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떻게**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세계의 모습을 '천심 녹수', '만첩청산',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구 난다'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

무엇을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나)에서 '추풍'은 화자가 이를 받기며 어촌으로 놀이를 가게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풍'은 배의 귀항을 재촉하는 자연 현상으로서, 배를 빠르게 이동시켜 화자가 연인 배를 탄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을 뿐,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의 '십장 홍진'과 '인세'는 속세로, 화자인 '어부'가 벗어나려 하는 곳이다. 화자는 '십장 홍진'이 가려진 강호에서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뱃놀이를 즐기면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 ③ **무엇을**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작은 배를 말한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음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서 어부와 관련된 일부 행위, 즉 낚시로 잡은 고기들을 버들잎에 꿰어 놓는 행위가 나타나며, 이는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준다. (나)에서 '그물로' 고기를 '수없이 잡아 내어' 화와 술을 '실컷 먹은' 것은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을 연결하여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을 드러낸다.
- ⑤ **누가** (가)에서 화자인 '어부'가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한 것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화자는 구름과 갈매기를 쫓아 놀겠다면 홀로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는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어촌에서 함께 뱃놀이를 하며, 그 흥이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만큼이라며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B]에서 화자는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뜬 달이 강물에 비치자, 하늘의 달과 강물의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A]에서 달은 시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일 뿐, 화자가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자는 달이 하얗게 비추는 강호 자연에서 '무심'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달에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어떻게**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과 달밤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무엇을** [B]에서 화자는 '추월'이라고 하며 달을 통해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달의 특성이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무엇을**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다.

4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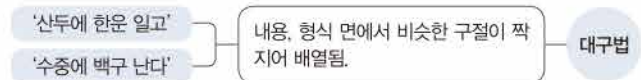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는 '아이'를 부르고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닳을 들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귀항하기 위해 배를 다시 움직이려는 것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은 '산두에 한운 일고'와 '수중에 백구 난다'가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산, 구름, 물, 갈매기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통해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누가** ㉠에서 화자는 자연 경물인 '한운(구름)'과 '백구(갈매기)'를 '너'로 지칭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한다. 즉 화자가 자연물과 관계를 맺고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어떻게** ㉠은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이 진 하늘에 눈처럼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떻게** ㉠에서 화자는 과거 인물인 소식(소동파)이 강(적벽)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일을 언급하며, 그의 놀이도 자신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뱃놀이를 실컷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대구법



➤ 어휘

- **은거**: ①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②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던 일.
- **구도**: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함.
- **만경파**: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 **자긍심**: 스스로에게 긍지(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를 가지는 마음.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비교법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내용을 견주어 한쪽을 더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 (2)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방법은 과장법이다.
- (3)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대조법이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화자와 임 사이 거리를 '천만리 머나먼 길'과 같이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입과 멀리 떨어진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2) '강낭콩 꽃'과 '물결', '양귀비꽃'과 '마음'의 비교를 통해 '물결'과 '마음'의 속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 (3) 곁이 희고 속이 검은 '백로'를 걸은 겹지만 속은 겹지 않은 '가마귀'와 대조함으로써 '백로'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확인 3 답 ㉢

이래서 정답

- ㉢ '천 리'나 되는 먼 거리의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다고 하며 임을 그리는 화자의 마음을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 화자의 상황을 담담히 제시할 뿐,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사나이가 우물 속에 비치는 모습을 추억과 같다고 표현한 것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1) 사립문, 세속 사람 (2) 비교법

이래서 정답

- (1) '하루 종일 말하는 듯 ~ 세속 사람보다 낯구나'로 보아 화자는 '사립문'을 긍정적 대상으로, '세속 사람'을 부정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립문이 세속 사람보다 낯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2) '~보다 낯구나'와 같이 비교하는 말을 통해 하루 종일 말하는 듯 소리를 내는 '사립문'과 윤치가 없는 '세속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

확인 5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보기〉의 화자는 꿈속에서 백옥경에 가 옥황과 군선을 만나고 있다. 이때 옥황은 화자를 반기고 화자를 향해 웃지만, 군선은 이와 반대로 화자를 꺼리고 꾸짖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화자에 대한 둘의 태도는 서로 반대된다 고 할 수 있다.
- (2) 옥황과 군선의 서로 반대되는 태도를 내세워서 상황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조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 **선명하게**: 신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비판**: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 **세속**: 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 **사립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 **윤치**: 고상하고 우아한 멋.
- **꺼리고**: 사물이나 일 따위가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고.

관동별곡

누가	관동의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일대를 유람하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금강산 일대, 관동팔경
무엇을	금강산 일대, 관동팔경
어떻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대구법, 비교법, 영탄법, 고사 인용
왜	관동팔경의 유람을 통해 느낀 우국지정과 애민 정신을 노래함.

1 답 ③

❶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은 험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살려 내어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선정에 대한 내면적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❷ 왜 오답

- ① **누가** '봉마다 맺혀 있고 ~ 맑지 말거나' 등에서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해 화자가 삶의 이치를 깨닫는 부분은 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누가** 화자와 다른 대상 간의 갈등 관계나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누가**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뿐, 비판적인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누가**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맺혀 있는 기운을 흠뻑 내어 '인걸'을 만들고자 하고, '삼일우'를 내려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살려 내고자 하는 등,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은 험벗고 굶주린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④

❶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높은 비로봉을 보며 공자의 학문적(정신적) 경지를 떠올릴 뿐, 비로봉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❷ 왜 오답

- ① **어떻게** '작단 말인고', '알 것인고'와 같은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대한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어떻게** 비로봉의 높은 차태를 보며 중국의 동산과 태산을 떠올린 화자는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고'와 같이 말하며 봉우리의 높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뚝 솟은 비로봉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어떻게** 감탄사 '어와'를 사용함으로써 노나라와 천하가 작다고 말한 공자의 높은 경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떻게** '~이 ~고'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비교법



3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관동별곡」은 작가가 기행하면서 자연 경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의식을 자연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왜, 어떻게

❶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④에는 금강산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흠뻑 내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④에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나랏일을 걱정하고 백성을 보살피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③, ④, ⑤ **무엇을** ①에서는 비로봉을 본 화자가 중국의 동산과 태산을 연상하며 그 높이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⑤는 사자봉 앞에 있는 연못인 '화룡소'를 언급한 것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

+ 어휘

- **선정**: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
- **이치**: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 **경지**: 몸이나 마음. 기술 따위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 **자태**: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사람의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 **기행**: 여행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것.

시집살이 노래

누가	근친 온 사촌 형님을 맞은 사촌 동생, 시집살이에 지친 사촌 형님
언제 어디서	분고개
무엇을	형님의 시집살이
어떻게	4음보, 직유법, 은유법, 반복법, 열거법, 대구법, 비교법, 대조법, 과장법, 자문자답, 설의법, 언어유희
왜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과 체념을 노래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화자(사촌 형님)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고된 집안일과 시집 식구들의 성격을 예로 들어 나열함으로써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화자는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감탄과 반성의 어조는 교차되고 있지 않다.
- ③ **어떻게** 이 작품은 처음과 끝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어떻게** 시선의 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어떻게** 외부 세계와 내면세계를 대비하는 부분이나,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시집살이 어쩔땀까.’라는 사촌 동생의 물음에 화자(사촌 형님)는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유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어떻게** ㉠에서 화자는 ‘오 리’, ‘십 리’, ‘아홉 술’, ‘열두 방’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무엇을** ㉡에서 화자는 ‘시아버니’, ‘시아머니’, ‘동세’, ‘시누’, ‘시아지비’, ‘남편’을 일일이 지목하여 각각의 성격이나 특징을 새에 비유하면서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무엇을** ㉢의 ‘귀먹어서’, ‘눈 어두워’, ‘말 못해서’를 통해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도 참아야 되는 등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하여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무엇을, 어떻게** ㉣에서 화자는 결혼 전 ‘배꽃’같이 아름다웠던 얼굴이 결혼 후 시집살이로 ‘호박꽃’이 되었다고 하는 등 결혼으로 인한 자신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과장법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왜** 화자(사촌 형님)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촌 동생이 이런 화자를 위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외나 무다리 어렵대야 ~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등에서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언제 어디서** ‘귀먹어서 삼 년이요 ~ 말 못해서 삼 년이요’는 며느리에게 요구되었던 처세로,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에 따른 폐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동글동글 수박 식기 ~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찼어다가’, ‘열새 무명 ~ 다 젖었네.’ 등에서 비슷한 구조의 어구를 짝 지음으로써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그로 인한 한탄이 리듬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 ④ **누가** ‘형님 온다 ~ 시집살이 어쩔땀까.’는 사촌 동생의 말이고, ‘이에 이에 그말 마라’에서부터는 그에 대한 사촌 형님의 대답으로, 두 화자 간의 대화가 직접 인용됨으로써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대화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어휘

- **규정**: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유보**: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둌.

가 유리창 I

누가	유리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밤 • 유리창 앞
무엇을	유리창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역설법, 영탄법
왜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함.

나 삭주 구성

누가	삭주 구성(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삭주 구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
무엇을	삭주 구성(고향)
어떻게	객관적 상관물, 반복법, 대구법
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다 승인

누가	그대를 보내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비 개인 날 • 남포, 대동강
무엇을	임과의 이별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도치법, 과장법, 설의법
왜	임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함.

1 답 ③

㉠ 아래서 정답

- ③ **누가** (가)의 '차고 슬픈 것', '물 먹은 별', '산새'는 죽은 아이의 모습을 나타낸 시어로, 이 시에서는 어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화자의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나)는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상실의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다)에서는 이별로 사랑하는 임을 상실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난다.

㉡ 왜 오답

- ① **왜** (가)~(다)의 화자는 모두 상실로 인한 부정적 현실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왜** (가)~(다)의 화자 모두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⑤ **누가, 왜** (가)~(다)의 화자는 모두 상실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내적 갈등의 해소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 또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④

㉠ 아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어떻게** (가)의 '산새'는 화자의 죽은 자식을 비유하는 대상으로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나)의 '제비'는 물에 젖어 지향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산새'는 화자 자신이 아닌 화자의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무엇을** (가)의 '산새'는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존재로 이승에 있는 화자와 달리 저승에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비될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제비'는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존재이므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없으며 화자와 대비되지도 않는다.
 ③ **무엇을** '산새'와 '제비'는 모두 화자의 정서와 상황을 나타내는 대상이며 (가)와 (나)에서 화자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무엇을** (나)의 '제비'는 가려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절망적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의 '산새'는 화자의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상실감을 나타내므로 희망적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3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누가** 화자가 유리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유리창 밖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없으며 화자가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 또한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② **누가** '지우고 보'는 행위의 반복은 유리창에 비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기 위한 화자의 행동으로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③ **어떻게** '물먹은 별'은 화자 눈에 비친 죽은 아이 또는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눈물 고인 눈을 뜻하는 것으로,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화자의 심정을 시각화하고 있다.
 ④ **어떻게** 화자는 죽은 아이가 산새처럼 날아 갔다고 표현하여 자신의 품을 떠나 버린 자식과 그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어떻게** 화자는 죽은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이미지로나마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황홀함을 느끼고 있

다. 이러한 모순된 심리를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4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풀빛'과 '푸른 물결'에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에 대조되는 다른 색채는 찾을 수 없으므로 색채의 대조를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풀빛이 푸른데', '푸른 물결'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슬픈 노래 부르네'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어떻게** 비 갠 긴 언덕 및 대동강의 모습(서정)과 입을 보내고 화자가 느끼는 슬픔(서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언제 어디서** '남포', '대동강'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서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5 답 ②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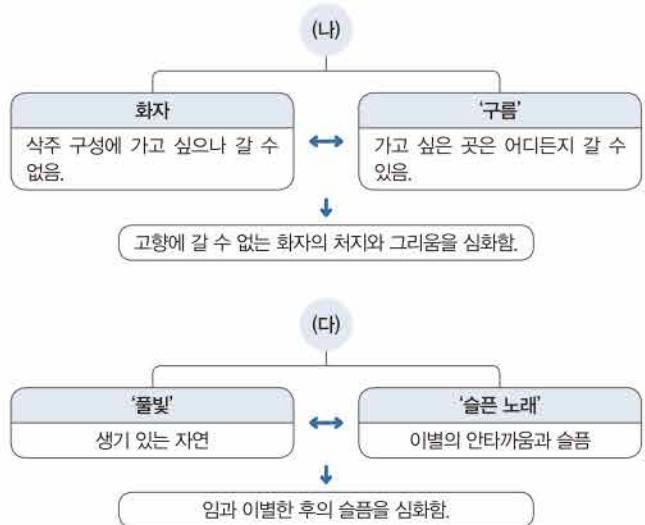
- ② **언제 어디서, 무엇을** '서로 떠난 몸이길래 ~ 곳이 그리워'를 통해 '삭주 구성(㉞)'이 (나)의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리움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대립되는 부정적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화자가 '유리(㉠)'를 통해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를 소통의 매개체로 볼 수 있으며 ㉠가 유리창 안(이승)과 유리창 밖(저승)의 경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단절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 ③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삭주 구성까지의 실제 거리는 '산을 넘는 육천 리'이지만, '꿈(㉡)'에서는 '사오천 리'로, 화자가 ㉡에서의 거리감을 현실에서의 거리감보다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가 소망이 실현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어떻게**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를 통해 '구름(㉣)'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어떻게** 생기 있는 자연을 나타내는 '풀빛(㉢)'은 이별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슬픈 노래'와 대비되어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대조법



6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를 통해 꿈속에서는 삭주 구성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이 현실의 '육천 리'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C]에서 화자와 삭주 구성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물로 사흘 배 사흘'은 삭주 구성까지 가는 거리를 나타낸 시구로 삭주 구성이 먼 곳에 있어 쉽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어떻게** '높은 산'은 화자가 삭주 구성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 '높은 산'을 반복하여 삭주 구성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무엇을**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를 통해 사랑하는 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삭주 구성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존재로 삭주 구성에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 어휘

- **상설**: 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② 어떤 것이 아주 없어 지거나 사라짐.
- **분신**: 하나의 주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
- **매개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주는 것.

확인 1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법은 역설법이 아닌 반어법이다.
- (2) 겉으로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는 방법은 반어법이 아닌 역설법이다.

확인 2 답 (1) 반어법 (2) 역설법

이래서 정답

- (1) 못한 사람에게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못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의도와 반대로 말하여 전하려는 바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어법이 사용된 예이다.
- (2) ‘작다’와 ‘몸이 아주 큰 사람’을 의미하는 ‘거인’을 함께 쓴 ‘작은 거인’이란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 논리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외양은 작지만 내면의 됴됨이가 큰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된 예이다.

확인 3 답 (1) 찬란한 슬픔의 봄 (2) 역설법

이래서 정답

- (1) ‘찬란한 슬픔의 봄’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의 ‘찬란함’과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의 ‘슬픔’을 함께 배치하여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 ‘찬란함’과 ‘슬픔’을 함께 배치해 겉으로 논리에 맞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역설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허 내 서방 삼고라자’를 통해 화자가 ‘흰옷 입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밧고도 알미워라’는 화자가 반어법을 사용해 흰옷 입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인 5 답 역설법

이래서 정답

ㄱ은 임이 갔다는 말과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결합하여 모순되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ㄴ은 단단하

고 차가운 이미지의 강철과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를 결합하여 모순되므로 역설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ㄷ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상황에서 노랫가락이 들린다고 하여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에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확인 6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에서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은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역설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은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반어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화자를 향한 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어휘

- 강화: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정석가

누가	사랑, 태평성대에 대해 말하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가상의 상황
무엇을	임(임금)을 향한 화자의 마음
어떻게	3음보, 후렴구, 반복법, 대구법, 과장법, 역설법, 반어법, 설의법
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태평성대의 기원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마지막 연의 '천년을 외파로 살아간들'에서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살아간다는 과장적 상황을 제시하며 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말의 차례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인 어순의 도치는 찾을 수 없다.
 ③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대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누가** '딩아 돌하'에서 대상을 부르는 돈호법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화를 나누는 형식은 찾을 수 없다.
 ⑤ **어떻게**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본사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동일한 발상의 기법을 쓰면서도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별하겠다고 표현하여 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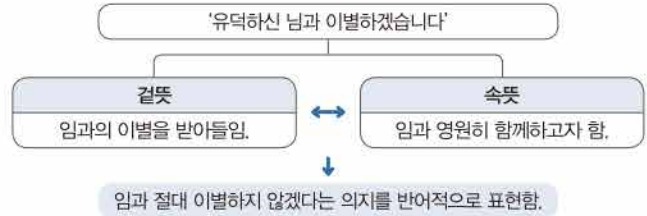
왜 오답

- ① **왜**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의 서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왕성대'는 평화로운 시절을 의미하므로 1연의 '선왕성대에 살고 싶습니다'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③ **어떻게** 2연에서는 구운 밤에서 싹이 나고, 3연에서는 옥으로 만든 연꽃에서 꽃이 피어나며, 4연에서는 무쇠 옷이 모두 헐고, 5연에서는 무쇠 황소가 철로 된 풀을 먹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발상의 기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싹이 난다면'과 '피어난다면'은 새 생명의 시작, 즉 생성을 의미하고, '헐게 된다면'과 '먹어야'는 무쇠로 재단한 철릭과 철초의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성과 소멸의 대칭 관계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무엇을** '끈'은 사랑과 믿음 또는 군신 간의 충의를 상징한다. 화자는 끈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여 대상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반어법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를 담은 노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은 천년을 따로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믿음'과 대응된다. 따라서 ㉠을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즉 '군신 간의 충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② **무엇을** '바위(㉠)'는 구슬을 부서지게 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시련과 장애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떨어진들(㉢)'은 이별과 시련 등의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의미와 가깝다고 볼 수 없다.
 ④, ⑤ **무엇을** '천년(㉣)'을 '외파로(㉤)' 살아가는 것은 임과 화자 사이의 이별, 시련 등을 의미하므로, ㉠의 의미와 가깝다고 볼 수 없다.

어휘

- **어순**: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 **소멸**: 사라져 없어짐.
- **충의**: 충성과 절의(절개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낙화

누가	떨어지는 꽃을 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여름과 가을을 향해 가는 봄의 막바지
무엇을	낙화(이별)
어떻게	의인법, 직유법, 도치법, 역설법, 영탄법
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을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왜** 화자는 '낙화'라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즉, '낙화'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듯 사람 또한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화자는 결별을 통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별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낙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비판적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언제·어디서** '봄 한철', '가을을 향하여' 등에서 시간과 계절에 관한 배경은 찾을 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이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누가** '낙화'와 '이별'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화자가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자연의 섭리인 낙화를 통해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화자가 안빈낙도를 지향하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2 답 ②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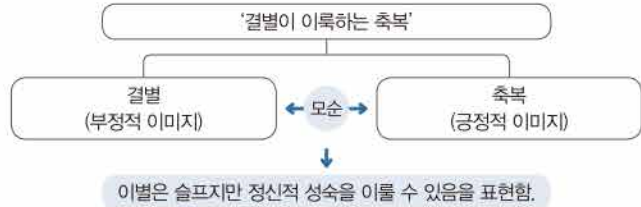
- ② **언제·어디서** 이 시에서 봄에 피는 꽃은 '사랑', 꽃이 지는 것은 '이별', 꽃이 지고 난 후 열매가 맺는 것은 '영혼의 성숙'을 의미한다. 이때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지나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한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화자의 아픔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점에서 '낙화'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낙화가 결실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인 '결별'과 모순되는 '축복'을 함께 사용하여 이별이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는 숨은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어떻게** 6연에서 화자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헤어지자는 말을 첫 행에 배치해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왜** 이 시의 화자는 '낙화'를 통해 '열매'가 열리듯 '이별'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역설법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화자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열리듯 인간의 삶도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하룻하룻'은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꽃잎이 흔들리며 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무엇을** '가는 이'는 낙화를 빗댄 표현으로,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순응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가는 이'를 원망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슬픈 눈'은 아픈 이별을 통해 성숙한 화자의 영혼을 비유하는 말이므로 '가는 이'의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섬세한 '손길'을 흔들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부분은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대상과의 거리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 어휘

- **성숙**: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 **배치**: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
- **정적**: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가 새

누가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더운 여름날 • 산맥과 하늘이 보이는 곳
무엇을	새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역설법, 영탄법, 시적 허용, 명사로 시행 종결
왜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절망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노래함.

나 만흥

누가	산속에서 살아가는 '나'
언제 어디서	산속
무엇을	자연 속에서의 삶
어떻게	대유법, 대조법, 설의법
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를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1연의 '청청한 하늘 ~ 왜 날 울리나'와 '무인 이 가 습'이 5연에서도 변주·반복되는 것을 통해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자유를 향한 화자의 갈망을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하늘과 구름, 산맥과 날아가는 새를 보며 자신을 올린다고 묘사하는 것을 보아 화자는 주관적 시각으로 대상을 해석하고 있다.
- ② **어떻게** '여름날', '낮'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는 찾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뚜렷한 시간 경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누가** 억압되어 있는 처지를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의 모습은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영탄적 어조로 드러낼 뿐, 단정적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누가** 화자는 흰 구름과 눈부신 산맥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며 그와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할 뿐,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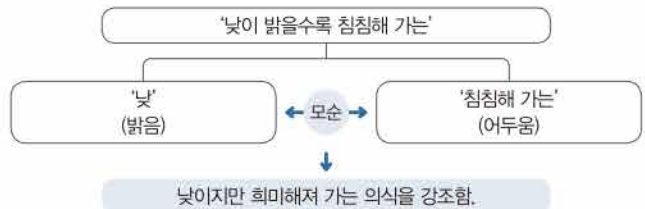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진다는 의미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으로 방어적 표현이나 자조적 태도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의 '날으는'은 어법상 '나는'으로 써야 하는 것을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것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된다.
- ② **어떻게** ㉡에서 '낮이 밝을수록' 어두컴컴해져서 '침침해'간다는 것은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이고 슬픈 복잡한 심경을 느낄 수 있다.
- ④ **어떻게** ㉢에서 '만승', 즉 천자의 처지가 자신의 삶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떻게** ㉣의 '내 분으로 누었느냐'는 설의적 표현으로 강산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분수로는 누울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역설법



3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말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

언제 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화자가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통해 '그 남은 여남은 일'이 자연 속 삶과 대조되는 세속적 현실이나 욕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 현실과 관련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쇄동에서 자연을 즐기는 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산수간'은 금쇄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보기>에서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는 것으로 보아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으로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보기>에서 윤선도가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부터 자연에서 은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나)에서 '먼

되'가 임보다 반갑다고 한 것을 볼 때, 자연은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윤선도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고 했으므로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청쟁과 같은 다툼이나 시비가 일어나는 현실과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4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4연은 화자의 선망의 대상인 새가 떠나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❶ 왜 오답

- ① **무엇을** '날아가는 새'는 묶여 있는 화자와 달리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새가 있는 '하늘', '구름', '산'을 원경으로 표현하여 화자와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언제-어디서** 1연은 날아가는 새를 보며 자유를 꿈꾸는 상황을 나타내지만 2연은 자유가 억압된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연의 암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1연보다 화면을 어둡게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언제-어디서** 3연에서 화자는 땅을 기고, 서러운 눈을 하고 있으며 사슬 소리를 듣는 등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고 효과음을 삽입해 비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누가** '새'와 '구름'은 화자와 달리 어떤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대상의 자유로움을 시각화하는 표현이 필요하므로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법은 적절하다.

5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 이때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자연은 세속적 이익과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이자 안빈낙도의 공간이었다. ...

언제-어디서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비길 곳이 없어라'에서 화자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속세와 자연으로, 자연 속의 삶이 속세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길 곳이 없어라'는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 현실이 혼탁하

다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아니다.

❶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화자가 산속에서 '떠집'을 짓고 살려는 것을 보아 '떠집'을 자연 속 화자의 거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윤선도는 유배 생활 후 금쇄동에서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였다고 했으므로 '떠집'은 유배 생활을 끝내고 지냈던 삶의 공간으로 보기에 적절하다.
- ② **무엇을** '보리밥 쫄나물'은 자연 속에서 화자가 먹는 음식으로 그가 검소하면서도 청빈한 삶을 추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로 보기에 적절하다.
- ③ **누가** '그 남은 여남을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에서 '여남은 일'은 벼슬살이 등의 세속적 일을 뜻한다. 화자는 설의법을 사용해 세속적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누가, 무엇을**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었느냐'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삶이 온전히 자신의 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하고 있으므로, 자연 속에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대응**: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
- **경과**: 시간이 지나감.
- **자조적**: 자기를 비웃는 듯한 것.
- **탄핵**: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 **정쟁**: 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 **선망**: 부러워하여 바램.
- **포착**: ① 꼭 붙잡음. ②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16 문장의 형식

확인 1 답 (1) 자문자답 (2) 돈호법 (3) 설의법 (4) 영탄법

◎ **이래서 정답**

- (1)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를 구성하는 표현 방법이다.
- (2) 돈호법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이다.
- (3)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 (4)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 조사,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통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확인 2 답 (1) 영 (2) 영 (3) 설

◎ **이래서 정답**

- (1) 감탄사 '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에 대한 그 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2)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애달픈 마음을 '-구나'라는 감탄 형 종결 어미를 통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3) 의문형 종결 어미로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여 대화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서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영탄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②, ③ 호격 조사 '아'를 사용하여 대상을 부르고 있으므로, 돈호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의문형 종결 어미 '-르쏘냐'와 '-랴'를 사용하여 강산에 사는 삶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설의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확인 5 답 ㄱ

◎ **이래서 정답**

- ㄱ.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묻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자신은 무릉도원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자문자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16-A

본문 122~123

가 초록 기쁨-봄 숲에서

누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나'
언제 어디서	• 봄, 한낮 • 숲
무엇을	자연(해, 하늘, 나무, 꽃, 흙 등)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의인법, 반복법, 도치법, 돈호법, 영탄법
왜	봄날에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나 오월

누가	마을을 보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봄 • 마을
무엇을	마을의 풍경
어떻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 반복법, 돈호법
왜	오월에 느끼는 봄날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노래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가)는 해가 풀숲에 내리쬘는 모습을 '초록과 꽃들 에게 / 웃는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산봉우리가 푸르게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왜** (가)는 '해', '하늘', '흙'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 등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어떻게** (가), (나) 모두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킨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어떻게**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왜** (가), (나) 모두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합일되지 못한 인간의 고독감은 찾기 어렵다.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가)에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반대가 되도록 표현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는 반어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4연에서 '향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어떻게**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하늘의, 향기' 등에서 문장 부호(쉼표)를 활용해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어떻게** 해의 출렁거리는 빛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흙, 하늘, 나무들의 향기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어떻게** 감탄의 뜻이 담긴 조사, 감탄사, 감탄 부호인 느낌표를 사용하여 봄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영탄법



3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해(㉠)'와 '산봉우리(㉡)' 모두 화자가 객관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한 대상이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의 화자가 지난 삶을 떠올리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화자는 ㉠를 통해 현재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무엇을** ㉠는 화자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대상으로, 관찰하는 대상과 화자가 동일시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무엇을** 화자는 ㉡를 보며 느낀 감정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무엇을** 마을의 들길에 해가 들고 있는 모습을 들길이 붉어지고 있다고 한 것을 보아 화자가 ㉡를 관찰한 시간이 낮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 하늘, 나무, 꽃, 흙 등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나)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에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린다는 것은 흙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행동의 주체는 흙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은 나무와 꽃에 햇빛이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에 비유해 나타낸 것이다.
- ③ **어떻게** ㉡에서는 '~같은'을 사용한 직유법을 통해 향기가 코로 전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떻게** ㉢은 색채 대비를 통해 들길을 붉은색으로, 들판을 푸른색으로 나타내어 마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무엇을** ㉣은 이랑 사이 곳곳에 햇빛이 비취 반짝이는 모습을 이랑에 햇빛이 갈라지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 어휘

- 교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동일시: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봄.

가 광야

누가	조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색하는 '나'
언제 어디서	• 눈 내리는 지금(일제 강점기) • 광야
무엇을	조국의 상황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의인법,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설의법
왜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희생 의지를 노래함.

나 울타리 밖

누가	고향 마을의 풍경을 떠올리는 화자
언제 어디서	고향 마을
무엇을	고향 마을의 풍경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반복법, 열거법
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C]는 꽃이 피었다 지며 순환하듯 수많은 계절이 흘러 역사와 문명이 시작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C]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꽃이 피고 지는 현상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이지, 광야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하늘이 처음 열린 태초의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어떻게** 산맥을 인격화하여 바다를 연모하는 존재로 나타내었고, 그러한 산맥도 광야를 범하진 못하였을 거라고 하며 광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소녀의 머리를 마늘쪽에 비유하고 한여름에 벌거벗고 지내는 소년의 모습을 묘사하며,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어떻게** '아지랑이가 피듯 ~ 물이 흐르듯'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설의법

물음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의미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생명의 기척도 없는 천지개벽의 상황을 강조함.			

2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미래에 백마 타고 올 '초인(㉠)'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민족의 이상을 실현시킬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마을의 울타리 밖에도 심는 '화초(㉡)'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을 통해 화자가 성찰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 ② **무엇을** ㉠은 눈이 내리는 지금의 시련을 극복한 후에 찾아오는 대상이므로 공간의 황폐함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방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무엇을** ㉠은 화자가 긍정적인 미래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존재이므로, 화자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것은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작품의 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은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긍정적 이미지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무엇을** ㉢은 시적 상황을 드러낼 뿐 ㉢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무엇을** 화자가 ㉢에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 ⑤ **무엇을** ㉢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소재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4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의 회귀 대신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공간을 훼손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

누가, 언제 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희

망을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 왜 오답

- ② **누가** 〈보기〉에 따르면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려는 것은 눈이 내리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 결핍을 인식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누가** 〈보기〉에 따르면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화자는 과거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의 '소녀'와 '소년', '들길'이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나)의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고향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마을'을 '잔광'이 부시고 '별'이 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나)의 화자가 마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보기〉에 따르면 과거 지향성을 가진 화자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에서 사용된 현재 시제는 마을의 모습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 태초: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 성찰: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
- 위화감: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가 별사미인곡

누가	각시님에게 말을 하는 '나'
언제 어디서	임금과 멀리 떨어진 곳
무엇을	임(임금)
어떻게	반복법, 설의법, 돈호법,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모방
왜	연군지정을 노래함.

나 님으랴 회양 금성~

누가	임과 함께하고 싶은 '나'
언제 어디서	회양 금성(오늘날의 강원도)
무엇을	임(임금)
어떻게	은유법, 직유법, 설의법
왜	연군지정을 노래함.

1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가)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임금을 곁에서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임과 떨어진 상황으로, 연군지정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가)의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에서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누가** (나)에서 화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부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누가**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은 찾기 어렵다.
- ⑤ **누가** (가)의 화자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도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찾을 수 없다.

2 답 ④

㉠ 아래서 정답

- ④ **누가** [A]의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부족한 외모와 행동을 한탄하고 있고,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가'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재주를 한탄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A]의 앞에서 '원앙침 비취금에 뵈서 본 적 전혀 없네'라고 한 것을 통해 화자가 임과 만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밝힌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누가** '내 팔자 그만 하니 사람을 원망할가'로 보아 화자는 자신이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과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부용화 옷을 짓고 ~ 사람을 원망할가'에서 화자가 정성을 담아 옷과 주머니를 만들어 임을 섬기려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누가** 화자가 풍류를 즐기려는 부분이나 성현의 가르침 사에서 고뇌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㉔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곳이 없다고 한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각시의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㉑에서 화자는 대상을 부르는 말 '이보소'를 사용하여 각시님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누가** ㉒은 인연이나 이별이 한가지로 같을 수 없다는 의미로, 그 상황은 각자 다르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누가** ㉓에서 임을 모셔 본 적이 없다는 부분은 임을 모셔던 '저 각시'의 상황과 달리 임의 곁에 있어 보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누가** ㉔은 죽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돈호법

대상을 부르는 말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말인 '이보소'를 사용하여 주의를 불러일으킴.
--------------------------------------	---	---

4 답 ④

[보기 | 오래 보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

누가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가)의 '해 다 저문 날'은 화자가 아닌 '저 각시'가 임과 이별한 시간을 의미하며, (나)의 '동 섯달'은 화자와 임 사이에 시련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둘 다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가)의 화자가 차라리 죽은 후 '구름'이 되어 임이 계신 곳을 덮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구름'은 임에게 갈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나)의 화자는 임은 '회양 금성의 오리나무'가 되고 자신은 '삼사월 칠녕쿨'이 되어 서로 감겨 함께 있고 싶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삼사월 칠녕쿨'은 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화자가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나)의 화자는 임과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오리나무'와 '칠녕쿨'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거미가 나비를 거미줄로 꿰뚫어 감듯이 '오리나무'가 된 임과 '칠녕쿨'이 된 자신이 빈틈없이 붙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 ⑤ **무엇을** (가)의 '바람'은 임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 화자가 되고 싶은 존재이며, (나)의 '오리나무'는 화자가 임과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임이 변신하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 어휘

- **풍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 **굳건하게**: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게.

확인 1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그는 임에게 '뿔버들'을 보내고 자신의 생각을 해 달라고 하며 임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그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여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ㄱ~ㄷ에는 공통적으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드러나고 있다. ㄱ은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자세와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ㄴ은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ㄷ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확인 3 답 (1) 고향 (2) 비애감

이래서 정답

- (1)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산팽', '뺨꾸기', '하늘'은 변함이 없지만,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난다는 것을 통해 '고향'이 변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2)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에서 화자가 '고향'이 변해 버린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제6수>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 광명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에서 '달'의 광명을,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에서 '달'의 과묵함을 예찬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수석', '송죽', '달'을 자신의 '벗'이라고 소개하며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그칠 일 없는 것은 '물'뿐이라고 하며 '물'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다.

황계사

누가	이별한 임을 기다리는 '나'
언제 어디서	가을밤
무엇을	사랑하는 임
어떻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후렴구, 여음구, 열거법, 설의법, 고전 소설 「구운몽」 인용
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에서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 뒤에 이어지는 '개가 짖어 못 오는가',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등에서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고전 소설 「구운몽」이 인용된 '육관대사 성진이 ~ 희롱한다'에서 환상적 공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누가 '저 달아 보느냐', '이 아해야 말 듣소', '어데를 가고 서 네 아니 오더냐' 등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 사람의 화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떻게 이 작품에서 말장난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인 언어유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누가 이 작품은 명령형 어조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황계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왜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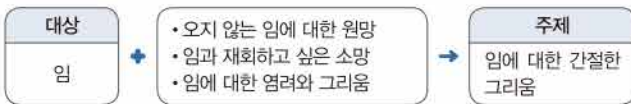
- ③ 누가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산이 높아 못 오던가'에서 화자는 '물이 깊고 '산'이 높아 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추측하고 있다. 이는 임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임이 화자를 떠난 이유로는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를 통해 화자가 임과 이별하였고 이별 후 임의 소식이 갑자기 끊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에서 이별 후 찾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병풍에 그려진 수탉이 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야만 돌아올 것이냐고 묻는 데서 화자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누가** '너란 죽어 ~ 동덩실 떠서 노자'를 통해 죽어서라도 입과 다시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사랑_입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달(㉠)'은 입이 계신 곳을 비춰 주는 존재로, 화자는 자신도 입을 보게 해 달라는 소망을 ㉠에게 빌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이 화자에게 행동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무엇을** ㉠은 화자와 다르게 입을 볼 수 있으므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무엇을** ㉠은 화자가 입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재이므로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은 화자가 입을 보기 위해 말을 거는 대상일 뿐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어휘

- **희롱**: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 **유도**: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실전 17-B

본문 135

매호별곡

누가	자연 속에서 사는 '나'
언제 어디서	• 낮부터 밤까지 • 자연
무엇을	자연 속의 삶
어떻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열거법, 대구법, 설의법
왜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과 안빈낙도를 노래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은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살다가 늙어 죽어도 좋다는 의미로, 자연 속에서 사는 현재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속세에 있던 과거의 삶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 ㉠의 '공명부귀'는 속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명부귀'를 구하는 것에 재주가 없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속세의 가치를 구하는 것에 능력이 없는 자신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② **언제-어디서** ㉠의 '빈천 기한'은 가난한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빈천 기한'을 평생 겪었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누가** ㉠은 자연 속 화자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 속 존재인 '백구'를 벗으로 삼겠다는 것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④ **누가** ㉠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서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매호별곡」은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사대부 가사이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왜,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안중에 티끌'은 대상이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화자는 '망망 속물은 안중에 티끌이로다'를 통해 속세가 자신이 있는 자연과 멀리 떨어져 있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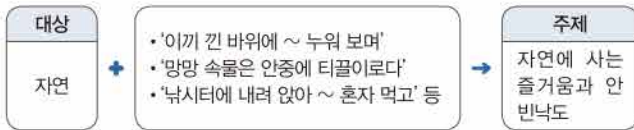
왜 오답

- ① **어떻게** 화자는 '~을 어이 알며', '~을 어이 알까'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변주하여 속세를 나타내는 '영육'과

‘출척’을 모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왜** 화자는 ‘이끼 낀 바위’, ‘그늘진 송근’ 등의 자연물에 앉아 보고 누워 보는 행동을 하며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어떻게** ‘만강 풍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말하는 데,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을 배에 실어 온다고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⑤ **어떻게** ‘걸린 것이 무엇이랴’에서 화자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연을 거침없이 누리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사랑_자연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산수에 벽이 있어 우연히 들어오니’를 통해 화자가 평소 ‘산수(㉠)’, 즉 자연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실현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부귀공명 잊었거니’를 통해 ㉠에서 살며 속세의 가치를 잊은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는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⑤ **언제-어디서** ‘백구를 벗을 삼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록 혼자 먹고’, ‘만강 풍류를 ~ 걸린 것이 무엇이랴’ 등을 통해 ㉠에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는 괴로운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연 속에서의 불만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언제-어디서** ‘두어라 이령성그러 종로한들 어이하리’를 통해 ㉠에서의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현실로 복귀하기를 염원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 어휘

- 복귀: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

가 하나씩의 별

누가	화물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나’(우리)
언제 어디서	• 밤(광복 후) • 화물 열차
무엇을	화물 열차에서 보는 별,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
어떻게	수미상관, 감각적 이미지, 반복법, 열거법
왜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기대감을 노래함.

나 갈구령달

누가	갈구령달을 보는 화자(우리)
언제 어디서	• 저녁노을이 지는 때 • 오르막 위
무엇을	갈구령달
어떻게	비유법, 반복법, 대구법, 생략법
왜	과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가)는 ‘~ 사람들과’를 반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다양한 유랑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지금쯤 ~ 시간……’, ‘아무도 ~ 주지 않는 ~로’, ‘~ 걸렸 구나’를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어떻게** (가)는 유랑민들의 힘겨운 삶에서, (나)는 오고 갈 곳이 없는 화자의 고달픈 처지에서 애상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하강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어떻게** (가)와 (나) 모두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가)와 (나) 모두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도 찾을 수 없다.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A]는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를 타고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골짜 골짜’는 유랑민들이 고국을 떠날 때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서럽게 내다보던 것으로, 고향을 떠나는 유랑민들의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거리거리’는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때 보

- 있던 풍경으로, 화자의 변화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무엇을** '이민 열차'를 서러움이 많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이민 열차에는 서러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민 열차'가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흐린 창'은 고향을 떠나는 유랑민들의 슬픈 심정을 나타내므로 시적 분위기와 대비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무엇을** '사람들'은 화물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존재로, 이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은 찾을 수 없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하나씩의 별(㉠)'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삶과 미래에 대한 유랑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의미한다. '갈구렁달(㉡)'은 고된 삶에 시들고 찌든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고단한 사람들의 한탄과 자기 연민을 환기한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은 유랑민들의 희망을 상징하지만, ㉡는 화자의 힘겹고 고단한 처지를 비유하는 대상이므로 생명력을 일깨우는 존재라 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가지는 희망을 나타내고, ㉡는 미래가 아닌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무엇을** ㉠과 ㉡ 모두 화자가 현실 상황에서 마주하는 것으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무엇을** ㉠과 ㉡ 모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와 관련이 없다.

4 답 ③

| 보기 | 오려 보기

이용악의 「하나씩의 별」과 신경림의 「갈구렁달」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나씩의 별」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과 고초를 겪은 유이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갈구렁달」은 시골과 도시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한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왜, 언제-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가)는 해방 전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이 해방 후 돌아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는 해방 전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며 보았던 풍경이므로, 해방 정국의 황폐화된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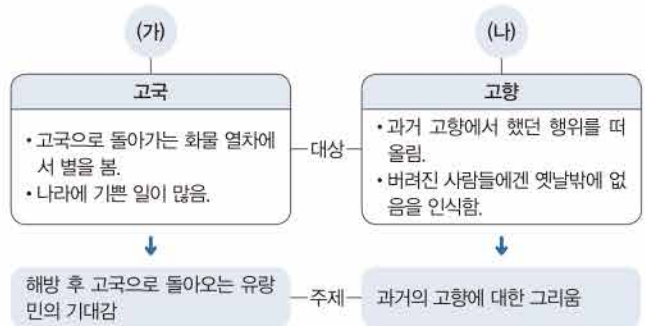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고향을 떠난 사

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를 타고 험한 땅으로 가 험한 일을 겪은 것과, (나)에서 사람들이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벌판에 버려진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누가** 〈보기〉에 따르면 (가)의 유이민들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험했었다고 하는 것은 유랑민에게 동질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누가** 〈보기〉에 따르면 (나)는 시골과 도시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시골과 서울에서 떠밀린 것은 고향과 도시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보기〉에 따르면 (나)의 고향은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다. 화자가 저녁노을을 보거나 고추잠자리를 잡은 일을 떠올리는 것에서 화자에게 고향이 여전히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사랑_고향



+ 어휘

-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황폐화**: ① 집, 토지, 삼림 따위를 거두지 않고 그냥 두어 거칠고 못 쓰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②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매마르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확인 1 답 (1) 아름다운 혼 (2) 이상 세계

이래서 정답

- (1) 화자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자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을 인식하고 있다.
- (2)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아 분열로 갈등하던 화자가 성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므로,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생성과 소멸이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를, ㉡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것을 통해 생명체가 지닌 근원적 고독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2) ㉠의 화자는 가슴에 '창(㉡)'을 만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고달픔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3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은 '오동잎', '푸른 하늘', '저녁놀'이다. 화자가 구도자임을 고려할 때 '검은 구름'은 절대자의 얼굴을 가리는 존재로, 번뇌로 볼 수 있다.
- (2) 화자는 자연 현상을 통해 모습이 드러난, '누구'라는 궁극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또한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자기 정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화자는 '회포'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거문고만 탄다고 하였다. 따라서 벗에게 회포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해소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화자는 어지러이 뽑아 놓은 책들을 정리하면서 저녁을 맞이한 후 자기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 ② 화자는 가을걷이가 가까워진 들판을 보며 그와는 달리 홀로 '숙원(학문적 성취)'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서시

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나'
언제 어디서	밤(일제 강점기)
무엇을	화자 자신의 삶, 소망과 양심
어떻게	시간 변화(과거 - 미래 - 현재)에 따른 사상 전개, 시적 허용
왜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고뇌와 극복 의지를 노래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화자는 '하늘', '잎새', '바람', '별' 등의 자연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 순수한 소망과 양심, 미래에 대한 다짐 등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별이 뜨는 밤의 이미지는 나타나지만, 계절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어떻게** '밤', '바람' 등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엿볼 수는 있지만, 역설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어떻게** '밤', '바람' 등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무엇을**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괴로움이 드러날 뿐 대상이 지닌 슬픔은 확인할 수 없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죽는 날까지 ~ 나는 괴로워했다.'에서 화자는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괴로웠던 과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 걸어가야겠다.'에서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화자는 과거에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고뇌했을 뿐 이별과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다.
- ② **누가** '죽는 날까지 ~ 나는 괴로워했다.'는 과거 화자의 삶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화자가 과거 자신의 상황을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누가** 화자는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회피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누가** '과거-미래-현재'로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바람'이 불었고, '오늘 밤'에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운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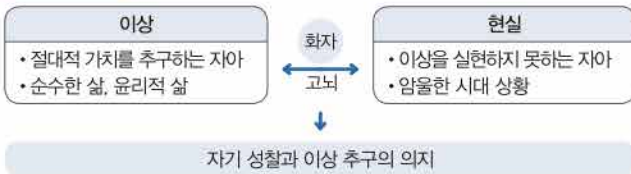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④ **왜, 무엇을** 이 시에서 '별'은 희망, 순수한 소망, 절대적 가치, 이상적 삶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② **왜, 무엇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숙명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왜, 무엇을** 일상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것은 화자가 추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현실에서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왜, 무엇을** '주어진 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이상적인 삶과 그에 대한 소명 의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는 이상 추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성찰과 탐구_내면, 이상



⊕ 어휘

- 회피적: 어떤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피하는 것.
- 숙명: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실전 18-B

본문 141

때

누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는 화자
언제 어디서	• 여름과 가을 • 자연, 인간 사회
무엇을	자연의 계절적 변화, 결실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활유법, 반복법
왜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을 노래함.

1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이 시는 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일상적인 언어로 드러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에서 활유법을 사용하여 숲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어떻게** 완결된 문장이 아닌 '거두어들일 때'로 사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④ **어떻게** '씻어 갈 때', '생겨날 때', '아쉬워할 때', '커질 때', '거두어들일 때' 등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적 변화와,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누가** '생각지 말자', '고집하지 말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이 시에서도 시인은 인생의 흐름을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키고 이를 통해 성찰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왜**

◎ 이래서 정답

- ② **왜**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는 것은 여름에 검푸른빛이었던 숲의 색이 가을이 되면서 변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흐름을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킨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청년 시절에서 장년 시절로 넘어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는 자세와 삶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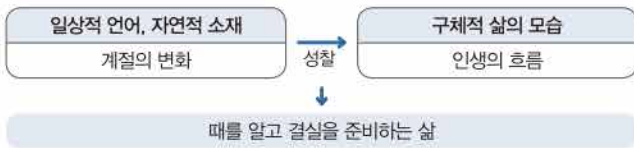
⊙ 왜 오답

- ① **무엇을** 여름에는 들판에서 '곡식이 뜨겁게 익고' 가을에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라고 하였다. 즉 여름에 익은 곡식의 결실을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때

‘여름내 흘린 땀’은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을** ‘누르스름한 이파리’ 즉 단풍과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가을이 계절적 배경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무엇을** ‘광복절’, ‘머칠 안 남은 여름 방학’은 시간적 배경이 8월 하순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상적 언어이다.
- ⑤ **왜**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성찰과 탐구_삶, 내면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음에도 ‘아직도(㉔)’ 여름이라고 고집한다는 것으로 보아, ㉔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미련과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어느새(㉑)’ 광복절이 지나가고 머칠 안 남은 여름 방학을 아쉬워한다는 것으로 보아, ㉑에는 여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커진 것으로 가을이 ‘이미(㉒)’ 곁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㉒에는 자연물에 의해 환기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이제는(㉓)’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임을 깨닫고 있으므로, ㉓에는 현재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상황에서 ㉕은 지난 계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㉕은 새 계절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으므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 **하순**: 한 달 가운데 21일에서 말일까지의 동안.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려일으킴.

일민가

누가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은거하는 ‘나’
언제 어디서	• 관직에서 물러난 후 •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
무엇을	화자의 삶, 흥취와 번민
어떻게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고사 인용
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연에서의 흥취와 번민을 노래함.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금서 일실이 이 아니 내 분인가’, ‘호탕한 미친 흥을 행여 아니 남이 알겠는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삼경을 다스리니’에서 한나라 장후의 고사를, ‘사안의 사죽도사’에서 진나라 사안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 ③, ④ **어떻게** 후각적 이미지나 연쇄법이 나타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 ⑤ **어떻게** 이 작품에는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화자는 속세에서 낮은 벼슬을 하고 갈등을 겪었지만, 그 이유를 개인적 차원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태평성대처럼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세상일을 다 잊을 것 같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세상일을 잊고 속세와의 거리를 유지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화자가 바깥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A]의 ‘강호의 임자 되야’에서 자연에 묻혀 지내고 있음을, ‘돌이켜 생각하니 애달픈 일 하고 많다’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B]에서 머리가 허영계 센 후에야 공명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늦은 나이에 관직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적이 서툰고 세상살이가 기구하여 몇 년 동안 낮은 벼슬만 했다고 하였으므로, 관리로서 높은 위세와 명성을 얻지는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누가** [C]에서 ‘박잔’은 조그만 박으로 만든 잔으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낸다. 자연에 돌아온 화자는 박잔으로 술

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호탕한 흥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⑤ **누가**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위안을 얻고 풍류를 즐기며 살면서도 [E]에서 '땃힌 마음'이 '북꺾'에 달렸다고 하였다. 이 마음은 세상일에 대한 미련, 궁궐의 임금을 향한 마음으로, 이로 인한 시름을 음악으로 달래려 함을 사안의 고사를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수조가를 부르고 춤을 추던 화자는 '달(㉔)'이 뜨는 밤이 되자 그만하고 쉬어 보자고 한 뒤, 배를 매어 놓고 석경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㉔은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오마(㉑)'는 화자가 남주 백리지에 관직을 수행하러 가는 길에 이용한 것으로, 과거에 화자를 억압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무엇을** 화자는 '이마 흰 모진 뱀'으로 인해 환정이 사라져 '웃(㉒)'을 벗어 놓고 평민이 쓰는 황관을 썼다고 하였다. 따라서 ㉒은 화자가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소재가 아니라, 화자가 몸담고 있던 관직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오니 산천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고 '송죽(㉓)'이 반기는 듯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㉓은 화자가 처음으로 가 본 새로운 공간에서 만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오류택(㉔)'은 진나라 시인 도연명의 집으로, 은거하는 집을 일컫는다. 화자는 자신이 지내는 집을 ㉔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와 대립하는 상대의 갈등은 속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㉔을 화자가 대립하는 대상과 만나게 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윤이후의 「일민가는 자기 성찰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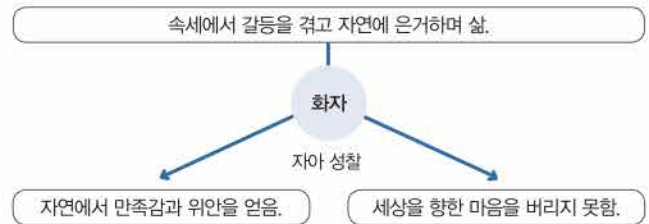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금서 일실'을 '내 분'으로 여기는 것에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민은 나타나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남주 백리지에서 화자는 관리로서 백성과 함께 지내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이마 흰 모진 뱀'이 나타난 이후 환정을 잃고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기>에서 화자는 속세에서 갈등을 겪고 은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였으므로, '이마 흰 모진 뱀'을 만난 것은 화자가 겪은 속세에서의 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왜** 관직을 버리고 자연에 돌아간 화자는 '앞내에 고기 낚고 뒷뒀에 약을 캐'며 '인생지락'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 속에서 화자가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왜** 화자는 자신이 세상일을 근심해도 아무 이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고난 성정 탓에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⑤ **왜** '강호의 일민'으로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위해 '축성수'를 하겠다는 것에서 세상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성찰과 탐구_삶, 내면



+ 어휘

- **행여**: 어쩌다가 혹시.
- **해학적**: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
- **공명**: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 **성정**: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확인 1 답 L

◎이래서 정답

- L. '왜적의 흉한 침략'은 임진왜란을, '만고의 그 원한'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치욕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는 왜적의 침략을 받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우국 단심이야 어느 땐들 있겠는가'라고 하며 나라와 임금을 향한 우국 충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나라와 사회'를 주제로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ㄱ. 이 시는 고양이를 통해 연상되는 봄의 분위기를 시각적·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므로, '나라와 사회'를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 ㄴ. 이 시는 거대한 바다에 갔다가 지쳐 돌아온 나비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나라와 사회'를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확인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는 삶의 터전인 땅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절망감과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절망적인 식민지 현실과 극복 의지가 이 시의 주제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② <보기>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낼 뿐, 통일을 염원하거나 생명의 순환 원리를 깨닫고 있지 않다.

확인 3 답 (1) 국토 (2) 비애

◎이래서 정답

- (1) <보기>는 1920년대 중반,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현실을 다룬 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일제에게 빼앗겨 남의 땅이 되어 버린 조국의 국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서 입술을 다물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당시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1연에서 화자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국에도 봄이 온 것을 보고, 희망적인 미래(광복)가 올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3연에서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참담한 현실 상황을 인식한 후, 마지막 연에서 '들'을 빼앗겨 '봄

(광복)'조차 빼앗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1연의 의구심이 비애와 절망감으로 바뀌며 주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확인 4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보기 1>에서 작가 원천석은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자 새 왕조에 반대하여 치악산에 은거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눈'은 새로운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을, '휘어진 대'는 그에 저항한 작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중장은 굽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서도 푸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보기 1>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 세력의 강요 속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은 작가의 태도를 '눈 속에 푸를쏘냐'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개를 굽히고 조선의 건국에 협력한 이들을 옹호하는 말로 볼 수 없다.
- (3) 종장의 '세한 고절'은 한겨울 추위를 이겨 내는 높은 절개를 뜻하는 말로, 멸망한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절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제가 집약된 시라 할 수 있다.

+ 어휘

- **우국충정**: 나라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
-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 **옹호**: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명월음

누가	혼란하고 암담한 현실을 걱정하는 '나'
언제 어디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 겨울밤
무엇을	전란으로 인한 근심
어떻게	비유법, 감정 이입, 대구법, 설의법
왜	나라의 위기에 대한 걱정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함.

1 답 ④

이래서 정답

④ **누가** 화자는 폐구름에 가려 달빛이 점점 아득해지는 것을 걱정하며, '금작경(④)'이라도 닦아 벽 위에 걸어 두고자 한다. 그런데 화자가 ④에 대해 명월과 달리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④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찬바람(㉠)'은 눈과 서리를 몰고 와 온 세상을 백옥경으로 만든다. 화자가 이러한 풍취를 즐기며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자연 완상을 가로막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③ **무엇을** 화자가 연주한 '봉황곡(㉡)'은 소리가 맑아 태공, 즉 아득히 높고 먼 하늘에 들어가서 달 속의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 ㉢은 화자의 흥취를 나타낼 뿐, 화자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끈다거나 화자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화자는 끝없이 높고 멀리 있는 하늘인 '장공(㉣)'과 달리 자신은 '진토'에 불과하여 구름을 쓸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을 화자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누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답 ①

보기 | 오려 보기

...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왜

이래서 정답

① **무엇을** '청광(맑은 달빛)'은 화자가 아뢰려는 말을 들어 주는 존재인 임금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음에 먹은 뜻'을 아뢰는 주체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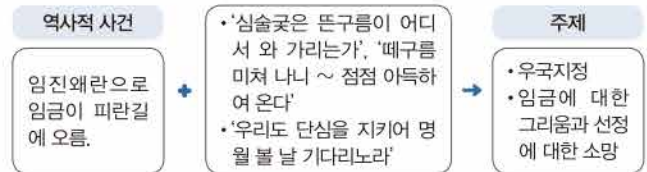
왜 오답

② **언제·어디서**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미쳐 나는 것은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③ **누가** '희미한 한 빛'은 구름에 가려진 달빛으로, 그마저도 점점 아득해진다고 함으로써 전란으로 인한 암울한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구름'은 달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하고 갈 길을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전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는 표현은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왜** '명월'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임금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나라와 사회_우국지정



3 답 ③

이래서 정답

③ **무엇을** 화자는 '풍운'이 변화하더라도 달의 '본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단심'을 지켜 맑은 달을 볼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은 달의 속성인 광명을 가리키므로, 달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을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은 달의 광명과 관련된 것으로 '시름 많'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다.
- ② **무엇을** ㉦은 쉽게 변화하는 '풍운'이 아니라 영속적 속성을 지닌 '달'의 광명과 관련된 것이다.
- ④ **무엇을** ㉦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절망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의 앞에서 화자는 달이 찼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영허 소장'을 언급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의 본색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영허 소장'을 바탕으로 달의 영속성을 말한 것이지,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어휘

- **과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영속적**: 영원히 계속되는.

대설 주의보

누가	산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모습을 보는 화자
언제 어디서	• 겨울(계엄령이 선포된 1980년대) • 산속
무엇을	군사 독재 정권의 폭압
어떻게	동일한 시행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의인법,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왜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함.

1 답 ①

❶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조그맣고 작은 굴뚝새가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눈보라와 솔개를 피해 뒷간에 몸을 감추는 상황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❷ 왜 오답

- ② **어떻게** ‘조그마한 ~ 날개를 파닥이며……’, ‘다투어 몰려오는 ~ 계엄령’과 같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어떻게** ‘백색의 산들’, ‘덤벼드는 눈’,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등 시행을 명사로 끝맺음으로써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언제-어디서** 눈보라 속에서 힘겹게 날아오던 굴뚝새가 솔개를 피해 뒷간에 몸을 감추는 모습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여 안타까움 등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어떻게** 눈보라를 힘찬 ‘군단’으로 의인화하여 계엄령 아래에서 움직이는 군대를 연상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대설 주의보」는 부정적인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언제-어디서, 왜**

❶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강압 통치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눈보라 속에 고립된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라기보다 계엄령이 선포된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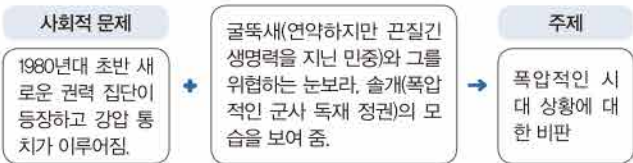
❷ 왜 오답

- ① **무엇을**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에서 ‘내리는’의 주

체는 ‘눈’이자 ‘계엄령’이므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무엇을** ‘솔개’는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을 상징하는 ‘굴뚝새’를 위협하므로, 부당한 권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하여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왜** 눈보라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로부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굴뚝새’가 ‘뒷간’에 몸을 감추어 버리므로,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시에서는 억압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낼 뿐이다.

문제 공식 적용 나라와 사회_현실 비판



3 답 ②

❶ 이래서 정답

- ② **언제-어디서** [A]는 눈보라에 의해 산짐승들이 길을 잃고 굶주리며,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 산골짜기에서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가난한 외딴집에도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하였으므로,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고 볼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무엇을** [A]에서 눈보라는 산속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화자가 거리를 두고 보고 있으므로,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③ **언제-어디서** [A]에서 화자는 눈보라에 의해 그 속의 존재들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A]에는 억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외부적 공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아 성찰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를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없다.
- ④ **누가** 눈보라에 의해 산속이 고립된 풍경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무엇을** [A]의 상황에 대해 화자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❸ 어휘

- 선포: 세상에 널리 알림.

가 향아

누가	‘향’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우리)
언제 어디서	허위와 가식에 물들어 있는 현재
무엇을	순수함과 생명력을 지닌 삶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 직유법, 반복법, 대조법, 돈호법
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노래함.

나 전문가

누가	어느 골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는 화자
언제 어디서	골목
무엇을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
어떻게	상징적 사건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행간 절침, 시적 대상의 말을 직접 인용
왜	기만적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군중의 모습을 제시하고 권력자를 비판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나)는 하나의 동화처럼 이상한 사람이 이사 온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가 유리 담장을 박살 낸 ‘아이들’에게 상관없다며 마음껏 놀라고 하자, 이에 현혹된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유를 잃고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된다는 내용으로, 기만의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가 어떻게 우매한 군중을 이용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가)는 화자가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고 하면서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과거를 회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갯빛 허울’,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거와의 대조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 ③ **어떻게** (가)의 ‘수수려거리는 수수밭’, ‘미끈땀한 기생충’ 등에서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나타낸 말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가)에서는 ‘가자’가 ‘돌아가자’, ‘가자꾸나’ 등과 같이 시어가 변주·반복됨으로써 시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나)에서는 동일한 시구가 반복·변주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누가** (가)의 화자는 청자를 ‘향아’라고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권하고 있으므로, 위로가 아닌 청유하는 어조로 말을 건넨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언제-어디서** ‘정자나무 마을(㉠)’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고 싶어 하는 옛날의 고향으로, 빨래를 하던 냇물이 있고 철따라 두레를 먹었으며 콩바심을 하고 명절에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춤추던 곳이다. 따라서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골목(㉡)’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리며 놀던 곳이었으나 ‘어느 날’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나르게 되는 곳이다. 따라서 ㉡은 ‘아이들’이 절없이 놀다가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이므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으로 보아,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언제-어디서**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은 ‘아이들’이 부하로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은 화자와 ‘향’의 고향을 의미하므로 낯선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은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아고 의견을 냈던 아이가 추방되고 남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날라야 하는 곳이므로, 자유와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가)의 화자가 ‘향’과 함께 순수함과 생명력,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은 이 둘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에서 ‘아이들’은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 명령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 관계가 상생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가)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각 연의 시행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특히 ㉢는 이 시의 마지막 연으로, 시행을 점차 길게 함으로써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망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에서 청각적 이미지,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화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떻게** '구슬처럼', '전설 같은' 등의 직유법과 냇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이상적인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어떻게** '애들아, 상관없다 ~ 이 골목에서 놀렴'은 '그'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으로,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달콤한 말로 '아이들'을 현혹하는 '그'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극적으로 보여 준다.
- ⑤ **어떻게** '그 아름다운'에서 시행을 나누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의 태도와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은 골목의 풍경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답 ①

| 보기 | 오래 보기

...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왜**

⑥ 이래서 정답

- ① **왜**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가 있는 지금의 공동체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낚을 빼앗기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는 등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있다. 이에 화자는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고 말함으로써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지녔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공동체를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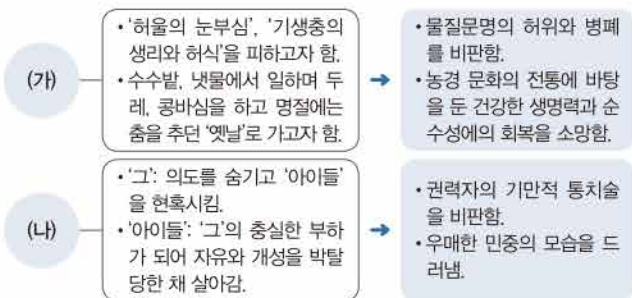
③ 왜 오답

- ② **왜**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 내던 '유리 담장'을 떼어 내자 그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유리 담장'을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왜** (가)의 '기생충의 생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여 살아가려는 습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마

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하여 얻은 곡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주장하는 아이'는 송판으로 담을 쌓자고 말하였다가 '그'에 의해 추방된 존재이다.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가)에서 화자는 '향'에게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를 그만두고, 맨발로 콩바심하고 명절 밤 때 지어 춤추던 과거의 순수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발돋움의 흉내'는 '향'이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척하는 '그'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왜** (가)에서 명절날 밤에 치마를 나부끼며 춤추던 모습은 철따라 두레를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모든 아이들이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기 때문으로,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문해 공식 적용 나라와 사회_현실 비판



+ 어휘

- **기만**: 남을 속여 넘김.
- **관망**: ①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② 풍경 따위를 멀리서 바라봄.
- **귀환**: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이탈**: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
- **병폐**: 병통(깊이 뿌리박힌 잘못이나 결점)과 폐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환영**: ①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② 사상이나 감각의 착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
- **은폐**: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